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김윤희 · 정윤미



보고서 표지 디자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보고서 디자인 콘테스트』의 당선 작품을 카카오톡 이모티콘 작가(작가명 모지)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실사한 것입니다.

***당선작 프롬프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 청소년들을 지지하는 어른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문화, 기후변화, 인공지능, 미디어, 권리”

AI 디자인_ 곽진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행정원)

실사 디자인_ 변지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인턴)

연구보고 23-일반07-01

2023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진로준비도의 교급별
시대별 경향 및 잠재
유형 관련 요인 분석

저 자 김윤희, 정윤미

연구진 연구책임자_김윤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정윤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조원_이유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청소년의 진로준비도는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미래의 직업을 선택 및 수행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기반 및 정책적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의 기초 소양 및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자유학기제 등과 같이 학생들의 적성 및 관심분야를 고려하는 진로교육이 확대된 바 있으며, 학생의 맞춤형 진로교육 및 자기 주도적 진로개발 역량강화 교육과정과 같이 진로와 관련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한국아동·청소년패널 (KCYPs) 2018의 2022년에 조사한 아동·청소년의 진로준비도 요인을 중심으로 중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경향에 대해 파악하여,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주요 연구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하였음. 첫 번째로는 진로준비도의 교급별, 시대별 코호트 차이 분석, 두 번째로는 진로준비도 구성요소에 따른 잠재집단분석, 특성 차이 분석, 영향 요인 분석을 실시함.
- 이를 통해 중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경향성을 파악하고, 시대에 따라 변화한 수준을 탐색하여, 교급 및 시대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준비도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음.
-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진로준비도 유형에 따른 다면적인 특성을 파악함에 따라 진로교육의 차별화된 지원 방안 논의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연구문제1) 진로준비도 코호트 분석
- KCYPS 2018 중학생 및 고등학생 진로준비도 집단 간 차이 (교급별 코호트 분석) - KYPS 2003, KCYPS 2018 고등학생 진로준비도 집단 간 차이 (시대별 코호트 분석)
▼
[기대효과] 교급 및 시대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준비도 특성 이해

(연구문제2) 진로준비도 잠재집단분석, 유형별 개인·환경 특성 차이 분석 및 예측요인 탐색
- 진로준비도 구성 요인의 수준에 따른 잠재집단 유형 분석 - 잠재집단별 개인·환경 특징 차이 - 잠재집단별 개인·환경 예측요인 탐색
▼
[기대효과] 진로준비도 잠재유형에 따른 주요 요인 파악: 개인 및 환경 요인과의 다면적 관계 확인 및 차별적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

■ 분석 방법

- 분석 방법을 각 연구내용에 따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연구내용		분석 방법
연구1. 진로준비도 코호트 분석		
KCYPS 2018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기초분석 및 코호트 분석	⇒	코호트 집단 간 차이 분석
KYPS 2003, KCYPS 2018 고등학생 진로준비도 코호트 분석		
연구2. 진로준비도 구성요소에 따른 잠재집단 분석, 개인·환경 특성 차이 분석, 영향 요인 분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진로준비도 잠재집단분석	⇒	잠재집단 도출을 위한 잠재프로파일 분석(LPA)
진로준비도 잠재유형별 개인·환경 특징 차이		차이확인을 위한 집단 간 차이분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진로준비도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환경 요인 탐색		예측요인 탐색을 위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부록. KCYPS 2018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기초분석		

■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연구문제1) 진로준비도 코호트 분석 - 교급별
1-1. 교급별 코호트 분석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중고등학생 대부분 4년제 대학교 졸업을 목표로 하며, 고등학생이 장래 희망 직업을 더 많이 결정한 반면, 희망 직업 달성 가능성은 중학생이 더 높게 인지함. • 희망직업 선택요인에서 공통적으로 “수입(임금)”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외재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함. • 진로적응력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높은 수준임. • 중고등학생의 진로관련 대화빈도는 어머니, 아버지 순이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대화함. • 중고등학생 모두 진로준비활동에서 모두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검사에 대한 참여경험이 가장 많았고, 현장 직업 체험의 도움 수준이 가장 높았음. •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 관련 상담 등 진로준비 활동 참여빈도 및 도움정도는 고등학생이 더 높았음 • 진로 경험에서 직업/진로 관련체험활동 참여경험은 고등학생이 높고, 만족도는 중학생이 더 높음.
▼
• 의사결정 시기의 시간적 거리와 지속적인 학교 진로교육은 진로역량을 높임. • 진로준비 활동 참여는 현재 진로교육 중고등학교에서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경험이 많아짐. • 중고등학교 직업/진로 관련체험활동의 차별화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필요함.

1-2. 시대별 코호트 분석 (2006년 고등학교 2학년: 과거, 2022년 고등학교 2학년: 최근)
• 최근의 고등학생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진 반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늘어남. • 시대별 직업가치의 우선순위는 2022년 고등학생은 “수입(임금)”, 2006년의 고등학생은 “어울려 일함”으로 나타남. • 진로탐색 영역의 진로준비활동은 과거와 현재 모두 진로 심리검사 및 적성 검사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도움이 된 정도는 최근에 더 높아짐. • 참여 경험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현장직업 체험과 직업실무 체험은 도움의 정도가 두 코호트 모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는 과거에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직업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최근의 고등학생에게서 더 높은 수준임.
▼
• 최근 고등학생의 교육포부는 장래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 결과보다 학력주의 희망일 가능성을 시사함. •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외재적 직업 가치나 본인의 행복에 집중된 요인들에 가치를 두는 반면, 직업의 내재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경향성이 있어, 균형적 직업 가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고등학교의 진로심리검사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함에 따라, 지속적인 시행 및 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 도움정도에 비해 참여경험 기회가 낮은 현장직업 체험과 직업실무 체험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함. • 아르바이트가 진로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함.

(연구문제2) 진로준비도 잠재집단분석, 유형별 개인·환경 특성 차이 분석 및 예측요인 탐색
2-1. 교육포부 및 직업달성 포부에 따른 진로준비도 유형화
교육포부 및 직업달성 포부에 따른 진로준비도 유형화 결과 중고등학생 모두 “진학 무관심형(교육포부 미결정, 낮은 가능성의 희망직업), 진학 관심형(높은 교육포부, 희망직업 미결정), 진로 관심형(높은 교육포부, 높은 직업달성포부)” 세 가지 잠재집단으로 분류됨.
▼
- 교급이 높아져도 진로준비도의 유형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학생들의 체계적 진로 준비를 도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대학 진학 이후 진로 및 적성을 탐색해야 하는 유형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함.

2-2.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잠재집단 유형별 개인·환경 요인 차이
- 개인, 가정, 학교, 그리고 진로 영역 각 요인에서 전반적으로 진로 관심형이 가장 우수한 수준, 진학 무관심형이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 [개인특성] - 학교에서의 개인변인 및 사회정서적 변인에서 진학 무관심형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가정의 객관적 경제 수준인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진학 무관심형은 상대적으로 저소득 구간 비율, 진로 관심형은 고소득 구간 비율이 높았음. [가정특성] - 부모의 양육 태도는 진로 관심형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고등학생 “진학 관심형”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학교특성] - 진로 관심형은 수도권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친구와 교사 모두 진로 관심형이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 진학 무관심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진학 관심형의 경우, 교사와의 관계가 진로 관심형만큼 높았음.
▼
[개인특성] - 이와 같은 결과는 진학 무관심형의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학업 성취, 학업 열의를 위한 지원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며 진로준비도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가정특성] - 저소득층이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이 진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 - 진로교육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함. [학교특성] - 교사는 청소년의 교육포부 수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진학 이외에 직업과 같은 진로 탐색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교육하고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진로특성] • 희망직업 선택요인에서 고등학생은 “개인적 차원” 중 전반적으로 “진학 관심형”이 “진로 관심형”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진로적응력의 경우 중고등학생 모두 진로 관심형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진학 관심형”의 경우, 하위 영역인 “진로 관심”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 • 진로관련 대화는 중고등학생 모두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와 자주 대화함. • 진로준비활동별 참여율은 활동에 따라 상이함. 도움의 정도는 대체적으로 진로 관심형이 가장 높음. • 체험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편임. •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중학생에 비해 높으며, 미래 직업생활에 도움정도 또한 더 높음.
▼
[진로특성] • 진학 관심형은 직업가치 요인들이나 직업 선호에 대해 아직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반면, 진로 관심형은 교육포부와 직업달성포부가 동일한 수준으로 발달하였다는 점에서 직업 선택에 있어, 현실적으로 요인들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됨. • 교육포부뿐만 아니라 희망 직업에 대한 균형적 발전의 필요성을 시사함. • 진로준비활동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며, 단순히 다양한 진로준비활동에 노출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화된 진로준비활동이 구성이 필요함. • 체험활동을 경험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함. • 아르바이트의 미래 직업에 대한 도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

2-3. 잠재집단 유형별 예측요인 분석
[개인특성] • 중학생은 전 교과 성취도 주관적 평가 수준과 학업 열의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낮았고,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중고등학생 모두 대부분의 부적응적 사회정서 측면이 높을수록 진학 무관심에 속할 확률이 높음.
[가정특성] •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중고등학생 모두 높음.
[학교특성] • 수도권에 있을수록 진로 관심형일 가능성이 높았음. • 고등학생의 교사관계는 긍정적 관계일수록 진로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음.
▼
[개인특성] • 학업적 측면 이외에 청소년의 심리자원을 위한 지원이 진로교육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함.
[가정특성] • 우리나라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진로 전반보다는 교육 및 진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됨. • 학부모들에게도 “대입입시”이외에 직업적인 탐색과 목표설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학교특성] • 상대적으로 개인이 진로와 관련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나 기회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집중되므로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균형적인 교육정책을 제공해야함. • 긍정적인 교사관계가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시사함.
[진로특성] • 희망직업 선택요인에서 중고등학생 모두 사회적 차원의 직업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진로적응력이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음. • 중학생은 어머니와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가 많을수록 진로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음. • 중고등학생 모두 '진로와 직업' 수업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진로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음.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은 중학생에게만 나타났으며, 경험이 있는 경우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낮아짐. • 직업/진로 관련 체험활동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중학생의 진학 무관심형,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을 때 중고등학생 모두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음.
▼
[진로특성] • 직업가치 및 진로적응력은 체계적인 진로준비를 예측하므로 청소년이 직업가치를 다면적으로 고려하고 진로 관심, 호기심, 자신감을 갖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고등학생의 경우 가정 내에서의 진로탐색 기회보다 학교 내에서의 진로탐색 기회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의 진로탐색을 위한 개입이 중요함을 보여줌. • 창의적 체험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진로경험이 실제 학생들의 진로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줌에 따라, 경험의 양보다는 질의 중요성을 보여줌.

■ 정책 제언

-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진로준비를 위해 1) 학교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 안착을 위한 지원, 2) 경험 중심 진로체험의 내실화, 3)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4)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지원 등의 정책을 제안함.

2023 한국 아동·
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진로준비도의 교급별 시
대별 경향 및 잠재유형
관련 요인 분석

연구보고 23-일반07-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9

3.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11

 1) 진로준비도 코호트 분석 11

 2) 진로준비도 잠재집단분석 및 예측요인 탐색 11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진로발달 및 진로준비도 15

 1) 청소년의 진로발달 15

 2) 진로준비도 개념과 구성 요소 16

2. 진로준비도 관련 요인 19

3. 우리나라 청소년 진로교육 정책 동향 21

 1) 우리나라 진로교육 정책 흐름 21

 2) 우리나라 주요 진로교육 정책 24

4. 청소년 진로 고민과 대학 진학 기대	31
1) 청소년의 고민과 진학 선택	31
2) 학생과 부모가 기대하는 교육 수준	31
3) 학생과 부모가 대학 이상 교육받기를 바라는 이유 ...	33
4) 대학과 학과 선택의 기준	34
5. 학교 진로교육 운영 현황	36
1) 학교 진로교육 예산 현황	36
2) 학교 진로교육 담당 조직 현황	37
3)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운영 현황	38
4) 창의적 체험활동 내 진로활동 운영 현황	39
5) 교과 연계 진로교육 실시 현황	39
6) 진로심리검사 실시 및 진로상담 운영 현황	39
7) 진로체험 운영 현황	40
6.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 현황	42
1) 학생의 학교 진로활동 참여율과 만족도	42
2) 학생의 학교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율과 도움도 ...	45
3) 학생의 창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 참여율 및 만족도	47

III.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및 연구 대상	51
1) 분석자료	51
2) 연구대상	53
2. 분석 변인	55
1) 진로준비도 구성요인	55
2) 청소년의 개인 및 환경 변인(가정, 학교)	60
3. 분석 방법	63
1) 진로준비도 코호트 분석	63
2) 청소년의 진로준비도 잠재집단분석, 특성 차이 분석 및 영향요인 탐색	63

IV. 연구 결과

1. 진로준비도 코호트 분석	69
1) KCYPS 2018 교급별 코호트 분석	69

2) KCYPS 2018 KYPs 2003 시대별 코호트 분석 ...	78
2. 진로준비도 잠재유형 분석 및 영향요인 분석	89
1) 교육포부 및 직업달성 포부에 따른 진로준비도 유형화	89
2) 진로준비도 유형별 주요 특성	95
3) 청소년의 진로준비도 유형 영향요인	116

V. 논의

1. 주요 결과 및 시사점	125
1) 진로준비도 교급별 코호트 분석	125
2) 진로준비도 시대별 코호트 분석	128
3) 교육포부 및 직업달성 포부에 따른 진로준비도 유형화	132
4) 진로준비도 유형별 주요 특성 - 중학생	133
5) 진로준비도 유형별 주요 특성 - 고등학생	138
6) 청소년의 진로준비도 유형 영향요인 탐색	144
2. 정책 제언	150
1) 학교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 안착 지원	150
2) 경험 중심의 진로체험 내실화	150
3)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151
4) 지속 가능한 진로교육 지원	151
3. 결론	152

참고문헌	157
------------	-----

부 록	167
--------------	-----

Abstract	201
----------------	-----

표 목차

표 I-1. 주요 진로교육 정책	5
표 II-1. OECD 진로준비도 개념 (OECD Career Readiness)	17
표 II-2. 국가 진로교육 발전 단계	22
표 II-3. 진로교육 정책 추진 현황	24
표 II-4. 진로교육 주요 정책의 비전 및 목표 추진 전략	25
표 II-5. 진로교육 종합 계획(2010~2013) 추진과제	26
표 II-6. 제 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추진과제	28
표 II-7.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18) 추진과제	29
표 II-8.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추진 과제	30
표 II-9.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31
표 II-10. 학생이 기대하는 교육 수준	32
표 II-11.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교육 수준	32
표 II-12. 학생의 대학(교)이상 교육을 기대하는 목적	33
표 II-13. 자녀가 대학(교)이상 교육받기를 바라는 이유	34
표 II-14. 학교 진로교육 예산 투입 부문	36
표 II-15. 학교 진로교육 담당 부서(조직) 유무	37
표 II-16.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운영 현황	38
표 II-17. 「진로와 직업」 선택과목 채택 현황(중·고등학교)(연도별)	38
표 II-18. 학생 진로상담 실시 방식	40
표 II-19. 학교 진로체험 유형별 실시 현황	41
표 II-20. 학생의 학교 진로활동 참여율과 만족도, 향후 참여 희망 (2022년)	45
표 II-21. 학생의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율과 도움도, 향후 참여 희망 (2022년)	46
표 II-22. 창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 참여율과 만족도(2022년)	47
표 III-1. KYPs 2003, KCYPs 2018 진로준비도 문항구성	52
표 III-2. 사회인구학적 특성	54
표 III-3. KCYPs 2018, KYPs 2003 청소년의 진로준비도 구성요인	56
표 III-4. KCYPs 2018 청소년의 개인 및 환경 변인	60

표 III-5. 연구내용에 따른 분석방법	65
표 IV-1. KCYPS 2018 교급별 교육포부 수준	70
표 IV-2. KCYPS 2018 교급별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	70
표 IV-3. KCYPS 2018 교급별 희망 직업 달성 가능성	71
표 IV-4. KCYPS 2018 교급별 희망직업 선택 요인	72
표 IV-5. KCYPS 2018 교급별 진로적응력	73
표 IV-6. KCYPS 2018 교급별 진로관련 대화 상대	74
표 IV-7. 진로준비활동 참여율 및 도움정도(상위 5개)	75
표 IV-8. KCYPS 2018 교급별 진로준비활동 참여 및 도움 정도 ..	76
표 IV-9. KCYPS 2018 교급별 체험활동 중 직업/진로 관련 활동 ..	77
표 IV-10. KCYPS 2018 교급별 아르바이트 경험 및 도움 정도 ..	77
표 IV-11. 청소년의 시대별 교육포부 수준	78
표 IV-12. 청소년 시대별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	79
표 IV-13. 청소년 시대별 희망 직업 달성 가능성	80
표 IV-14. 청소년 시대별 희망직업 선택 요인	81
표 IV-15. 청소년 시대별 진로 관련 대화 상대/빈도	83
표 IV-16. 청소년 시대별 진로준비활동	85
표 IV-17. 청소년 시대별 아르바이트 경험 및 도움 정도	88
표 IV-18. 진로준비도 유형화 기준	89
표 IV-19.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잠재유형 수별 적합도 비교	90
표 IV-20.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잠재유형별 평균 할당 확률	91
표 IV-21.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교육 포부 수준 및 직업 달성 포부 차이	92
표 IV-22.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잠재유형 수별 적합도 비교	93
표 IV-23.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잠재유형별 평균 할당 확률	93
표 IV-24.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교육 포부 수준 및 직업달성 포부 차이	94
표 IV-25.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개인 특성 변인 차이	96
표 IV-26.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가정 특성 변인 차이	98
표 IV-27.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학교 특성 변인 차이	99
표 IV-28.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진로 특성 변인 차이 (진로생각 영역)	101
표 IV-29.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진로 특성 변인 차이 (진로탐색 영역)	103
표 IV-30.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진로 특성 변인 차이 (진로경험 영역)	105

표 IV-31.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개인 특성 변인 차이	107
표 IV-32.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가정 특성 변인 차이	108
표 IV-33.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학교 특성 변인 차이	110
표 IV-34.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진로 특성 변인 차이 (진로생각 영역)	112
표 IV-35.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진로 특성 변인 차이 (진로탐색 영역)	113
표 IV-36.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진로 특성 변인 차이 (진로경험 영역)	115
표 IV-37.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 영향요인 분석 결과	117
표 IV-38.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 영향요인 분석 결과	121
표 부록-1. 교급별 교육포부 수준	167
표 부록-2. 교급별 희망 직업 결정 여부	169
표 부록-3. 교급별 직업달성포부	171
표 부록-4-1. 교급별 희망직업 선택 요인	173
표 부록-4-2. 교급별 희망직업 선택 요인	175
표 부록-4-3. 교급별 희망직업 선택 요인	177
표 부록-5. 교급별 진로적응력	179
표 부록-6. 교급별 진로관련 대화	181
표 부록-7-1. 교급별 진로준비활동 참여 및 도움 정도	184
표 부록-7-2. 교급별 진로준비활동 참여 및 도움 정도	187
표 부록-7-3. 교급별 진로준비활동 참여 및 도움 정도	190
표 부록-7-4. 교급별 진로준비활동 참여 및 도움 정도	193
표 부록-8. 교급별 체험활동 중 직업/진로 관련 활동 참여 및 만족도	196
표 부록-9. 교급별 아르바이트 경험 및 도움 정도	197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8
그림 I-2. 〈연구문제 2〉 연구모형 세 가지	10
그림 II-1. 교육포부 및 진로선택 모형	20
그림 II-2. 대학 선택 시 고려 요인(2019-2022)	35
그림 II-3. 학교 진로활동별 참여율 변화(초등학생)	42
그림 II-4. 학교 진로활동별 참여율 변화(중학생)	43
그림 II-5. 학교 진로활동별 참여율 변화(고등학생)	44
그림 IV-1.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잠재유형	92
그림 IV-2.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잠재유형	95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 3.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의 진로교육은 개인의 진로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및 국가차원에서도 노동시장의 생산성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Mann, Denis & Percy, 2020).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진로준비도 분석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에서도 강조되고 있으며, 배경적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소양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는 자유학기제, 맞춤형 진로교육 및 자기 주도적 진로개발 역량강화 교육과정 등의 진로교육이 확대된 바 있다. 두 번째로는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진로 활동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원격수업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직업 및 진로 관련 체험활동 및 실습, 진로탐색의 기회, 그리고 진로교육 활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 환경으로 복귀하면서, 정체되어 있었던 진로 탐색 및 참여 활동을 확대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22년 교육과정 개정 및 고교학점제 단계별 도입과 관련된 측면이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사항에 따르면,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진로 연계 학기 도입 등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강화 측면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진로교육은 본격적으로 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으며, 진로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정철영 외, 2022).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진로교육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준비 및 관련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1) 제1장은 김윤희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진로준비 상태를 밀도 있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진로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영역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 직업을 성공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진로준비도(Career Readiness)”의 개념이 등장한 바 있다(Covacevich, et al., 2021a; Covacevich, et al., 2021b). 이는 OECD 1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OECD 진로준비도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규정한 진로준비도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Mann et al., 2020).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생각(Thinking about the future)이다. 이는 희망직업을 결정하고자 하는 진로 확정성, 사회적 위세나 명성이 있는 직업에 대한 취업 희망 여부, 교육과 연계된 진로 야망, 그리고 미래 일과 관련된 교육의 경험 즉, 학교 태도에 대한 부분이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탐색(Exploring the future)으로, 진로에 대한 성인과의 대화 경험, 직업과 관련된 학교교육 프로그램, 직업박람회, 기업방문 등 학교를 통한 직업 체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경험(Experiencing the future)은 아르바이트, 인턴십, 봉사활동 같이 일어나 현장실습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개념은 제도적 기반 및 정책적 역할을 위해 활용하는데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한구, 박화춘, 2021; Mann et al.,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OECD 진로준비도 개념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준비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은 제도적 기반과 법적 근거 마련 등 오랜 기간 발전을 거쳐 현재 활성화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표 I-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진로교육은 2002년도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에 『진로와 직업』 선택과목을 신설함에 따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2009년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진로교육 종합계획(2010~2013)」 수립, 2013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추진되었다. 국가 진로교육 발전 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진로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시기를 “진로교육 발전기”라고도 불리운(정철영 외, 2022) 이후, 제 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앞서 진로교육 종합 계획을 통해 마련된 법적, 제도적 기틀 아래 국가 진로교육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진로교육법(’15.6.22.)」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15.12.22.)」이 제정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중고등

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율은 2016년 기준 95.3%로 나타났으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진로체험이 확대되었다. 또한, 지역에서는 진로체험처 확충을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고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학교 진로체험을 지원하였다.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단계를 지나 현재까지를 진로교육 성숙기로 구분하고 있다(정철영 외, 2022). 최근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은 보다 초점화 된 정책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진로수업과 상담을 내실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표 1-1. 주요 진로교육 정책

주요 진로교육 정책	세부사항
2002 제7차 교육과정	- 고등학교에 『진로와 직업』 선택과목 신설 (‘03)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도 『진로와 직업』 배부
2006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07~‘11) 계획 수립	9개 부처 공동 발표 - 초·중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 대학생 노동시장 진입 지원 - 학교 밖에서의 진로개발 지원 - 여학생 양성평등 진로교육
2009 개정 교육과정	- 집중이수제, 학습부담 적정화를 통한 의미 있는 학습활동 전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 진로집중과정 운영: 교육과정 재구조화로 선택과목 수준별·영역별 세분화 - 국가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 포함 - 교과통합 진로교육 등 진로교육 활성화 시작 - 비교과 창의체험활동 안에 진로활동 포함
「진로교육 종합계획 (2010~2013)」수립	- 교과부, 노동부, 복지부 공동으로 범부처 차원의 제1차 진로교육 중장기 계획에 해당 I. 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II.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III. 진로교육 자원체계 선진화’로 10개의 정책과제를 제시
2011 ‘진로진학상담 교사’ 배치	진로교육의 질적 수준을 신장하는 계기 마련
2011 「현장중심 진로 교육 활성화 방안」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을 통해서 진로교육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2013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정부의 국정과제를 고려하여 학생 개인의 다양한 진로교육 요구의 수요 증대를 추구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2016~2020)」	2016년에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의 안착과 확산을 위한 계획에 해당 - 4대 정책 영역, ‘1.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 2. 진로교육 대상 확대, 3. 진로체험 활성화, 4.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에 8개 추진과제, 20개 세부과제를 제시함.

주요 진로교육 정책	세부사항
2016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 중학교 학생의 보편적인 진로탐색 기회 제공
2016 진로전담교사 초등학교 배치	• 초등교육과정 내 진로교육 강화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 (2016~2020)	<국무회의 인건 발표> •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도입 • 진로교육 대상 확대(사회적 배려대상자, 대학생 등) • 진로체험 활성화 및 다양화,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2018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한 계획으로 대학과 성인을 포함한 계획에 해당 • 4대 정책 영역, '1. 학생 진로탐색 지원 강화', '2. 혁신 성장을 위한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3. 생애 단계별 진로개발 지원 확대', '진로교육 생태계 구축'에 9개 추진 과제, 23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함.

* 출처: 이지연, 김재희, 이서정 (2017: 148- 151p) 연구진 수정 사용함.

이와 같은 우리나라 진로교육 정책 흐름으로 인해 시대에 따라 청소년들이 경험한 진로 교육 및 정책에는 차이가 있다. 즉, 시대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준비도의 경향성도 변화하였을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 2018년 활성화 방안을 통해 창업체험교육이 상당히 강조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진로교육사업 내 창업교육의 비중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8년 전후로 진로교육에 해당되는 청소년들과 아닌 청소년들은 체험활동 경험 및 탐색의 참여 유무 및 도움 정도 등의 차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진로와 직업』 교과목, 진로체험 활성화 및 다양화, 진로상담 등 다양한 정책이 보다 체계화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서 그 효과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진로교육 발전단계에 적용한다면(표 II-2 참고), 각 “진로교육 발전기”의 청소년 및 “진로교육 성숙기” 청소년의 진로준비도의 특성을 비교하여 경향의 변화를 파악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도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진로교육 발전기의 정책 대상자에 해당하는 KYPs 2003의 고등학교 2학년(2006년도 자료)과 진로교육 성숙기에 해당하는 KCYPs 2018의 고등학교 2학년(2022년도 자료)의 진로준비도를 비교·분석하고, 시대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준비도 특성을 이해함에 따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시대 흐름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향의 변화에는 정책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이 있어 진로교육의 정책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비교 분석은 추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진로준비도는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청소년기의 미래 교육 수준 및 직업적 진로 결정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어 왔다(Erikson, 1968; Super, 1990). 이와 관련하여, OECD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들의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청소년기에 교육 및 진로 계획이 확실할수록 성인기에 보다 높은 보수 및 만족도 등을 포함한 직업 관련 요인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Covacevich et al., 2021a). 이와 같은 결과는 진로준비도 중에서도 교육에 대한 기대 및 직업 결정을 포함한 진로에 대한 확실성이 성인기의 직업결과와 큰 상관을 갖는 요인임을 강조하며, 추후 성인기의 노동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관계가 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Mann et al., 2020).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의 사회적 분위기로 중고등학교 시기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반해, 미래 직업 결정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13~18세 청소년의 경우, “공부(성적 등)”에 대한 고민(76.2%)이 “직업(직업선택 등)”에 대한 고민(36.2%)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통계청, 2022. 11.162b).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우리나라 교육은 미래 희망 직업에 대한 선택보다 대학 입학이 주요 목적이 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기중, 박수란, 2016).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더라도 진로에 대한 기대 수준은 낮거나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유형의 청소년들이 다수 존재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한편, 개인 중심 접근법(Person centered approach)은 이처럼 각 하위영역 수준에 따른 이질적 집단을 유형화하고, 집단에 따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ergman, Magnusson, & El Khouri,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중심 접근법을 적용하여, 교육 및 진로 확실성을 나타내는 희망 교육 수준 및 장래 희망 직업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진로준비도 잠재집단 유형을 분석하고, 각 유형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또는 보완해야 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진로준비도를 구성하는 교육포부, 직업포부 및 직업달성 등의 요인들은 청소년 개인의 정신건강, 사회경제적 수준, 학업성취, 중요한 타인의 영향 등 개인 및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Trebbels & Trebbels,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및 환경적 요인을 개인, 가정, 학교, 그리고 진로요인으로 나누어, 진로준비도 잠재유형에

따른 특징 차이 및 예측 요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진로준비도가 개인 및 환경 요인과 어떠한 다면적 관계를 갖는지 확인함에 따라 차별적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내용과 기대 효과를 도식화 하면 다음의 [그림 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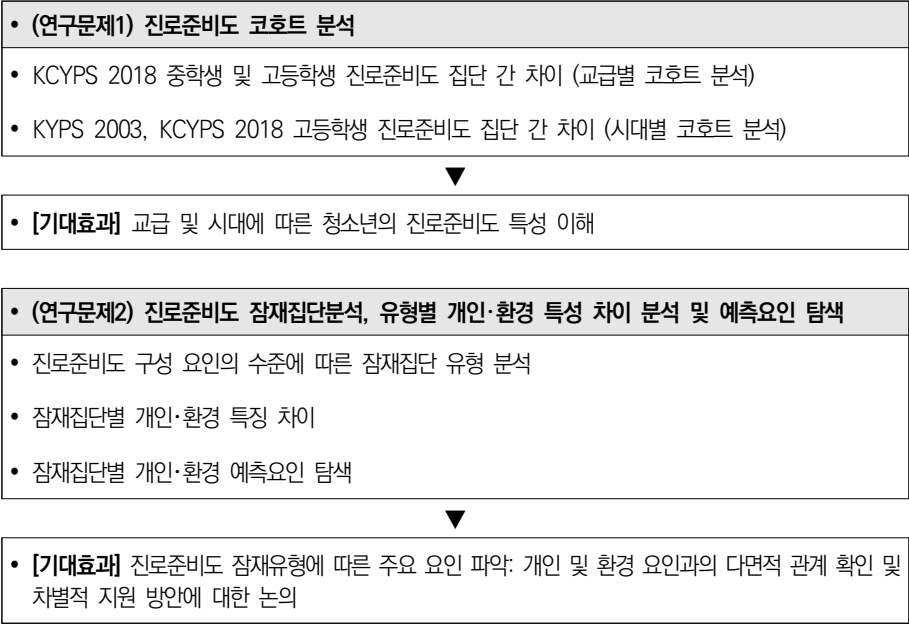


그림 I-1.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2. 연구의 목적

이와 같은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구성요인들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관련 요인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크게 진로준비도 코호트 분석과 진로준비도 잠재집단분석, 유형별 개인·환경 특성 차이 분석 및 예측요인 탐색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코호트 분석은 KCYPS 2018 패널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교급별 차이와 KYPS 2003, KCYPS 2018 고등학생 시대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교급별 코호트 분석에서는 KYPS 2003에서 KCYPS 2018과 유사/동일하게 수집된 자료를 비교하였다. 이와 같은 코호트 분석은 교급 및 시대에 따른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진로준비도 구성 요인의 수준에 따른 잠재집단 유형 분석에서는 진로준비도 중에서 교육포부와 직업달성포부에 따른 잠재집단 유형을 도출함에 따라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고, 개인·환경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다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진로준비도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정책적 제안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내용을 연구문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1-1. KCYPS 2018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2. KCYPS 2018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와 KYPS 2003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2-1. KCYPS 2018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잠재집단은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면 각 유형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
- 2-2. KCYPS 2018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에 따라 개인, 가정, 학교, 진로요인 특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3. KCYPS 2018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을 예측하는 개인, 가정, 학교, 진로요인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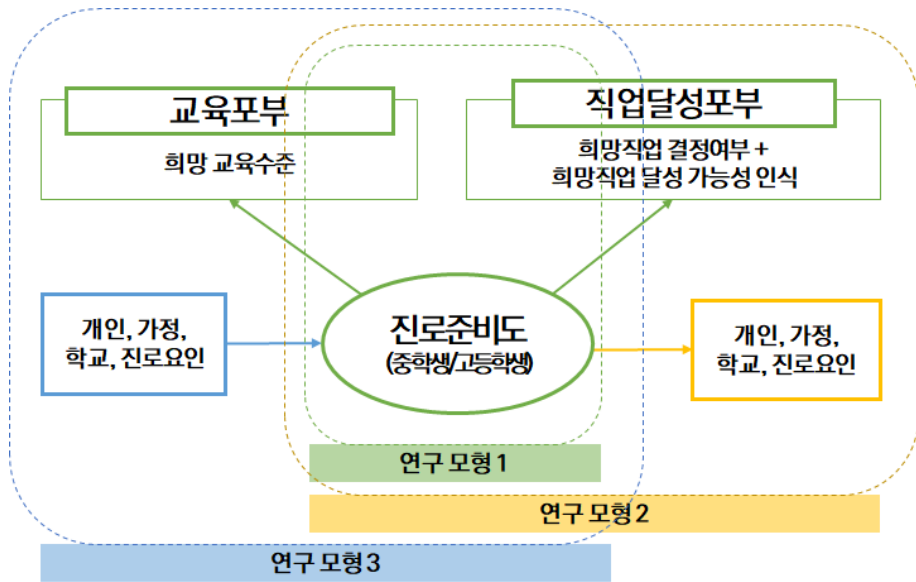


그림 1-2. <연구문제 2> 연구모형 세 가지

주: 연구모형 세 가지: 모형1) 잠재집단분석, 모형2) 유형별 개인·환경 특성 차이분석, 모형3) 예측요인 분석

3.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청소년의 진로준비도 경향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시사점 도출 및 정책적 제언을 위한 본 연구의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으며, 도식화하여 [그림 I-2]에 제시하였다.

1) 진로준비도 코호트 분석

청소년이 교급별, 시대별로 어떠한 진로준비도 경향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중학생과 고등학생 코호트의 진로준비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2006년 시기 고등학생과 2022년 시기 고등학생 코호트의 진로준비도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진로준비도 코호트 분석을 통해, 교급 및 시대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생각, 진로탐색, 그리고 진로 경험의 진로준비도 수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2) 진로준비도 잠재집단분석 및 예측요인 탐색

개인중심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진로준비도의 유형에 따른 진로준비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잠재유형을 도출하였다. 잠재집단분류에 사용된 진로준비도의 하위영역은 진로준비도의 핵심요소인 희망 교육수준, 장래희망직업 결정 여부 및 희망 직업 달성 가능성 인식 변인이며, 교육포부 및 직업달성포부에 따른 유형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 및 환경요인을 크게 개인, 가정, 학교, 그리고 진로 요인 특성의 차이로 나누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개인 및 환경요인이 잠재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개인 및 환경요인과의 다면적 관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차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의 진로발달 및
진로준비도
- 2. 진로준비도 관련 요인
- 3. 우리나라 청소년 진로교육
정책 동향
- 4. 청소년 진로 고민과 대학
진학 기대
- 5. 학교 진로교육 운영 현황
- 6.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
현황

1. 청소년의 진로발달 및 진로준비도

1) 청소년의 진로발달

진로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직업발달을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진로를 위한 계획 및 준비를 통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돕는 과정으로(정철영 외, 2022),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진로발달단계에 대해 Ginzberg(1971)는 세 가지 단계(the process of career development)로 나누어 특징을 설명하였다. 세 가지 단계는 환상 단계(Fantasy stage: 0 - 10세), 잠정 단계(Tentative stage: 11세 - 17세), 현실 단계 (Realistic stage: 17세 - 20대 초반)로 나뉜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진로발달 단계는 잠정 단계의 연령에 해당한다. 잠정 단계는 청소년 시기에 다른 직업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는 단계로 다시 총 네 가지 단계로 나뉜다. 여기에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분하는 “흥미 단계(interest stage)”, 자신의 능력이 다양한 직업과 경력의 요구 사항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배우는 “능력 단계(capacity stage)”, 다양한 직업이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인식하는 “가치 단계(values stage)”,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현실적 요인을 고려하는 “전환 단계(transition stage)”가 포함된다. 이와 같은 진로발달 단계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해 결정하고, 이를 어떻게 성취해나갈 것인지 구체화 할수록 높은 단계로 발달한다. 즉, 청소년의 진로발달 수준이 연령과 함께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로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진로발달 단계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진로준비도 수준에 따라 적합한 진로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제2장은 김윤희 부연구위원과 정지은 부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집필하였다.

2) 진로준비도 개념과 구성 요소

진로준비도의 개념은 청소년 및 청년뿐만 아니라, 학교, 미래에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 그리고 정부까지 포함하며, 이들이 노동시장에 잘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OECD의 진로준비도(Career Readiness) 프로젝트에서 고안된 개념이다. 이에 따라, 진로준비도 프로젝트에서는 진로준비도의 항목에 따라서 분석에 적용할 공통적인 개념을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스위스,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우루과이, 중국 등 8개국에서는 진로준비도의 항목에 따라 각국의 데이터를 검토하였으며, 청소년기 경험과 추후 성인기 고용 결과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Covacevich et al., 2021b). 이와 같은 진로준비도는 <표 II-1>와 같이 미래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탐색, 미래에 대한 경험을 포함한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져 있다(Mann et al., 2020). OEC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에 적용된 분류를 살펴보면(유한구, 박화춘, 2021), <표II-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미래에 대한 생각”은 “진로 확정성”, “진로 야망”, “교육과 관련된 진로 야망”, “학교 태도”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희망 직업의 결정 여부, 취업 희망 여부, 진로 야망에 맞는 교육희망여부 등과 같은 미래에 대한 희망 및 결정에 대한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외에 “학교 교육 만족도(School satisfaction)”나 “학교 동기(School motivation)”와 같은 항목도 미래에 대한 생각 범주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탐색은 “진로 대화”, “직업 준비”, “직업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진로에 대해 성인과 대화, 직업 관련 프로그램, 직업 체험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등에 대한 내용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경험”의 경우, 아르바이트나 인턴십, 봉사활동처럼 일이나 현장 실습 등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유한구, 박화춘, 2021). 이와 같은 진로준비도는 청소년 및 청년들이 교육 및 노동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기반, 정책적 역할 및 기능이 국제적으로 강조되고 있다(Mann et al., 2020).

표 II-1. OECD 진로준비도 개념 (OECD Career Readiness)

구성요인	설명
미래에 대한 생각 (Thinking about the future)	• 진로확정성(career certainty): 30세에 희망하는 직업의 결정 여부 • 진로야망(career ambition): 30세 희망 직업 중 대학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고 사회적 위세가 있는 직업에 대한 취업 희망 여부 • 교육연계 진로야망(career alignment): 진로 야망에 맞는 대학 이상의 교육 희망 여부 • 학교 태도(school attitude): 미래의 일과 관련된 교육경험
미래에 대한 탐색 (Exploring the future)	• 진로 대화(career conversations): 진로에 대한 성인과 대화 경험 • 직업 준비(occupational preparation): 직업과 관련된 학교교육 프로그램 • 직업 체험(school-mediated work exploration): 직업박람회, 기업방문 등 학교를 통한 직업 체험 관련 프로그램
미래에 대한 경험 (Experiencing the future)	• 아르바이트(part-time employment): 일의 경험 • 인턴십(internships): 현장 실습 경험 • 봉사활동(volunteering):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 출처: 유한구, 박화춘(2021)의 본문 내용을 표로 구성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도 분석을 위해, 앞서 살펴본 OECD 규정의 진로준비도 개념을 한국어동·청소년패널(KCYPs)에서 조사한 내용에 적용하여 KCYPs 진로준비도 개념을 재구성하였다. KCYPs의 진로준비도의 구성요인은 OECD 진로준비도와 유사하게 “진로 생각” “진로 탐색” “진로 경험”으로 정의하였고, 각 하위요인 또한 OECD 진로준비도의 하위영역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3. 연구방법의 <표 III-3>에 제시하였다.

한편, 이러한 진로준비도 개념을 기반으로, OECD 진로 준비도 프로젝트에서 실시한 국가들의 종단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공통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청소년 시기 미래에 대한 생각은 성인이 되었을 때 미래에 직업을 성공적으로 획득하는 것과 관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Covacevich, et al., 2021a; Covacevich, et al., 2021b). 구체적으로, 이 연구들은 OECD 진로준비도 분류 영역 중 미래에 대한 생각에 관한 항목을 OECD의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03에서 사용한 “희망 교육 수준(Expected educational level)”과 “희망 하는 직업(Expected occupation)”을 기초로 구성하였는데, 예를 들어, “약 30세가 되었을 때, 희망하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What kind of job do you expect to have when you are about 30 years old)?”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문항에 대해, 학생들이 “애매하게 응답”하거나,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잘 모르겠는 경우”를 진로 불확실성(career uncertainty)으로 범주화하였다(Covacevich, et al., 2021a). 희망 교육 수준 및 희망하는 직업은 결정유무가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결과로, 덴마크와 스위스의 경우, 진로 계획에 대해 더욱 확실한 10대일수록 성인기에 직업 관련 결과들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주에서도 만 15세에 진로에 대한 야망 및 욕구가 높을수록 성인기에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에 해당되는 비율이 적고, 임금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스위스의 결과에서도 직업적으로 더 나은 보수와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또한, 호주와 덴마크의 경우, 교육과 미래의 진로 사이에 연결고리를 생각한 청소년일수록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Covacevich et al., 2021a). 이와 유사한 맥락의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교육에 대한 기대와 직업에 대한 결정은 청소년기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성인기 노동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관계가 깊다고 강조하였다(Mann et al., 2020).

이에 본 연구의 진로준비도 잠재유형분석에서는 교육에 대한 희망 수준 및 장래 희망 직업 결정 및 달성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2. 진로준비도 관련 요인

한편,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의 진로준비도에서 교육정책 외에도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청소년들은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신체적 성장을 포함한 다양한 변화와 함께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 증가를 경험하며, 우울 및 불안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은 진로발달 범주에 해당하는 진로정체감이 나 진로미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석민경, 조한익, 2016; 신효정, 이문희, 2011). 개인 내적 요인 이외에도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및 학교 환경의 영향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부모의 관심이 많아지며 부모와의 상호의존적 관계가 중요하게 강조되는 문화권으로, 청소년의 진로준비 및 결정에 있어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수, 정지연, 2012). 해외 문헌에서도 공통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된다(Keller & Whiston, 2008). 그러나 부모와 자녀는 상호적 관계로, 부모와의 관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율적이기보다는 강압적으로 느껴질 경우, 오히려 진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인다(김하늬, 손은령, 2020; Sawitri, Creed, & Zimmer-Gembeck, 2013). 학교차원의 경우,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와 같은 중요한 타인이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elsman & Blustein, 1999). 진로와 관련된 또래와의 의사소통은 진로탐색에 영향을 미치며(Kracke, 2002), 고등학교나 대학 진학 등 진로의 방향을 결정할 때 교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이상길, 2006). 또한, 교사의 진로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이 희망직업을 탐색하는 정도, 필요한 학력 및 자격에 대한 정보, 진로계획 등 진로성숙도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주영주, 강아란, 최세빈, 2013). 이와 비슷한 맥락의 선행연구에서도 또래 및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은식, 2015; 봉초운 외, 2018), 학교에서의 대인관계가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교생활 만족도 또한,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이 높아지는데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봉초운 외, 2018; 이상길, 2006). 한편, 학교와 관련된 요인에서 수업태도와 학업성취가 좋을수록 진로에 대한 정보 탐색 및 계획, 준비

등 진로성숙도가 높지만, 학생의 배경적 특성에 따라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이 진로성숙도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최보금, 2020).

종합적으로 볼 때, 청소년의 진로는 개인 내적인 특성을 비롯하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가정과 학교에서의 대인관계, 학업성취 등의 요소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Sewell과 Hauser(1980)는 위스콘신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위스콘신 모형은 이와 같은 요소들이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교육포부 및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획득하는 교육 수준, 직업 달성 여부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Trebbels & Trebbels, 2015). 이와 같은 모형을 기반으로 실시한 종단연구에서도 사회심리적 요인, 학업성취도, 부모, 교사, 친구 등의 중요한 타인, 교육포부, 직업포부 등은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 및 환경적 요인이 현재 그리고 미래의 진로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Sewell et al., 2003). 이와 같은 위스콘신 모형은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검증됨에 따라,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적용됨을 시사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가정배경요인, 의미있는 타인으로서 친구의 영향, 학업성취, 교육포부, 직업포부의 관계는 위스콘신 모형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이기중, 박수란, 2016). 또한, 청소년기의 사회심리적 요인이나 학업성취도 요인 또한 성인기의 소득에 영향을 미쳤다(유한구, 박화춘,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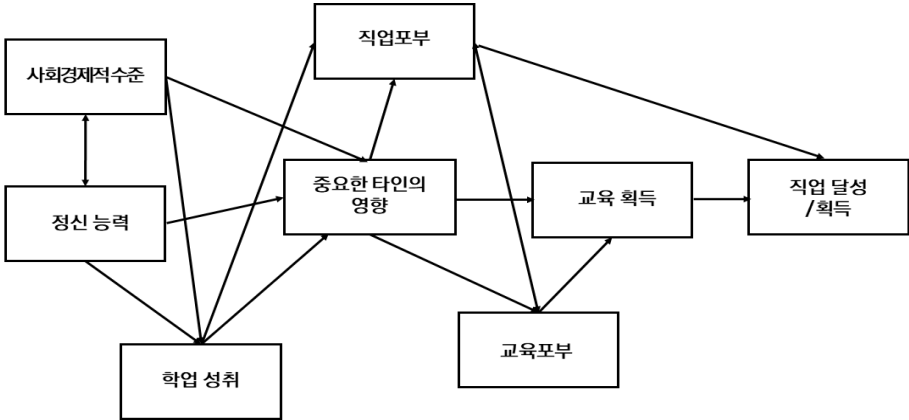


그림 II-1. 교육포부 및 진로선택 모형

* 출처: Trebbels & Trebbels(2015)에서 발췌한 Wisconsin model을 수정하여 사용함.

이와 같은 배경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유형화된 각 집단이 개인 내적 및 환경 요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함께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집단의 특성 및 개인, 가정, 학교, 진로 특성에 따른 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우리나라 청소년 진로교육 정책 동향

1) 우리나라 진로교육 정책 흐름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은 1982년에 주한 유니세프의 지원을 받아 ‘진로교육 연구 사업’을 수행하며 시작되었다. 이 연구 사업은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년 동안 기초연구와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 개발 자료의 확산 및 보급의 단계별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연구 사업은 이후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연구 사업을 통해 교육부가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실제 국가 진로교육 정책 추진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연구 사업의 결과가 일선 학교 현장으로 보급되어 진로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학교 교육 과정 안에 진로교육이 반영되었으며, 각 시·도교육청 내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진로교육연구부’ 설치가 권장되고(장석민, 2003)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행정 체계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진로교육 연구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2011년 교육부 조직 내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진로교육정책과’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를 중심으로 국가와 시도교육청, 학교로 이루어지는 국가 진로교육의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 국가적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5년에는 「진로교육법」을 제정하게 되고, 이를 통해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센터를 포함하는 국가 진로교육체계를 마련하였으며, 2014년부터 학교의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국가 진로교육체계가 수평적, 수직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상의 우리나라 진로교육 정책은 1980년대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진로교육의 발전단계를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시기와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도입

기, 성장기, 발전기, 성숙기의 4단계로 구분하기도 하며(서우석, 2016) 있으며, 진로교육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을 마련한 ‘진로교육 종합계획(2010-2013)’을 시점으로 진로교육을 1기와 2기로 구분(조영아, 2021)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자의 관점을 종합하며 정철영 외(2023)는 우리나라 진로교육을 아래와 같이 도입기, 성장기, 발전기, 성숙기로 구분하였다.

표 II-2. 국가 진로교육 발전 단계

구분	시기	주요 특징
진로교육 도입기	1980년대 초~ 1990년대 초	• 국가 차원 진로교육 도입 • 기초 교육 및 연구 수행 •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 도입
진로교육 성장기	1990년대 초~ 2000년대 후	• 진로교육 연구 기반 마련 • 진로교육 인프라 마련 •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 확대
진로교육 발전기	2000년대 후반~ 2014년	• 국가 진로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
진로교육 성숙기	2015년~현재	• 진로교육 법적 근거 마련 • 진로 중심 교육과정 운영 확대 • 학교 진로교육 추진계획 발표(매년)

* 출처: 정철영 외(2023: 85)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까지의 진로교육 도입기에는 6차 교육과정(1992년 고시) 내 「진로·직업」이 고등학교 보통 교과 실업·가정 교과 내 과목으로 신설되었다. 「진로·직업」 과목이 신설된 배경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국가 사회적 측면, 학생 개인적 측면, 학문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는 국가 사회에 필요한 인력의 균형 개발과 건전한 직업 윤리관 형성을 통한 직업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과목이 필요하며, 학생 개인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 발견 및 계발, 산업 및 직업세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 일과 직업에 대한 적극적 가치관 및 태도 육성, 능동적이고 유연한 진로 선택 능력 제고를 위해 해당 과목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교육부, 1992). 학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리적 직업 선택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직업 선택을 위해서 고등학

교 단계에서 해당 과목을 통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다(교육부, 1992).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까지의 진로교육 성장기에는 각 시·도교육청 내 진로교육 연구부가 설치됨에 따라 진로교육자료 개발과 교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국가 직업·진로지도 연구 사업을 담당하는 국가정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 진로정보센터가 설치되었으며, 국가진로정보망 커리어넷이 개통되는 등 진로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된 시기이다. 또한, 2005년 국가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2006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07~'11)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는 전 국민이 생애에 걸쳐 진로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진로개발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4년까지는 진로교육의 발전기로 국가 진로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시기이다. 우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와 직업」이 중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되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내 진로활동이 명시되었다. 「진로와 직업」 과목이 신설된 것은 학교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마련한 것으로, 그 덕분에 학교 내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정철영 외, 2011). 이와 함께 2010년에 관계부처(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합동으로 수립 된 '진로교육 종합계획(2010-2013)'이 발표되고, 2010년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를 계획하여 2011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2년에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개발,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진로교육 콘텐츠 및 진로정보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학교 내 진로교육을 보급 및 활성화하였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는 진로교육의 성숙기로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을 통해 진로교육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6년 자유학기제가 중학교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이 보편화되었다. 2016년에는 초등학교까지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초등학교 진로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제 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2017년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 국가진로교육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이후 2018년 관계부처 합동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2023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등 단기간 내 급속도로 국가 진로교육이 성장하였으며, 새로운 발전단계로 도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 주요 진로교육 정책

진로교육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은 2010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진로교육 종합계획’이다(조영아, 2021). 이후 약 5년을 주기로 제 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이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2018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표 II-3. 진로교육 정책 추진 현황

구분	진로교육 종합 계획 (2010~2013)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2016~2020)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2018)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2023~2027)
담당부처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부	관계부처 합동	교육부
영역 및 과제	3대 영역, 10 추진과제	4대 영역, 8개 추진과제	4대 전략 9개 추진과제	4대 영역, 12개 추진과제

각각의 진로교육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진로교육 종합계획’에서는 꿈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선택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서는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강조됨에 따라 진로개발역량을 강조하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었던 역량 중심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18)’에서는 변화하는 미래사회 속 대응을 위하여 창업체험교육을 강조하며 창의적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올해 발표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에서는 진로교육 정책이 국민 모두를 위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전 생애에 걸친 진로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초기 진로교육 정책이 초·중등학교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후 ‘제 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대학생까지 확대하였고,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진로교육 대상을 성인, 전 국민으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4. 진로교육 주요 정책의 비전 및 목표 추진 전략

구분	비전	목표	추진 전략
진로교육 종합계획 (2010~ 2013)	꿈과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는 청소년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선택을 위한 체험 위주의 진로교육 지원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 활성화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
제 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2016~ 2020)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진로 설계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신장 내실 있는 맞춤형 진로교육 체계 확립 국민의 행복한 삶과 평생학습사회 구현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 진로교육 대상 확대 진로체험 활성화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2018)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삶의 설계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 진 로개발역량 강화	학생 진로탐색 지원 강화 혁신 성장을 위한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생애 단계별 진로개발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생태계 구축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2023~ 2027)	전 국민의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미래사회 대응 역량 강화 지역사회의 진로교육 지원 역량 강화 진로교육 대상을 전생애로 확대

* 출처: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2b)

(1) 진로교육 종합 계획(2010~2013)

‘진로교육 종합 계획(2010~2013)’은 진로교육이 단순히 진학과 취업에 국한되지 않고 학생 자신 및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탐색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선택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진로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진로교육과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진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선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008년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로와 직업 교과의 편성 비율은 초등학교 8%, 중학교 4.7%, 일반계 고교 50.5%, 전문계 고교 44%로 학교 내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이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다(이상준 외, 2008). 또한 진로교육이 교육과정 내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을 통해 진행됨에 따라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 하였으며, 주어진 시간에서도 진로 관련 심리검사와 진로정보 제공에 초점을 두어 실제

진로 관련 경험 등의 탐색 기회가 부족하였다. ‘직업세계체험주간’ 운영을 통해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지만 대부분이 단순 일회성 행사로 진행됨에 따라 직업세계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체험할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와 함께 학교 진로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진로교육 정책 추진 체제의 역량도 미흡하였다. 그 당시 노동부는 청년고용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청소년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진로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시도에서도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과 예산이 증가하고 있었으나 이를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진로교육 종합계획(2010~2013)’은 학교 진로교육을 체험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취약위기 청소년, 다문화탈북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교육 서비스를 마련하였으며, 진로정보 체계화와 진로교육 법령과 조직 마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로교육지원체계 선진화를 추진하였다.

표 II-5. 진로교육 종합 계획(2010~2013) 추진과제

영역	추진 과제
1. 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1-1. 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제공
	1-2. ‘진로의 달’ 운영 및 확대
	1-3. 진로교육 우수사례 보급 및 학교 지원
	1-4. 진로교육 교과서 및 매뉴얼 개발 보급
2.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2-1. 취약위기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
	2-2. 다문화탈북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확대
	2-3.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교육자립 지원체계 구축
3. 진로교육 지원 체계 선진화	3-1. 진로정보의 체계적인 제공·관리
	3-2. 진로교육 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3-3.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체계 개편

* 출처: ‘진로교육 종합계획(2010~2013)’(교육과학기술부 외, 2010)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진로체험과 관련해서는 진로교육의 성과 지표로 ‘중1과 고1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 비율’, ‘잡월드 방문객 수’, ‘직업체험관련 수련 시설 수’ 등을 활용하며 진로체험에 대한 양적 확대를 추진하였다. 「진로와 직업」 교과도 채택율을 2013년까지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60%를 목표로 잡았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확대를 추진하였다.

진로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학생이 학교급별(초, 중, 고)로 최소 1회 진로·적성검사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었다. 또한,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사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에 진로교육 연수를 강화하고 중·고교의 「진로와 직업」 과목 담당교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2011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2) 제 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제 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은 앞서 진로교육 종합 계획을 통해 마련된 법적, 제도적 기틀 아래 국가 진로교육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선 「진로교육법(15.6.22.)」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15.12.22.)」이 제정되었다. 중고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율은 2016년을 기준으로 95.3%로 나타났으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진로체험이 확대되었다. 또한, 지역에서는 진로체험처 확충을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고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학교 진로체험을 지원하였다.

해당 시기에는 앞서 ‘진로교육의 발전기’ 이후로 학교 진로교육의 체계가 상당히 빠르게 구축되었다. 그러나, 학급 단위로 진로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요구 반영이 미흡하고, 초·중등학생 중심의 진로교육 정책의 추진,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질 관리 부족, 진로교육 지원체계의 역할 불명확화 등의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 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은 학교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교원 및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학교의 진로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대학생으로의 진로교육 대상 확대, 양질의 진로체험처 확보 및 진로체험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진로체험 활성화,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진로정보망 개편 등을 통해 진로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와 연계된 진로교육 확대를 권장하며 목표치를 2020년 기준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95%로 설정하였으며, 개인 맞춤형 진로 지도를 위해 상담을 할 수 있는 학교 내 진로활동실 확보 비율을 2020년 기준 80%, 온라인 상담 진수도 40,000건으로 설정함에 따라 다각도로 진로 상담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표 II-6. 제 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추진과제

영역	추진 과제
1.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	1-1. 진로교육이 강화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착
	1-2. 교원 및 지원인력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
2. 진로교육 대상 확대	2-1.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 강화
	2-2. 대학생 진로교육 지원
3. 진로체험 활성화	3-1. 양질의 진로체험처 확보 및 내실화
	3-2.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4.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4-1.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
	4-2. 진로 정보망 개편 및 학부모 진로교육 강화

* 출처: 제 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교육부, 2016)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진로교육 전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중등에서는 2020년까지 100%의 배치를 목표로 하며, 추가 배치 여부를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대학원에 ‘진로진학상담’ 전공 과정을 개설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 있는 인력을 길러내고자 하였다. 초등학교에도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되, 보직교사로 임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대학원 ‘진로진학상담’ 전공과정 이수자를 우선 배치할 계획을 제시하며, 진로교육의 인력 확보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3)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18)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18)’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급속한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을 확산하고자 추진되었다. 특히 혁신 성장을 위한 창업체험교육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에게 창업체험교육의 붐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대학생과 생애 전환 시기의 성인을 대상으로 생애 단계별 진로개발 지원을 확대하였다. 해당 시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로 ‘진로탐색 활동 지원 강화’가 국정과제로 설정됨에 따라 학생의 진로탐색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학생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2017년)’ 등 학교 교육 내 창업체험교육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학교교육 내 진로교육 교육과정, 교원, 교육자료 등이 갖추어진 단계로, 학교 교육과정의 모든 교육활동이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학교 내 통합적 진로교육의 문화를

조성하여 진로교육과정을 안착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됨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학생 맞춤형 진로·학습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와 학습 코칭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고자 교·사대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사연구회 지원, 자율적 연구 확산 등의 제도를 추진하였다.

표 II-7.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18) 추진과제

전략	추진 과제
1. 학생 진로탐색 지원 강화	1-1. 교육과정 속 진로교육 확산
	1-2.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
	1-3. 사각지대 없는 진로교육 지원 강화
2. 혁신 성장을 위한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2-1. 학교 수업 기반 창업체험교육 지원
	2-2. 학교 안팎의 창업체험교육 인프라 확대
3. 생애 단계별 진로개발 지원 확대	3-1. 대학생의 도전적 진로개발 지원
	3-2. 생애 전환기 진로개발 지원 기반 확충
4. 지속 가능한 진로교육 생태계 구축	4-1.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
	4-2. 부처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제도 정비

* 출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18)(관계부처 합동, 2018)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18)’은 진로체험과 관련하여 창업체험교육을 별도의 영역으로 소개할 만큼 자세하게 다루었으며, 진로체험과 관련해서는 내실화된 진로체험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4)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코로나19 등 사회 환경 변화 및 직업세계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 생애에 걸친 진로개발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는 동시에 미래 역량을 위해서 진로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2010년부터 추진된 진로교육 정책은 진로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학교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을 확대하여 학교 밖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를 토대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은 보다 초점화된 정책을 수립하였다. 학교

진로교육에서는 초등 진로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진로수업과 상담을 내실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진로진학상담교사 재교육 연수, 일반교원의 연수 강화 및 교사연구회 지원 등을 추진하며, 학교 규모에 따라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증원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학교 내 학급 수가 30학급 이상의 경우 고등학교는 2025년까지 추가 배치, 중학교는 2027년까지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미래역량을 위해서 신산업분야 진로교육과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확대하고 기존 다양한 진로정보망을 통합함과 동시에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교육부가 주도하는 진로교육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진로교육을 추진하며, 진로체험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진로체험과 창업체험교육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센터의 자생력과 내실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표 II-8.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추진 과제

영역	추진 과제
1.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1-1. 초등 진로교육 지원 확대
	1-2. 학교 진로·창업교육 내실화
	1-3. 모든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강화
2. 미래 사회 대응 역량 강화	2-1. 신산업분야 진로교육 확대
	2-2. 도전정신을 기르는 창업가 정신 함양 지원
	2-3. 통합 진로교육정보망 구축을 통한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3. 지역사회 진로교육 지원 역량 강화	3-1. 진로·창업체험지원센터 내실화
	3-2. 진로·창업체험 생태계 구축
	3-3.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4. 진로교육 대상을 전 생애로 확대	4-1. 전국민의 생애주기별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
	4-2. 대학생 진로교육 확대 추진
	4-3. 성인의 진로 확립·전환을 위한 진로개발 역량 강화

* 출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교육부, 2023)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이상의 국가 진로교육 정책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급속도로 추진된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은 현재 「진로교육법」, 진로전담교사, 국가-시·도진로교육센터 등의 전달체계와 전국 단위의 진로체험 네트워크, 온라인 진로정보망 등을 갖추며 국가 진로교육 운영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정윤경 외, 2022).

4. 청소년 진로 고민과 대학 진학 기대

1) 청소년의 고민과 진학 선택

2022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청소년(13~24세)이 고민하는 문제의 1순위는 ‘공부(성적, 적성 등)’이며, 2순위는 ‘직업(직업선택, 보수 등)’, 3순위는 ‘외모’로 나타났다(통계청, 2022b). 위와 같은 고민은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13~18세 청소년은 ‘공부’가 1순위, ‘외모’가 2순위, ‘직업’이 3순위로 나타난 반면, 19~24세 청소년은 ‘직업’이 1순위, 공부가 2순위,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3순위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에는 공부에 대한 고민이 많으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직업에 대한 고민이 매우 크게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표 II-9.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구분		외모	신체적·정신적 건강	가정환경(부모의 불화 등)	가계경제 어려움	용돈 부족	공부(성적, 적성 등)	직업(직업선택, 보수 등)	친구(우정)	연애상대와의 관계(성문제 포함)	학교(원)폭력	흡연, 음주	인터넷 중독(채팅, 게임 등)	기타	고민 없음
계		34.4	29.6	6.3	11.3	18.0	56.5	54.7	24.0	7.5	1.3	1.5	5.7	1.0	9.2
연령	13~18세	42.8	27.2	5.6	4.3	17.5	76.2	36.2	35.8	3.7	2.5	0.7	9.8	0.6	7.7
	19~24세	28.3	31.3	6.9	16.4	18.3	41.9	68.3	15.4	10.3	0.3	2.1	2.6	1.3	10.3

* 출처: 통계청(2022b), 사회조사,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복수응답, 13~24세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142R&conn_path=12

주: 복수응답

2) 학생과 부모가 기대하는 교육 수준

초·중·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기대하는 교육 수준을 조사해보면, ‘대학(4년제 미만)’ 이상의 교육 수준을 원하는 경우가 88.2%로 나타났으며, 4년제 이상 대학 진학을 원하는 비율이 63.1%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통계청, 2022c). 2022년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한 비율이 73.3%임을 고려해볼 때(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2), 실제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한 비율보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학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0. 학생이 기대하는 교육 수준

구분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4년제 미만)	대학교 (4년제 이상)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계		5.4	10.8	63.4	10.6	9.8
재학 정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11.8	13.1	63.1	6.0	6.0
	대학(교)이상 재학생	-	9.0	59.9	16.2	14.8

* 출처: 통계청(2022c), 사회조사, 학생이 기대하는 교육수준 및 대학 이상 교육받길 바라는 이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020R&conn_path=I2

한편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교육 수준은 ‘대학(4년제 미만)’ 이상의 교육 수준을 원하는 경우가 98.7%로 학생들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22a). 또한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교육수준은 부모의 연령에 따라, 교육정도에 따라 다르다. 50세 이상에서는 약 99%가 ‘대학(4년제 미만)’ 이상의 교육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자녀가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부모의 교육정도는 대졸 이상 뿐 아니라 초졸 이하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1.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교육 수준

구분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4년제 미만)	대학교 (4년제 이상)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계		1.3	6.2	71.0	10.7	10.8
연령	30~39세	1.1	6.1	73.3	10.0	9.5
	40~49세	1.5	6.4	71.6	10.6	9.9
	50~59세	0.9	6.2	70.8	10.9	11.1
	60~69세	0.2	4.4	53.0	13.8	28.5
	70~79세	-	-	34.5	10.1	55.4
교육정도	초졸이하	1.1	15.9	63.5	6.5	13.0
	중 졸	6.9	17.0	60.0	6.4	9.7
	고 졸	1.8	10.4	74.0	5.7	8.1
	대졸이상	0.8	3.6	69.9	13.5	12.2

* 출처: 통계청(2022a), 사회조사,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교육 수준 및 자녀가 대학 이상 교육받기를 바라는 이유 (30세 이상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080R&conn_path=I2

3) 학생과 부모가 대학 이상 교육받기를 바라는 이유

학생이 대학(교) 이상의 교육 수준을 기대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모두가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라는 응답 비율이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능력과 소질 개발’이 약 30% 내외에 해당하며, ‘주위의 기대,’ ‘결혼, 친구관계 등 사회적으로 유리해서,’ ‘인격, 교양을 쌓기 위해’ 등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통계청, 2022c).

표 II-12. 학생의 대학(교)이상 교육을 기대하는 목적

구분		좋은 직업을 얻기위해	능력과 소질 개발	주위의 기대	결혼, 친구 관계등 사회적으로 유리해서	인격, 교양을 쌓기 위해
계		60.7	29.8	3.1	2.7	3.4
재학 정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62.4	28.0	3.4	3.2	2.9
	대학(교) 이상 재학생	59.8	31.8	2.3	1.9	3.7

* 출처: 통계청(2022c), 사회조사, 학생이 기대하는 교육수준 및 대학 이상 교육받길 바라는 이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020R&conn_path=l2

한편, 부모가 자녀가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기 원하는 이유에서도 ‘좋은 직업을 얻게 하기 위해’라는 응답 비율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게 하기 위해서’의 비율도 43.2%로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22a). 그 밖에 ‘인격, 교양을 쌓게 하기 위해,’ ‘결혼, 친구관계 등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많이 교육받지 못한 것으로 자녀를 통해 보상 받고 싶어서’ 등의 이유가 있었다.

자녀가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기 원하는 이유는 부모의 연령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30~39세와 70~79세에서는 ‘좋은 직업을 얻게 하기 위해’보다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게 하기 위해서’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22a).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라서도 응답 비율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좋은 직업을 얻게 하기 위해’의 응답 비율이 적고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게 하기 위해서’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13. 자녀가 대학(교)이상 교육받기를 바라는 이유

구분		좋은 직업을 얻게 하기 위해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 친구관계 등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격, 교양을 쌓게 하기 위해	자신이 많이 교육받지 못한 것으로 자책을 통해 보상받고 싶어서	기타
계		48.5	43.2	3.1	3.9	0.6	0.6
연령	30~39세	43.6	47.4	3.1	4.4	0.9	0.6
	40~49세	48.5	43.4	3.2	3.7	0.6	0.6
	50~59세	50.6	41.0	3.2	4.3	0.5	0.4
	60~69세	50.8	43.0	2.2	2.0	0.4	1.6
	70~79세	34.5	52.1	-	13.4	-	-
교육정도	초졸이하	59.2	29.4	4.9	5.1	1.4	-
	중 졸	55.0	31.7	2.5	7.6	2.2	1.1
	고 졸	52.7	39.4	3.0	3.5	1.0	0.4
	대졸이상	46.0	45.7	3.2	4.1	0.3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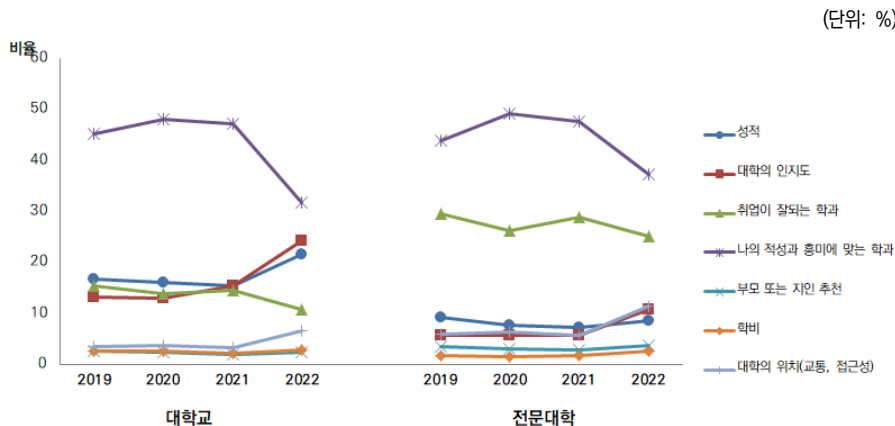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2022a), 사회조사.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교육 수준 및 자녀가 대학 이상 교육받기를 바라는 이유 (30세 이상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080R&conn_path=I2

4) 대학과 학과 선택의 기준

우리나라 대학생은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할 때 ‘나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학과’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대학생의 응답 비율은 ‘적성과 흥미’, ‘인지도’, ‘성적’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학생의 응답 비율은 ‘적성과 흥미’, ‘취업’, ‘대학의 위치’ 순으로 나타났다. 학과를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대학생과 전문대학생의 응답 순위가 ‘적성과 흥미’, ‘취업’, ‘성적’ 순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대학교와 전문대학 모두 ‘적성과 흥미’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감소하고, ‘대학의 인지도’와 ‘대학의 위치’ 응답 비율은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여전히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한편 ‘성적’으로 인한 대학의 선택 비율은 대학에서 21.5%에 달하며, 전문대학은 8.5%에 해당하였고, 학과의 선택 비율에서도 ‘성적’으로 인한 선택은 대학이 9.6%, 전문대학이

4.7%에 해당하였다. 대학과 학과 선택 기준으로 ‘성적’을 응답한 비율은 소폭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2a: 121).

- 주 1) ‘진로심리검사받기’ 항목은 2016년에 신설된 조사 항목임.
 2) ‘창업체험하기’ 항목은 2018년에 신설된 조사 항목이며, 2022년도에는 ‘창업가정신 배우기’로 항목 명칭이 변경되었음.
 3) 각 문항은 ‘예(참여해 봤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그림 11-2. 대학 선택 시 고려 요인(2019-2022)

5. 학교 진로교육 운영 현황

1) 학교 진로교육 예산 현황

2022년 기준, 각 학교별 학생 1인당 진로교육 예산은 초등학생 3.26만원, 중학생 7.20만원, 고등학교 6.55만원으로, 2021년과 비교할 때, 전년 대비 진로교육 예산이 증가한 학교가 초등학교 48.5, 중학교 51.5%, 고등학교 46.4%, 전년 대비 진로교육 예산이 감소한 학교가 초등학교 7.9%, 중학교 12.8%, 고등학교 17.7%로(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2b) 학교급별 차이가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학교 진로교육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진로교육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입하는 진로활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진로체험’이며, 초등학교는 ‘진로수업에 필요한 교재 및 재료비’의 예산이 많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진로심리검사’의 예산 투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진로상담’과 ‘학부모 진로교육 연수 및 설명회’ 예산이 많이 활용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표 II-14. 학교 진로교육 예산 투입 부문

(단위: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진로수업에 필요한 교재 및 재료비	16.6	34.4	36.6	83.3	3.7	26.0	35.8	64.7	8.0	17.6	28.8	53.9
진로체험	58.3	25.8	10.4	93.2	87.8	7.2	1.1	96.0	68.2	14.7	5.3	88.2
진로심리검사	23.2	31.0	29.8	80.5	5.1	40.5	25.6	70.7	9.8	40.2	19.4	69.0
진로상담	-	4.0	8.7	11.6	-	3.4	10.0	13.1	3.6	5.4	9.0	17.9
진로동아리	0.9	2.9	8.1	11.0	0.8	3.5	5.7	9.9	1.5	4.2	3.7	9.3
교내 교원 진로교육 연수	-	0.3	1.6	1.7	-	-	0.5	0.5	0.3	0.5	1.3	2.1
학부모 진로교육 연수 및 설명회	-	0.3	1.0	1.2	0.6	1.7	3.8	6.0	0.8	5.5	7.3	13.5
진로활동실 운영비	-	0.8	1.6	2.2	-	1.6	9.5	10.9	1.4	2.6	15.7	19.3
창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 교육	-	-	-	-	0.6	15.4	6.9	22.7	2.2	6.8	3.4	12.4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기타	0.9	0.6	2.2	3.5	1.5	0.8	1.3	3.5	4.2	2.4	6.1	12.5

* 출처: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2b: 134).

- 주 1) 3순위까지 선택하게 한 문항임.
 2) 전체 비율은 순위 구분 없이 중복 응답으로 계산함.
 3) 비율에 가중치를 적용함.

2) 학교 진로교육 담당 조직 현황

학교 내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약 90%에 다다르고 있으나, 초등학교는 겸직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중·고등학교는 진로교육만을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진로교육만을 전담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5. 학교 진로교육 담당 부서(조직) 유무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진로교육만 전담	진로교육 주업무+ 타 업무 겸함	타 업무가 주업무+ 진로교육 겸함	소계	
초등학교	5.6	15.2	67.6	88.3	11.7
중학교	46.7	27.6	17.9	92.2	7.8
고등학교	47.7	27.5	20.6	95.8	4.2

* 출처: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2b: 135).

주: 비율에 가중치를 적용함.

2022년 기준, 진로전담교사 배치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진로전담교사 배치율이 90.6%에 이르고, 이중 보직 진로전담교사를 두고 있는 학교는 19.2%, 진로 담당교사를 두고 있는 학교가 71.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2b).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 배치율은 중학교 91.2%, 고등학교 85.6%이며, 진로 전담교사가 부장교사인 경우가 중학교 70.9%, 고등학교 73.2%로 확인된다(교육부, 한국

직업능력연구원, 2022b).

3)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운영 현황

「진로와 직업」 과목은 선택 과목으로 채택하여 교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진로와 직업」 교과서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중학교 약 14%, 고등학교 약 11%에 해당하였으며, 선택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모두에서 「진로와 직업」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중학교 약 10%, 고등학교 약 9%로 나타났다.

표 II-16.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운영 현황

(단위: %)

구분	수업함				수업하지 않음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여 교과 수업 실시 (a)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진로와 직업」 교과서 수업 실시 (b)	선택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시간 모두에서 「진로와 직업」 수업 실시 (c)	소계	
중학교	66.2	13.9	9.8	89.8	80.5
고등학교	41.6	10.7	9.2	61.5	49.2

* 출처: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2b: 142).

주: 비율에 가중치를 적용함.

「진로와 직업」을 선택 과목으로 채택한 학교의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학교는 약 76~80%, 고등학교는 약 45~51%로 소폭 증감을 반복하며 선택 과목 채택율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17. 「진로와 직업」 선택과목 채택 현황(중·고등학교)(연도별)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중학교	77.5	76.9	79.3	78.3	80.5	76.0
고등학교	44.5	46.9	50.8	47.4	49.2	50.8

* 출처: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2b: 142).

주: 비율에 가중치를 적용함.

4) 창의적 체험활동 내 진로활동 운영 현황

창의적 체험활동 전체 배당 시수 중 진로활동의 배당 비율은 중학교가 약 24%, 고등학교가 약 29%로 나타났으며, 1학년, 3학년, 2학년 순으로 높았다. 반면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배당 시수는 고학년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2b).

5) 교과 연계 진로교육 실시 현황

교과 연계 진로교육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교과 연계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초등학교 93.7%, 중학교 74.9%, 고등학교 66.3%로 실시하지 않는 비율보다 실시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2b). 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의 방식은 교과 관련 직업 소개, 교과 관련 직업탐색 및 체험활동, 진로교육의 다양한 영역과의 교과 연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교과 관련 직업탐색 및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진로교육의 다양한 영역과 교과를 연계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과 연계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주된 교과는 초등학교의 경우 예술(음악, 미술), 과학(실과 포함), 사회/도덕 순으로 높았고, 중학교는 기술·가정(정보 포함), 사회/도덕(역사 포함), 예술(음악, 미술) 순으로 높았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사회/도덕, 과학, 전문교과 순으로 나타나(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2b), 사회, 도덕, 기술, 예술 등의 교과와 주로 연계된 진로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진로심리검사 실시 및 진로상담 운영 현황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89.1%, 중학교 99.3%, 고등학교 99.4%로 나타나(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2b)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는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로심리검사를 진행한 이후 해당 결과를 토대로 개별 진로상담을 하는 경우는 중학교 48.7%, 고등학교 43.5%로 나타났다(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2b).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는 진로상담은 주로 대면상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화상담, 온라인상담(실시간, 비실시간)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교급이 낮을수록 보다 활발한 집단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II-18. 학생 진로상담 실시 방식

(단위: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일대일 대면상담	66.1	24.4	4.3	94.6	87.4	8.2	2.8	98.4	90.6	5.7	1.2	97.3
전화상담	1.9	17.5	46.1	63.3	2.8	38.5	31.8	71.9	1.4	38.8	28.7	66.7
실시간 온라인상담	0.9	6.1	17.7	23.8	2.1	9.9	16.9	28.3	1.2	14.9	23.6	38.2
비실시간 온라인상담	2.0	7.5	12.2	21.2	2.1	5.8	15.3	22.7	0.7	7.7	18.3	25.7
집단상담	29.2	42.5	16.8	87.7	4.4	37.5	28.8	69.7	3.9	32.2	25.2	59.4
기타	-	2.0	2.9	4.8	1.3	-	4.4	5.6	2.3	0.6	2.9	5.8

* 출처: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2b: 151).

- 주 1) 중복 응답임.
2) 비율에 가중치를 적용함.

7) 진로체험 운영 현황

진로체험을 실시하는 학교는 초등학교의 80.9%, 중학교의 99.2%, 고등학교의 98.2%에 해당하며,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체험은 ‘강연형·대화형’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는 ‘직업실무체험형’, ‘진로캠프형’, ‘현장견학형’, ‘현장직업체험형’, ‘학과체험형’ 순으로, 중학교는 ‘직업실무체험형’, ‘진로캠프형’, ‘학과체험형’, ‘현장직업체험형’, ‘현장견학형’순으로, 고등학교는 ‘진로캠프형’, ‘학과체험형’, ‘직업실무체험형’, ‘현장견학형’, ‘현장직업체험형’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9. 학교 진로체험 유형별 실시 현황

(단위: %, 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온라인	오프라인	소계	온라인	오프라인	소계
전체		80.9	47.9	95.4	99.2	49.3	92.2	98.2
진로체험 유형	강연형·대화형	40.2	38.2	81.2	88.9	41.7	84.2	93.4
	현장견학형	20.4	7.6	34.9	40.2	7.1	34.0	38.0
	직업실무체험형 (모의 직업체험)	24.7	18.8	69.2	74.4	10.1	34.8	40.3
	현장직업체험형 (실제 직업체험)	9.5	12.4	37.0	44.2	6.9	27.7	31.3
	학과체험형	4.0	17.1	54.4	62.3	21.0	50.3	60.1
	진로캠프형	20.6	9.0	65.4	69.6	11.3	66.4	71.8
	기타	11.2	-	-	-	-	-	-

* 출처: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2b: 153)을 바탕으로 연구진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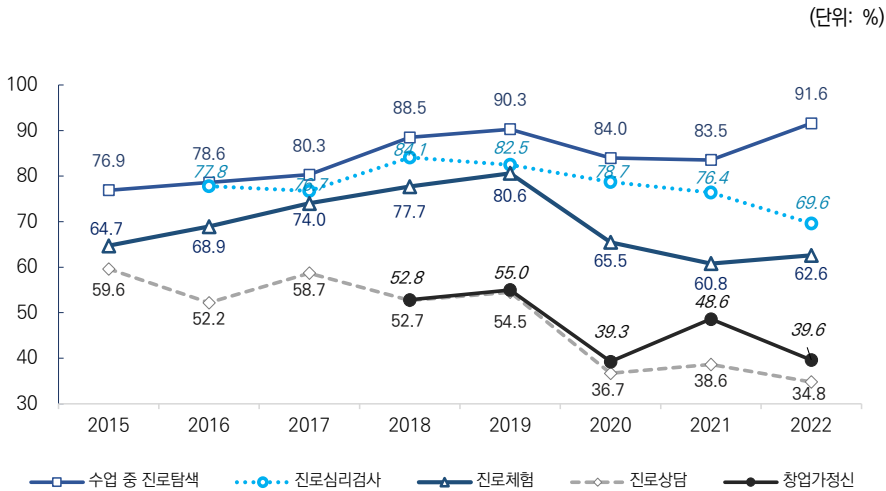
- 주 1) 2021년 실적을 기준으로 함.
 2) 초등학교는 실시한 진로체험 유형을 중복 선택하는 문항이며, 중·고등학교는 진로체험 실시 횟수를 입력하는 문항임.
 3) 중·고등학교는 각 유형의 진로체험 행사를 실시한 학교의 비율임(전체는 한 건 이상의 진로체험 행사를 실시한 학교의 비율임).
 4) 비율, 평균, 표준편차에 가중치를 적용함.

6.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 현황

1) 학생의 학교 진로활동 참여율과 만족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과 수업 중 진로탐색,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체험,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창업가정신교육 등 다양한 진로활동을 경험한다. 이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모두 가장 많이 경험하는 활동은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수업 중 진로탐색’을 경험한 학생이 91.6%로 상당히 높으며, ‘진로심리검사’ 참여율이 69.6%, ‘진로체험’ 참여율이 62.6%, ‘창업가 정신 배우기’ 참여율이 34.8%, ‘진로상담’ 참여율이 34.8%로 나타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로활동 참여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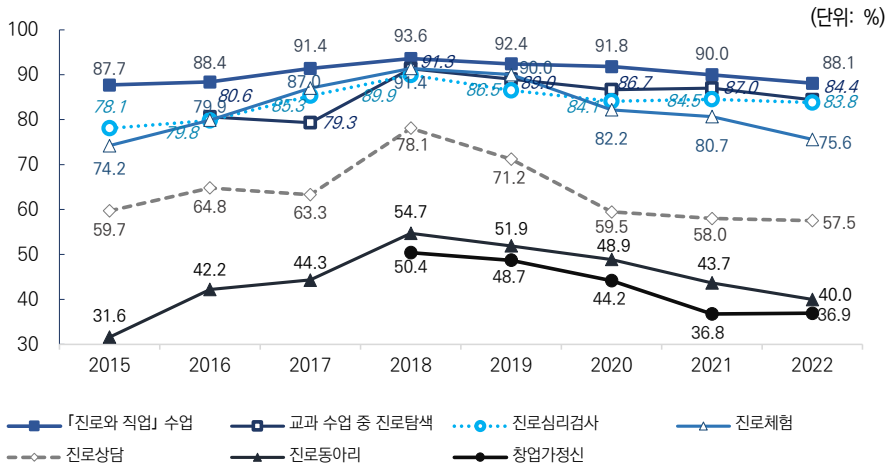


* 출처: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2b: 76)

- 주 1) ‘진로심리검사받기’ 항목은 2016년에 신설된 조사 항목임.
 2) ‘창업체험하기’ 항목은 2018년에 신설된 조사 항목이며, 2022년도에는 ‘창업가정신 배우기’로 항목 명칭이 변경되었음.
 3) 각 문항은 ‘예(참여해봤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그림 II-3. 학교 진로활동별 참여율 변화(초등학생)

중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율은 「진로와 직업」 수업 참여율이 8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과 수업 중 진로탐색' 참여율이 84.4%, '진로심리검사' 참여율이 83.8%, '진로체험' 참여율이 75.6%, '진로상담' 참여율이 57.5%, '진로동아리' 참여율이 40%, '창업가 정신' 참여율이 36.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중학생의 진로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까지 진로활동의 참여율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일부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된다. 상대적으로 '진로상담'의 참여율 감소가 크게 나타나 2015년의 참여율보다 2022년의 참여율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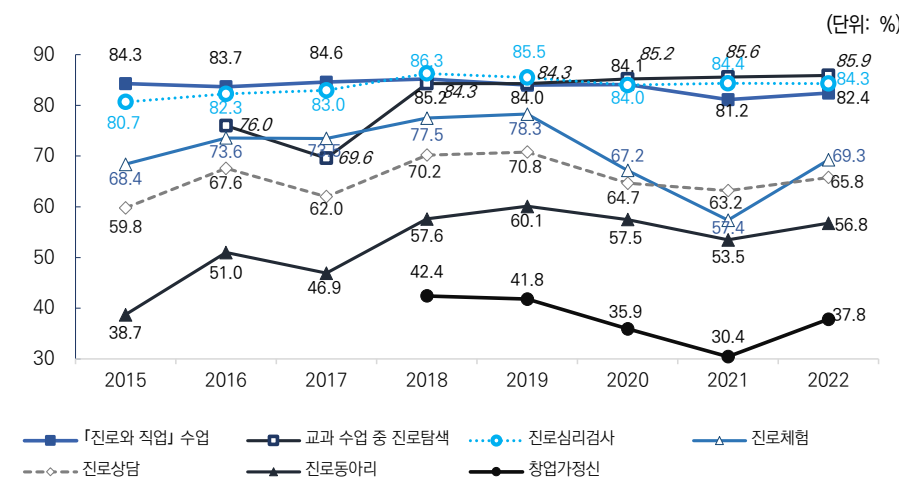
* 출처: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2b: 77)

주: 각 문항은 '예(참여해봤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그림 II-4. 학교 진로활동별 참여율 변화(중학생)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율은 '교과 수업 중 진로탐색'이 85.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심리검사' 참여율이 84.3%, 「진로와 직업」 수업 참여율이 82.4%, '진로체험' 참여율이 69.3%, '진로상담' 참여율이 65.8%, '진로동아리' 참여율이 56.8%, '창업가 정신' 참여율이 37.8%로 나타나, 고등학생의 경우도 학교 진로교육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진로심리검사', '진로동아리' 등의 일부 항목에서는 중학교보다 더 높은 참여율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부 활동을 제외하고 대부분 2019년까지 참여율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교과 수업 중 진로탐색’을 제외하고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22년 다시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2b: 79)

주: 각 문항은 ‘예(참여해봤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그림 II-5. 학교 진로활동별 참여율 변화(고등학교)

학교 진로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초등학생은 3.92점~4.01점, 중학생은 3.63점~3.84점, 고등학생은 3.62점~3.82점으로 나타나 긍정 응답의 비율이 높으나, 향후 참여 희망을 원하는 비율이 초등학생은 50.2%~85.1%, 중학생은 55.3%~86.7%, 고등학생은 57.6%~84.3%로 나타나 진로활동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향후 참여 희망이 가장 높은 진로활동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진로체험’이며, 반대로 향후 참여 희망이 가장 낮은 진로활동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창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 교육’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학생의 학교 진로활동 참여율과 만족도, 향후 참여 희망을 비교해보면, 초·중·고 모두 교과 수업을 통한 진로활동의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만족도와 향후 참여 희망에서는 6개 항목 중 6순위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초등학생은

‘교과 수업 중 진로탐색’ 희망 순위가 높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교과 수업 중 진로탐색’과 ‘진로와 직업’ 수업보다 진로체험,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을 보다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0. 학생의 학교 진로활동 참여율과 만족도, 향후 참여 희망(2022년)

(단위: %, 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참여 현황	만족도	향후 참여 희망	참여 현황	만족도	향후 참여 희망	참여 현황	만족도	향후 참여 희망
「진로와 직업」 수업	-	-	-	88.1	3.63	65.5	82.4	3.62	64.2
교과 수업 중 진로탐색	91.6	4.01	78.5	84.4	3.67	69.9	85.9	3.67	73.0
진로심리검사	69.6	4.00	69.2	83.8	3.81	77.9	84.3	3.80	79.0
진로체험	62.6	4.35	85.1	75.6	3.84	86.7	69.3	3.81	84.3
진로상담	34.8	3.92	60.7	57.5	3.80	71.5	65.8	3.82	78.1
진로동아리	-	-	-	40.0	3.80	64.6	56.8	3.80	69.7
창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 교육	39.6	3.99	50.2	36.9	3.72	55.3	37.8	3.77	57.6

* 출처: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2b: 78)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작성.

- 주: 1) 도움 정도는 진로체험 참여 경험이 있는 대상에게 조사함.
- 2) 향후 참여 희망은 2개 이내로 중복 선택하도록 한 문항임.
- 3) 비율, 평균, 표준편차에 가중치를 적용함.

2) 학생의 학교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율과 도움도

학생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어하는 학교 진로활동인 진로체험은 6가지 유형으로 실시되고 있다. 각 유형별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생은 ‘강연형·대화형’, ‘직업실무체험형’, ‘학과체험형’, ‘현장견학형’, ‘현장직업체험형’, ‘진로캠프형’ 순으로 나타나며, 고등학생은 ‘강연형·대화형’, ‘학과체험형’, ‘진로캠프형’, ‘현장견학형’, ‘직업실무체험형’, ‘현장직업체험형’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로체험의 도움 정도와 향후 참여 희망 비율의 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진로체험은 실제 직업을 체험하는 ‘현장직업체험형’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장직업체험형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중학생의 26%, 전체 고등학생의

20.3%로 비교적 낮은 수치이다.

‘현장직업체험형’은 학생들이 현장 직업 일터에서 직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으로 타 진로체험 유형에 비하여 공간적, 시간적, 멘토 등의 인력의 어려움이 수반됨에 따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유형에 해당한다. 반면 ‘강연형·대화형’은 직업인들이 강연을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활동으로 기존 교실 수업 안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을 병행하며 비교적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표 II-21. 학생의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율과 도움도, 향후 참여 희망(2022년)

(단위: %, 점)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참여 현황	도움도	향후 참여 희망	참여 현황	만족도	향후 참여 희망
강연형·대화형	59.8	3.60	13.0	68.8	3.65	15.6
현장견학형	26.8	3.95	49.5	28.0	3.92	46.9
직업실무체험형(모의 직업체험)	31.2	3.86	15.4	24.6	3.89	21.2
현장직업체험형(실제 직업체험)	26.0	3.99	62.0	20.3	4.01	55.9
학과체험형	27.5	3.90	21.0	37.9	3.87	28.5
진로캠프형	23.7	3.94	23.2	29.5	3.87	16.8

* 출처: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2b: 80)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작성.

- 주 1) 도움 정도는 진로체험 참여 경험이 있는 대상에게 조사함.
2) 향후 참여 희망은 2개 이내로 중복 선택하도록 한 문항임.
3) 비율, 평균, 표준편차에 가중치를 적용함.

3) 학생의 창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 참여율 및 만족도

학생들이 경험하는 창업체험은 ‘교과 수업 중 창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 교육 참여’가 가장 많으며, 이 외에도 ‘창업가정신에 관한 특강 및 창업 관련 멘토링’, ‘창업동아리 활동’, ‘창업경진대회 참가’, ‘학교 밖 창업교육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중학생이 3.75점에서 3.93점, 고등학생이 3.79점에서 4점 사이로 앞서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II-22. 창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 참여율과 만족도(2022년)

(단위: %, 점)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참여 현황	만족도	참여 현황	만족도
교과 수업 중 창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 교육	33.8	3.75	28.3	3.79
창업가정신에 관한 특강 및 창업 관련 멘토링	27.6	3.78	25.2	3.89
창업동아리 활동	19.0	3.86	17.3	3.96
창업경진대회 참가	13.9	3.92	13.6	4.00
학교 밖 창업교육 프로그램(창업캠프 등)	17.0	3.93	14.8	3.97

* 출처: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2b: 82)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작성.

- 주 1) 도움 정도는 진로체험 참여 경험에 있는 대상에게 조사함.
 2) 향후 참여 희망은 2개 이내로 중복 선택하도록 한 문항임.
 3) 비율, 평균, 표준편차에 가중치를 적용함.



제3장 연구 방법

- 1. 분석 자료 및 연구 대상
- 2. 분석 변인
- 3. 분석 방법

2023년 데이터 분석보고서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8의 제5차년도에 조사된 자료(2022년 조사)인 스페셜 모듈 문항을 기준으로 경향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진로준비도 코호트 분석(교급별, 시대별)과 2) 진로준비도 잠재집단분석, 특성 차이 분석, 예측요인 탐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분석 자료 및 연구 대상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2022년도에 조사된 KCYPS 2018의 제5차년도에 해당하는 진로준비도 하위영역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KYPS(Korean Youth Panel Survey; KYPS) 2003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진로준비도 자료는 스페셜 모듈(Special Module)(황진구 외, 2022) 문항과 매차년도 조사되고 있는 기본 모듈 문항에 포함된 진로준비도 요인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연구문제별로 사용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 코호트 분석은 교급별, 시대별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KCYPS 2018 초4 코호트와 중1 코호트의 제5차년도 자료(2022년도 조사)를 활용하여, 중학교 2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의 진로준비도 하위요인 수준의 코호트별 차이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시대별 코호트 분석은 KCYPS 2018 고등학교 2학년 자료를 기준으로 KYPS 2003의 중2 코호트의 제4차년도 자료(2006년도 조사)인 고등학교 2학년 자료 중 유사하게 조사된 변인을 활용하였다.

3) 제3장은 김윤희 부연구위원, 정윤미 전문연구원이 집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은 <표 III-1>에 제시하였다. 한편, 두 코호트 간의 응답범주가 상이할 경우, 비교에 용이하도록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진로생각의 ‘희망직업 선택 요인’과 진로탐색의 ‘진로 관련 대화상대/빈도’는 질문 및 응답값이 부분적으로만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KCYPS 2018을 기준으로 비교 가능한 항목만 선택하였으며, 총점의 통계적 차이는 산출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2) 진로준비도 잠재집단 분석은 KCYPS 2018의 제5차년도 초4패널과 중1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유형화별 진로준비도 잠재집단의 관련요인은 KCYPS 2018 제5차년도 자료에서 기본 모듈의 개인특성, 가정특성, 학교특성 변인을 사용하였으며, 유형별 관련 변인의 차이분석 및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II-1. KYPs 2003, KCYPS 2018 진로준비도 문항구성

●: 포함, ○: 포함 안 됨, ◐: 부분 포함

진로준비도 영역	조사내용	KCYPS 2018 중2, 고2	KYPs 2003 고2
진로생각	1. 교육 포부 (희망 교육 수준)	●	●
	2. 장래 직업 결정 여부	●	●
	3. 희망직업달성 가능성	●	●
	4. 희망직업 선택 요인	●	◐
	5. 진로 적응력 (진로관심, 호기심, 자신감)	●	○
진로탐색	6. 진로 관련 대화상대/빈도	●	◐
	7. 진로준비 활동 (참여 유무, 진로설정에 도움 여부)	●	●
진로경험	8. 직업/진로 관련 체험 활동 (참여 횟수, 만족도)	●	○
	9.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도움이 될 것이다)	●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KCYPs 2018 초4패널과 중1패널의 제5차년도 시점에 해당하는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이하 KCYPs 2018 중2, KCYPs 2018 고2로 명명). KCYPs 2018 중2 청소년은 2,311명, 보호자 2,310명, 형제자매 858명이었고, KCYPs 2018 고2 청소년은 2,252명, 보호자 2,251명, 형제자매 652명으로 나타났다. 시대별 코호트 분석에 사용된 KYPs 2003 자료의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 응답자는 총 3,121명이었다. 각 코호트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III-2>에 제시하였으며, 코호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CYPs 2018 중2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이 1,155명(50.0%), 여자 청소년이 1,156명(50.0%)으로 같은 비율로 구성되었으며, 재학 중인 학교의 도시 규모는 대도시 980명(42.5%),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보통의 수준 1,783명(77.2%), 가족 구성은 부모와 자녀 구성형태가 1,947명(84.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KCYPs 2018 고2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이 1,202명(51.4%), 여자 청소년이 1,050명(48.6%)으로 남학생이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재학 중인 학교의 도시 규모는 대도시가 44.6%(995명),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 80.9%(1,820명), 가족 구성은 양부모와 자녀가 거주하는 형태가 82.0%(1,846명)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KYPs 2003 고2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이 1,566명(50.2%), 여자 청소년이 1,555명(49.8%)으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재학 중인 학교의 도시규모는 대도시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 1,427명(46.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중소도시 1,341(43.8%), 읍면지역 297(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KCYPs 2018 고2와 비교했을 때,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수가 다소 높게 나타난 형태이다. 가족구성 형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437명, 80.0%).

종합적으로 볼 때, 각 패널별 청소년의 특성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즉, 남녀 청소년 모두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고, 재학 중인 학교의 도시 규모가 대도시가 가장 많지만,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중소도시와의 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가정의 경제수준의 경우, KCYPs 2018의 중2와 고2 청소년 모두 보통의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⁴⁾, 가족구성형태는 세 코호트 모두 “부모와 자녀”의 형태가 8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III -2.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KCYPs 2018		KYPS 2003 중2 패널 (2006, 고2)
		초4 패널 (2022, 중2)	중1 패널 (2022, 고2)	
성별	남자	1,155(50.0)	1,202(51.4)	1,566(50.2)
	여자	1,156(50.0)	1,050(48.6)	1,555(49.8)
학교 소재지 규모 ¹⁾	대도시	980(42.5)	995(44.6)	1,427(46.6)
	중소도시	963(41.7)	887(39.8)	1,341(43.8)
	읍면지역	364(15.8)	349(15.6)	297(9.7)
가정의 주관 적 경제 수준	최하	22(1.0)	17(0.8)	-
	하	269(11.6)	265(11.8)	-
	보통	1,783(77.2)	1,820(80.9)	-
	상	236(10.2)	145(6.4)	-
	최상	0(0.0)	4(0.2)	-
월평균 가구 소득 ²⁾	200만 원 미만	70(3.0)	62(2.8)	473(15.8)
	400만 원 미만	422(18.3)	525(23.3)	1,587(53.1)
	600만 원 미만	948(41.0)	895(39.8)	742(24.8)
	600만 원 이상	870(37.7)	769(34.2)	187(6.3)
가족 구성 형태 (동거 가족) ³⁾	부모+자녀	1,947(84.3)	1,846(82.0)	2,437(80.0)
	한부모+자녀	145(6.3)	183(8.1)	229(7.5)
	(한)조부모+자녀	17(0.7)	14(0.6)	25(0.8)
	(한)조부모+부모+자녀	142(6.1)	161(7.2)	252(8.3)
	(한)조부모+한부모+자녀	54(2.3)	44(2.0)	40(1.3)
	기타	5(0.2)	5(0.1)	63(2.1)

주: 1) 학교 소재지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제외

KYPS 2003은 학교위치 지역코드를 참조하여 리코드함. 광역시=대도시, 도의 시 지역=중소도시, 도의 군지역=읍면지역

2) KYPS 2003 월평균 가구소득은 오픈문항으로 리코드 함.

KCYPs 2018 월평균 가구소득은 1=소득 없음 ~ 12=1,000만원 이상 범주를 재범주화 하여 리코드 함.

3) KYPS 2003 부모님, 조부모, 친척과의 동거여부 등 각각의 응답을 활용하여 리코드 함.

4) KYPS 2003의 조사항목에 가정의 경제수준 포함되지 않음.

2. 분석 변인

1) 진로준비도 구성요인

KCYPS 2018 제5차년도 스페셜 모듈로 설정된 진로준비도는 기본 모듈에서 조사한 ‘진로’ 관련 문항과 차별성을 갖는다. 2022년에 조사된 기본 모듈의 경우, 진로계획(장래 희망 교육수준, 장래직업 결정 여부), 진로 관련 대화 상대/빈도, 진로적응력(관심/호기심/자신감), 체험활동 중 직업/진로 관련 활동(참여 횟수, 만족도)에 대한 문항으로 기본적인 진로관련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스페셜 모듈의 문항은 기본 모듈에서 구체화된 진로 관련 내용으로 희망직업 선택 요인(12문항), 희망직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상(1문항), 진로준비 활동(15문항),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및 도움 정도(2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조사된 진로준비도의 구성요인은 진로 생각, 진로 탐색, 진로 경험 세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진로 생각은 “학생이 원하는 교육수준”, “장래 직업 결정 여부”, “희망직업 선택 요인”, “희망직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상”, “진로 적응력(진로관심/호기심/자신감)”을 포함한 다섯 가지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로 탐색은 “진로 관련 대화상대/빈도”, “진로준비 활동(참여 유무, 진로설정에 도움 여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진로 경험은 “직업/진로 관련 체험 활동(참여 횟수, 만족도)”, “아르바이트(경험 유무, 도움이 될 것이다)”로 조사되었다. 진로준비도 구성요인의 자세한 내용은 <표 III-3>와 같으며,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r = .681 \sim .927$). 시대 별 코호트 분석은 KYPS 2003 고2 시기 자료(중학생 패널)에서 KCYPS 2018 자료와 유사하게 조사된 항목을 뽑아 분석을 실시하였다.⁵⁾

5) KCYPS 2018과 KYPS 2003의 조사 항목 중 동일하지 않은 것은 유사 항목으로 대체하거나 포함시키지 않음.

표 III-3. KCYPS 2018, KYPs 2003 청소년의 진로준비도 구성요인

영역	변인	변인 설명		값		신뢰도(Cronbach's α)		
		KCYPS 2018	KYPs 2003	KCYPS 2018	KYPs 2003	KCYPS 2018		KYPs 2003
						중2	고2	고2
진로 생각	1. 교육포부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할 계획인가'		1=고등학교 졸업 2=2-3년제 전문대학 졸업 3=4년제 대학교 졸업 4=대학원(석사, 박사) 이상 5=잘 모르겠음	0=잘 모르겠다 1=중졸 2=고졸 3=초대졸(2-3년제) 4=대졸(4년제) 5=대학원 졸(석사 및 박사)	-	-	-
	2. 장래 직업 결정 여부	'장래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직업을 결정하였는가'		1=아직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지 않았다 2=대강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 3=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	1=구체적으로 확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 2=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대강 생각해 놓은 직업이 있다 3=아직 정해놓은 장래의 직업이 없다	-	-	-
	3. 희망직업달성 가능성	(장래 직업을 결정한 경우 응답) '희망직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6=잘 모르겠음	0=잘 모르겠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	-	-

영역	변인	변인 설명		값		신뢰도(Cronbach's α)		
		KCYPS 2018	KYPS 2003	KCYPS 2018	KYPS 2003	KCYPs 2018		KYPS 2003
						중2	고2	고2
	4. 희망직업 선택 요인	희망직업선택 시 각 요인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희망직업에 해당되는 정도	1=전혀 중요하지 않다 2=별로 중요하지 않다 3=중요한 편이다 4=매우 중요하다	0=잘 모르겠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	-	-
		총 12개 요인	총 15개 요인 (KCYPs 2018 유사 요인 총 9개)					
		사회적 차원 2개 문항	사회적 차원 2개 문항			.720	.682	.341
		개인적 차원 10개 문항	개인적 차원 13개 문항			.920	.905	.632
	5. 진로적응력 (진로관심/호기심/자신감)	전체	미측정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	.927	.928	-
		진로 관심				.816	.810	
		진로 호기심				.859	.846	
		진로 자신감				.862	.863	

영역	변인	변인 설명		값		신뢰도(Cronbach's α)		
		KCYPS 2018	KYPS 2003	KCYPS 2018	KYPS 2003	KCYPs 2018		KYPS 2003
						중2	고2	고2
진로 탐색	6. 진로 관련 대화 상대/빈도	진로와 관련하여 각 대화상대별 대화 빈도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척·친지, 학교 선생님, 상담교사, 학원/과외 선생님, 기타	부모님	1=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2=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3=가끔 대화한다 4=자주 대화한다 8=해당없음	0=잘 모르겠다 1=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2=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많이 하는 편이다 5=매우 많이 한다	-	-	-
	7. 진로준비 활동 (참여 유무, 진로설정에 도움 여부)	'진로와 직업' 수업 외 16가지 진로 준비 활동 경험유무	'진로관련 강연이나 수업' 외 7가지 진로 준비활동 수행 유무	1=(참여 및 수행 여부) 없다 2=(참여 및 수행 여부) 있다	1=(수행 여부) 없다 2=(수행 여부) 있다			
		(경험있는 경우 응답) 진로준비활동 참여 경험의 진로설정 도움 정도 총 16개 항목 ¹⁾	(경험있는 경우 응답) 진로준비활동 수행 여부의 진로설정 도움 정도 총 7개 항목	1=없다 2=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3=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4=보통이다 5=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6=매우 도움이 되었다	1=전혀 도움이 안될 것 2=별로 도움이 안될 것 3=보통 4=대체로 도움이 될 것 5=매우 도움이 될 것	-	-	-

영역	변인	변인 설명		값		신뢰도(Cronbach's α)		
		KCYPS 2018	KYPS 2003	KCYPS 2018	KYPS 2003	KCYPs 2018		KYPS 2003
						중2	고2	고2
진로 경험 ⁶⁾	8. 직업/진로 관련 체험 활동 (참여 횟수, 만족도)	청소년 체험활동 중 직업진로 활동 참여 횟수 ²⁾	-	1=없다 2=1~2회 3=3~4회 4=5회 이상	-	-	-	-
		청소년 체험활동 중 직업진로 활동 참여 만족도	-	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3=만족하는 편이다 4=매우 만족한다	-	-	-	-
	9.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미래 직업생활에 도움 정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1=한 번 이상 있다 2=전혀 없다				
		(경험있는 경우 응답) 아르바이트 경험의 미래직업 생활에 도움 정도		1=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보통이다 4=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5=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	-

주: 1) 진로준비활동은 '1=(참여한 적) 없다 2=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6=매우 도움이 되었다'라고 측정하였으며, 참여 유무(0=참여한 적 없음, 1=참여함)와 도움 정도('1=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5=매우 도움이 되었다') 5점 척도로 리코드하여 사용함.

2) 체험활동 중 직업/진로 관련 활동 참여는 '1=없다 2=1~2회 ~ 4=5회 이상'으로 측정하였으며, 참여 유무(0=참여한 적 없음, 1=참여함)로 리코드하여 사용하였음.

6) 진로경험 관련 문항은 초등생 대상 설문지에서는 제외됨.

2) 청소년의 개인 및 환경 변인(가정, 학교)

본 연구에서 분석한 진로준비도 잠재집단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예측요인은 KCYPS 2018의 제5차년도 자료에서 개인특성, 가정특성, 학교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개인 특성으로는 성별, 전 교과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 학업성취, 만족도, 학업 열의, 삶 만족도, 자아존중감, 주의집중 어려움,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그것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정 특성으로는 월평균 가구소득, 주관적 가정의 경제 수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분석하였고, 학교특성으로는 학교 소재지, 학교 소재 지역 규모, 친구관계, 교사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4>와 같으며,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r = .605 \sim .917$).

표 III-4. KCYPS 2018 청소년의 개인 및 환경 변인

영역	변인	변인 설명	값	신뢰도(Cronbach's α)	
				중2	고2
개인특성	성별	패널 성별	1=남자 2=여자	-	-
	전 교과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	지난 학기 전 과목 성적 수준 ¹⁾	1 = 매우 못함 2 = 못함 3 = 보통 4 = 잘함 5 = 매우 잘함 6 = 잘 모르겠음	-	-
	학업성취 만족도	지난 학기 학교성적 만족 수준 ¹⁾	1 = 매우 불만족 2 = 불만족 3 = 보통 4 = 만족 5 = 매우 만족 6 = 잘 모르겠음	-	-
	학업 열의	전체 총 16개 문항	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 그런 편이다 4 = 매우 그렇다	.914	.904
		헌신 4문항		.806	.784
		활기 4문항		.875	.862
		효능감 4문항		.871	.831
		몰두 4문항		.793	.778
	삶 만족도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등 총 5개 문항		.809	.786

영역	변인	변인 설명	값	신뢰도(Cronbach's α)		
				중2	고2	
	자이존중감**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등 총 10문항		.808	.795	
	주의집중 어려움	'글자를 잘 빠뜨리고 쓰는 편 이다' 등 총 7개 문항		.846	.827	
	공격성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등 총 6개 문항		.837	.835	
	사회적 위축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어색 하다' 등 총 5문항		.866	.860	
	우울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등 총 10개 문항		.894	.899	
	그릿 ²⁾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등 총 8문항		.665	.605	
가정특성	월평균 가구 소득 ³⁾	(학부모 응답) 월평균 가구소득	1=200만원 미만 2=4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4=600만원 이상	-	-	
	주관적 가정 의 경제 수준	(학부모 응답) 학부모가 인식하는 주관적 경제 수준	1=최하 2=하 3=보통 4=상 5=최상	-	-	
	부모의 양육 태도	전체 총 24 문항		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 그런 편이다 4 = 매우 그렇다	.912	.914
		긍정적 양육태도	전체 12문항		.907	.904
			따스함 3문항		.875	.863
			자율성지지 3문항		.860	.865
			구조제공 3문항		.765	.763
		부정적 양육태도	전체 12문항		.881	.879
			거부 3문항		.811	.811
			강요 3문항		.754	.738
			비일관성 3문항		.784	.788

영역	변인	변인 설명	값	신뢰도(Cronbach's α)	
				중2	고2
학교특성	학교 소재지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	1=수도권 2=비수도권	-	-
	학교 소재 지역 규모	재학 중인 학교 기준 지역 규모	1=대도시 2=중소도시 3=읍면지역	-	-
	친구관계	전체 총 13개 문항	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 그런 편이다 4 = 매우 그렇다	.837	.840
		긍정적 관계 8개 문항		.856	.846
		부정적 관계 5개 문항		.827	.827
	교사관계	전체		.917	.914
		접근가능성 3개 문항		.690	.665
		민감성 4개 문항		.766	.779
		신뢰성 4개 문항		.830	.798
		수용성 3개 문항		.777	.754

주: 1) '잘 모르겠음' 응답은 결측치 처리함
 2) 문항 중 일부 문항 역코딩하여 사용하였음.
 3) 월평균 가구소득은 원 응답을 리코드하여 사용하였으며, 보고서에 표시된 값은 리코드된 결과값임

3. 분석 방법

1) 진로준비도 코호트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분석에 앞서, KCYPs 2018의 중2와 고2 패널 청소년의 진로준비도 기초분석을 실시하여 경향성을 파악하고, 응답의 분포 및 수준이 집단별 특징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⁷⁾. 진로준비도 구성요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학교 소재지, 학교 소재지 규모, 가정의 주관적 경제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가족 구성형태(동거 가족))에 따른 기초분석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은 생략하였다.

주요 연구문제인 코호트 분석은 교급별, 시대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코호트(cohort)란 특정 기간 동안 공통된 특성이나 경험을 갖는 집단을 지칭하며, 코호트 분석(cohort analysis)은 코호트별로 각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양적 연구를 의미한다(Glenn, 2005). 본 연구에서는 교급 및 시대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준비도의 특성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차이검증을 통해 코호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급별 분석에서는 KCYPs 2018의 중2와 고2 패널 청소년의 자료를 사용하고, 시대적 코호트 분석에서는 KCYPs 2018 고2 패널과 KYPs 2003의 2006년(고2)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청소년의 진로준비도 잠재집단분석, 특성 차이 분석 및 영향요인 탐색

진로준비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잠재집단 유형을 탐색하기 위해 Mplus 8.10(Muthén & Muthén, 1998-2023)을 이용하여, 잠재집단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였다. 잠재집단분석방법은 임의의 절단점(cut-off point)을 사용하지 않고 통계적인 기준을 통해 잠재집단의 유형 수를 늘려가며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모형 적합도를 바탕으로 최종 잠재집단 유형의 수를 결정하게 된다(Muthén & Muthén, 2000; Nylund et al., 2007). 모형의 적합도는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Adjusted BIC (ABIC), Likelihood Ratio Test (LRT), Vuong, Lo, Mendel, Rubin likelihood

7) KCYPs 2018 중2와 고2 패널 진로준비도 구성요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학교 소재지, 학교 소재지 규모, 가정의 주관적 경제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가족 구성형태(동거 가족))에 따른 기초분석결과를 부록에 제시하였음.

Ratio Test (VLRT), Entropy 지수 그리고 해석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Collins & Lanza, 2010). AIC, BIC, 그리고 ABIC는 수치가 낮을수록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보며, LRT와 VLRT는 p 값이 유의하면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한다. Entropy 수치는 잠재집단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데,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분류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6 이하일 때는 잠재집단 분류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Muthén 2004), .8 이상이면 정확도가 높은 분류로 해석할 수 있다(Jung & Wickrama, 2008). 잠재집단을 분류하는데 있어 수의 간명함과 이론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Foti et al., 2012; Lawrence & Zypur, 2011), 하나의 잠재집단에 응답자가 너무 많거나 표본의 1%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권장된다(Nylund et al., 2007).

이와 같은 잠재집단분석은 개인 중심 접근법(person-oriented approach)으로 개인의 특성 따른 분석방법이다. 이는 변수의 특성에 주목하는 변수 중심 접근법(variable-oriented approach)과는 달리 잠재되어 관찰되지 않는 집단 내에 존재하는 질적으로 다른 여러 개의 하위집단을 발견해 내는데 유용한 개인 중심 접근법(Person oriented approach)이다(Muthén & Muthén, 2000). 즉, 이질적인 잠재집단을 분류함에 따라 관찰되지 않는 변인의 유의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ergman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도를 구성하는 요인에서 주요 요인에 해당하는 교육포부 수준(희망 교육 수준)과 직업달성포부(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 + 희망 직업 달성 가능성 인식 수준)를 중심으로 진로준비도의 잠재유형을 탐색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잠재집단을 구분하는 다양한 개인적·환경적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고, 개인적·환경적 예측변인을 도출하기 위해 진로준비도의 잠재유형 집단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에는 STATA 14가 활용되었으며, 일부 독립변인에서 결측이 발견됨에 따라 MI 패키지를 통해 다변량 정규 회귀를 사용한 결측값 다중대체(multiple imputation with multivariate normal regression) 후 분석을 실시했다(StataCorp, 2015).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시에는 상대위험비(Relativ-Risk Ratio; RRR)를 도출하여 각 독립변수에 따라 기준집단 대비 비교집단에 속할 확률을 확인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을 각 연구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연구내용에 따른 분석방법

연구내용		분석 방법
연구1. 진로준비도 코호트 분석		
KCYPS 2018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기초분석 및 코호트 분석	⇒	코호트 집단 간 차이 분석
KYPS 2003, KCYPS 2018 고등학생 진로준비도 코호트 분석		
연구2. 진로준비도 구성요소에 따른 잠재집단 분석, 특성 차이 분석, 영향 요인 분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진로준비도 잠재집단분석	⇒	잠재집단 도출을 위한 잠재프로파일 분석(LPA)
진로준비도 잠재유형별 개인·환경 특징 차이		차이확인을 위한 집단 간 차이분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진로준비도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환경 요인 탐색		예측요인 탐색을 위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부록. KCYPS 2018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기초분석		



제4장 연구 결과

- 1. 진로준비도 코호트 분석
- 2. 진로준비도 잠재유형분석
및 영향요인 분석

1. 진로준비도 코호트 분석

1) KCYPS 2018 교급별 코호트 분석

(1) 진로생각

진로준비도의 진로생각 영역은 KCYPS 2018 초4 코호트 원패널(2022년 기준 중2, 이하 중2)과 중1코호트 원패널(2022년 기준 고2, 이하 고2)의 교육포부 수준,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 직업달성포부, 희망직업 선택요인, 진로적응력의 빈도분석 및 차이분석을 통해, 2022년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경향성에 대해서 탐색하였다.

① 교육포부 수준

KCYPS 2018 교급별 교육포부 수준의 차이는 <표 IV-1>과 같다. 중2와 고2 모두 4년제 대학교 졸업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집단 간 교육포부 수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중2의 교육포부수준은 2.96으로 고2(2.94)보다 조금 더 높았으나 두 집단 간 교육포부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차이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잘 모르겠음”에 응답한 비율은 중2의 경우 403명(17.4%), 고2의 경우, 263명(11.7%)로 나타났다(표 부록-1 참고).

8) 제4장의 제1절은 김윤희 부연구위원, 정윤미 전문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제2절은 김윤희 부연구위원, 류지은 부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집필하였다.

표 IV-1. KCYPS 2018 교급별 교육포부 수준

(단위: 명(%)/평균(표준편차))

구분	전체 (사례 수)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t
중2	1,908 (100.0)	72 (3.8)	128 (6.7)	1,518 (79.6)	190 (10.0)	2.96 (0.56)	0.861
고2	1,989 (100.0)	80 (4.0)	165 (8.3)	1,536 (77.2)	208 (10.5)	2.94 (0.59)	

주: '1=고등학교 졸업~4=대학원 이상'을 분석에 사용하였음. 교급별 교육포부 수준 평균값을 비교하여 교급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잘 모르겠음'은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② 희망 직업 결정 여부

KCYPS 2018 교급별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의 차이는 <표 IV-2>와 같다. 중2는 아직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5.0%로 가장 높았으며, 고2는 대강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는 응답이 51.3%로 가장 높았으며,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는 응답은 고2가 중2보다 6% 높았다. 교급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중2보다 고2의 희망직업에 대한 구체성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V-2. KCYPS 2018 교급별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

(단위: 명(%))

구분	전체 (사례 수)	아직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지 않았다	대강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	평균 (표준편차)	t
중2	2,311(100.0)	1,040(45.0)	1,006(43.5)	265(11.5)	1.66(0.67)	-9.903***
고2	2,252(100.0)	702(31.2)	1,155(51.3)	395(17.5)	1.86(0.68)	

*** $p < .001$.

③ 장래 희망 직업 달성 가능성 인식

KCYPS 2018 중2와 고2 중 장래 하고 싶은 직업을 정했다(대강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 및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패널을 대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장래 희망 직업 달성 가능성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표 IV-3>과 같다. 직업을 정한

경우 중2와 고2 60% 이상이 장래 희망이 달성 가능한 편(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이라고 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중2 4.3%, 고2 3.6%였다. 교급별 희망 직업 달성 가능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두 교급에는 차이가 있으며, 중2가 고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희망직업이 있어도 달성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2 55명(4.3%) 고2는 56명(3.6%)으로 나타났다(표 부록-3).

표 IV-3. KCYPS 2018 교급별 희망 직업 달성 가능성

(단위: 명(%))

구분	전체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t
중2	1,216 (100.0)	4 (0.3)	36 (3.0)	302 (24.8)	689 (56.7)	185 (15.2)	3.83 (0.72)	3.226**
고2	1,494 (100.0)	3 (0.2)	37 (2.5)	481 (32.2)	789 (52.8)	184 (12.3)	3.75 (0.71)	

주: 1) 본 문항은 장래희망을 대강 혹은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하여 조사한 문항
 2) '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를 분석에 사용하였음. 교급별 희망 직업 달성 가능성 수준 평균값을 비교하여 교급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잘 모르겠음'은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 $p < .01$.

④ 희망직업 선택요인

KCYPS 2018 중2와 고2의 희망 직업 선택 요인의 경우 <표 IV-4>와 같이 12가지 요인을 크게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개인적 차원 10가지, 사회적 차원 2가지이며 각 항목을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체적으로 희망직업 선택 요인은 중2와 고2 교급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평균값의 경향을 살펴보면, 희망 직업 선택 요인에서 개인적 차원은 전반적으로 3점 이상을 보이며, 사회적 차원은 3점 이하의 수준으로 개인적 차원의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는 중2와 고2 모두 수입(임금)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소질과 적성, 쾌적한 환경의 순이었다. 개인적 요인 중 중2는 동료와의 경쟁 낮음, 고2는 어울려 일함이 가장 낮았다. 한편, 사회적 차원은 사회적 명예(위신)가 국가/사회 기여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과 청소년이 희망직업을 선택하는 요인은 사회적 차원보다는 개인적 차원이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며, 개인적 차원 중에서도 수입(임금)과 소질 및 적성이 희망직업 선택에 중요한 고려 사항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4. KCYPS 2018 교급별 희망직업 선택 요인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중2 (n=2,311)	고2 (n=2,252)	t
개인적 차원	안정성	3.13(0.73)	3.13(0.74)	-0.216
	수입(임금)	3.31(0.79)	3.28(0.80)	1.144
	소질과 적성	3.20(0.78)	3.18(0.78)	1.171
	쾌적한 환경	3.19(0.75)	3.17(0.77)	0.866
	시간적 여유	3.16(0.78)	3.13(0.78)	1.13
	가족과의 시간 보장	3.09(0.76)	3.08(0.77)	0.371
	어울려 일함	3.02(0.76)	2.99(0.76)	1.121
	동료와의 경쟁 낮음	3.01(0.77)	3.02(0.75)	-0.446
	자율성	3.10(0.77)	3.12(0.73)	-0.737
	다양한 경험	3.08(0.76)	3.12(0.76)	-1.852
개인적 차원 총점		3.13(0.58)	3.12(0.56)	0.358
사회적 차원	사회적 명예(위신)	2.92(0.77)	2.90(0.79)	1.108
	국가/사회 기여	2.81(0.79)	2.79(0.80)	0.757
사회적 차원 총점		2.87(0.69)	2.85(0.69)	1.061

주: 희망직업 선택 요인은 12가지 요인에 대해 4점 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다 ~ 4=매우 중요하다)로 측정함.

⑤ 진로적응력

교급별 진로적응력은 <표 IV-5>와 같다. 진로적응력은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급별 진로적응력을 살펴보면, 진로관심 및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과 진로적응력 총점 모두 중2보다 고2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교급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V-5. KCYPS 2018 교급별 진로적응력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중2 (n=2,311)	고2 (n=2,252)	t
진로적응력	진로관심	2.68(0.67)	2.72(0.66)	-2.307*
	진로호기심	2.59(0.62)	2.68(0.61)	-4.680***
	진로자신감	2.61(0.65)	2.68(0.65)	-3.805***
	총점	2.62(0.58)	2.69(0.58)	-4.182***

주: 진로적응력은 3개 하위영역 13개 문항(진로관심(3문항), 진로호기심(5문항), 진로자신감(5문항))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진로적응력 산출을 위해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p < .05, ***p < .001.

(2) 진로탐색

① 진로 관련 대화 빈도

진로탐색 중 교급별 진로 관련 대화 빈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IV-6>과 같다. 진로 관련 대화 빈도는 4점 척도(1: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 4: 자주 대화한다)로 측정되었으며, 중2와 고2 모두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순으로 대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2의 경우, 다음으로 학원/과외선생님, 학교선생님 순으로 대화하였고, 고2의 경우,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과 학원/과외 선생님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화 하였다. 상담교사 및 친척 친지의 경우, 2점 또는 2점 이하의 점수로 대화하지 않는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2와 고2 교급에 따른 대화정도의 차이는 어머니, 형제자매, 친척 친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아버지, 학교 선생님, 상담교사, 학원/과외 선생님과과의 대화 빈도는 고2(아버지: 3.02, 학교 선생님: 2.56, 상담교사: 2.10, 학원/과외 선생님: 2.59)가 중2(아버지: 2.97, 학교 선생님: 2.41, 상담교사: 1.93, 학원/과외 선생님: 2.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KCYPS 2018 교급별 진로관련 대화 상대

(단위: 평균(표준편차))

	중2 (n=2,311)	고2 (n=2,252)	t
아버지	2.97(0.83)	3.02(0.81)	-2.114*
어머니	3.37(0.76)	3.41(0.70)	-1.810
형제·자매	2.73(1.05)	2.76(1.02)	-.791
친척·친지	1.97(0.89)	1.99(0.89)	-.520
학교 선생님	2.41(0.85)	2.56(0.86)	-5.875***
상담교사	1.93(0.84)	2.01(0.91)	-2.986**
학원/과외 선생님	2.45(0.93)	2.56(0.97)	-3.715***

주: 1) '해당없음'은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이에 전체 응답자 수는 대화 상대별로 상이함

2) 각 대상자별 진로관련 대화 빈도를 4점 척도(1=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 4=자주 대화한다)로 측정하였으며, 해당 없음(ex.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은 제외 하고 산출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② 진로준비활동

16개의 진로준비활동 중 진로활동 참여경험율 및 도움 정도 상위 5개 준비활동을 교급별로 살펴보았다. 중2와 고2 모두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경험률(중2: 47.7%, 고2: 53.3%)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진로와 직업' 수업(중2: 37.8%, 고2: 41.6%) 경험률이 높았다. 세 번째로 높은 경험률의 경우, 중2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27.4%), 고2는 진로 관련 상담(40.5%)이었다. 중2의 네 번째로 높은 경험률은 진로 관련 상담(25.2%),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25.0%)이며, 고2는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31.3%),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29.1%)이었다.

진로준비활동의 도움 정도 상위 5개 활동을 살펴보면, 중2는 현장 직업 체험(3.66), 고2는 현장 직업 체험과 직업 실무 체험(각 3.66)의 도움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중2는 현장 견학(3.60), 고2는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3.65)이었다.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은 중2(3.56)에서는 세 번째로 도움 정도가 높았으며, 고2는 현장 견학(3.64)의 도움 정도가 세 번째로 높았다. 중2는 직업 실무 체험(3.54), 직업박람회(3.44)가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도움 정도가 높았으며, 고2는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및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각 3.59)가 네 번째로 도움 정도가 높았고, 다섯 번째로 진로 관련 상담과 진로 관련 책/잡지(각 3.53) 도움 정도가 높았다.

표 IV-7. 진로준비활동 참여율 및 도움정도(상위 5개)

(단위: %)

순위	진로준비활동 참여율			
	중2 (n=2,311)		고2 (n=2,252)	
1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47.7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53.3
2	'진로와 직업' 수업	37.8	'진로와 직업' 수업	41.6
3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	27.4	진로 관련 상담	40.5
4	진로 관련 상담	25.2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31.3
5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25.0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	29.1

(단위: 평균)

	진로준비활동 도움정도			
1	현장 직업 체험	3.66	현장 직업 체험	3.66
			직업 실무 체험	
2	현장 견학	3.60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	3.65
3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	3.56)	현장 견학	3.64
4	직업 실무 체험	3.54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3.59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5	직업박람회	3.44	진로 관련 상담	3.53
			진로 관련 책/잡지	

주: 진로준비활동은 '1=(참여한 적) 없다 2=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6=매우 도움이 되었다'라고 측정하였으며, 참여 유무(0=참여한 적 없음, 1=참여함)와 도움 정도('1=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 5=매우 도움이 되었다') 5점 척도로 리코드하여 사용함.

진로준비활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8>과 같다. 교급별로 '진로와 직업'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검사, 진로 관련 상담에 있어서 고2가 중2보다 참여율이 높으며, 진로준비활동의 도움 정도는 '진로와 직업' 수업(고2: 3.34, 중2: 3.25)과 진로 관련 상담(고2: 3.53, 중2: 3.43)에서 고2가 더 높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학업 설계 워크숍 참여율은 고2가 중2보다 높으며, 진로활동의 도움 정도는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고2: 3.59, 중2: 3.43)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로 관련 현장 견학, 현장 직업 체험, 직업 실무 체험, 진로 캠프 경험률은 중2 경험률

(15.4%, 13.2%, 5.6%, 5.8%)이 고2 경험률(12.4%, 9.2%, 4.0%, 5.2%)보다 높았다. 해당 진로준비활동의 도움 정도에서는 교급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교급별 진로준비활동 경험률을 살펴보면,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 직업박람회, 진로 관련 책/잡지,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경험률은 고2(10.8%, 6.6%, 19.0%, 31.3%)가 중2(4.7%, 4.2%, 15.6%, 25.0%)보다 높았으며, 진로준비활동의 도움정도는 진로 관련 책/잡지 경험의 도움 정도와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고2(진로 관련 책/잡지: 3.53,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3.59)가 중2(진로 관련 책/잡지: 3.40,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3.39)보다 해당 진로준비활동에 의한 도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KCYPs 2018 교급별 진로준비활동 참여 및 도움 정도

(단위: 명(%)/평균(표준편차))

	참여함		도움정도		
	중2 (n=2,311)	고2 (n=2,252)	중2	고2	t
'진로와 직업' 수업	874(37.8)	937(41.6)	3.25(0.91)	3.34(0.87)	-2.068*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	633(27.4)	656(29.1)	3.25(0.88)	3.28(0.88)	-.471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1,102(47.7)	1,201(53.3)	3.42(0.80)	3.46(0.79)	-1.326
진로 관련 상담	583(25.2)	913(40.5)	3.43(0.84)	3.53(0.79)	-2.386*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311(13.5)	427(19.0)	3.43(0.93)	3.59(0.86)	-2.427*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417(18.0)	551(24.5)	3.17(0.98)	3.21(1.07)	-.490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273(11.8)	486(21.6)	3.39(0.88)	3.43(0.87)	-.632
학업 설계 워크숍	104(4.5)	138(6.1)	3.32(0.82)	3.43(0.85)	-1.014
현장 견학	356(15.4)	280(12.4)	3.60(0.79)	3.64(0.81)	-.553
현장 직업 체험	305(13.2)	207(9.2)	3.66(0.77)	3.66(0.76)	-.041
직업 실무 체험	129(5.6)	91(4.0)	3.54(0.86)	3.66(0.90)	-.976
진로 캠프	133(5.8)	117(5.2)	3.38(0.93)	3.42(0.87)	-.375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	108(4.7)	243(10.8)	3.56(0.92)	3.65(0.87)	-.920
직업박람회	98(4.2)	149(6.6)	3.44(0.81)	3.50(0.82)	-.545
진로 관련 책/잡지	361(15.6)	428(19.0)	3.40(0.83)	3.53(0.79)	-2.274*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578(25.0)	705(31.3)	3.39(0.99)	3.59(0.80)	-3.842***

주: 진로준비활동은 '1=(참여한 적) 없다 2=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6=매우 도움이 되었다'라고 측정하였으며, 참여 유무(0=참여한 적 없음, 1=참여함)와 도움 정도(1=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 5=매우 도움이 되었다) 5점 척도로 리코드하여 사용함.

* $p < .05$, *** $p < .001$.

(3) 진로경험

① 직업/진로 관련 체험 활동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중 직업/진로와 관련된 활동의 경험 및 활동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표 IV-9>와 같다. 교급별 진로활동 참여 경험률은 고2의 경험률(33.3%)이 중2(29.9%)보다 높았고, 만족도는 중2(3.03)가 고2(3.01)보다 높았다. 체험활동 중 직업/진로 관련 활동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V-9. KCYPS 2018 교급별 체험활동 중 직업/진로 관련 활동

(단위: 명(%)/평균(표준편차))

구분	참여함 ¹⁾		만족도 ²⁾		t
	중2 (n=2,311)	고2 (n=2,252)	중2 (n=691)	고2 (n=751)	
체험활동 중 직업/진로 관련 활동	691(29.9)	751(33.3)	3.03(0.59)	3.01(0.56)	.561*

주: 1) 체험활동 중 직업/진로 관련 활동 참여는 '1=없다 2=1~2회~4=5회 이상'으로 측정하였으며, 참여 유무 (0=참여한 적 없음, 1=참여함)로 리코드하여 사용하였음.

2) 직업/진로 관련 활동 만족도는 '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4=매우 만족한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함.

* $p < .05$, ** $p < .01$, * $p < .05$

② 아르바이트

패널의 아르바이트 경험률과 아르바이트 경험의 진로에 대한 도움 정도는 <표 IV-10>과 같다. 교급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중2는 1.7%, 고2는 10.4%로 나타났다. 교급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의 진로에 대한 도움 정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10. KCYPS 2018 교급별 아르바이트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명(%)/평균(표준편차))

구분	경험 있음 ¹⁾		도움 정도 ²⁾		t
	중2 (n=2,311)	고2 (n=2,252)	중2 (n=39)	고2 (n=235)	
아르바이트	39(1.7)	235(10.4)	2.90(1.07)	3.18(1.17)	-1.406

주: 1)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한 경험을 '1=한 번 이상 있다 2=전혀 없다'로 측정함

2)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래 직업생활에 도움 예상 정도는 아르바이트 유경험자들이 응답하였으며, '1=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5=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점 척도로 측정함.

2) KCYPs 2018 KYPs 2003 시대별 코호트 분석

KCYPs 2018과 KYPs 2003 패널 중 비교 가능한 항목들로 시대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KCYPs 2018과 KYPs 2003은 모두 고등학교 2학년이며, KCYPs 2018은 중1패널 2022년 자료를 사용하였고, KYPs 2003은 2003년에 구축된 중2 패널을 2006년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1) 진로생각

① 교육포부 수준

진로생각은 청소년의 교육포부 수준, 장래희망 직업 결정 여부, 희망 직업 달성 가능성, 희망직업 선택요인, 진로적응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두 코호트 간 비교 가능한 조사 항목인 교육포부 수준, 장래 직업 결정 여부, 희망직업 선택요인만을 선택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진로생각 중 청소년의 교육포부 수준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수준(2-3년제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에 대해 KYPs 2003의 교육포부 수준이 KCYPs 2018보다 높았다. 그러나 시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두 코호트 교육포부 수준 모두 4년제 대학교 이상 교육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학원 이상,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학위 취득에 대한 교육포부 수준이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음을 반영하며, 높은 교육 수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다르게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차이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잘 모르겠음”에 응답한 비율은 KYPs 2003 경우 22명(0.7%), KCYPs 2018의 경우, 263명(11.7%)으로 나타났다.

표 IV-11. 청소년의 시대별 교육포부 수준

(단위: 명(%)/평균(표준편차))

구분	전체 (사례 수)	고등학교 졸업 ¹⁾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석사, 박사) 이상	평균 (표준편차)	t
KYPs 2003	3,099(100.0)	106(3.4)	350(11.3)	2,193(70.8)	450(14.5)	2.96(0.63)	1.308
KCYPs 2018	1,989(100.0)	80(4.0)	165(8.3)	1,536(77.2)	208(10.5)	2.94(0.59)	

주: 1) KYPs 2003의 ‘중졸’과 ‘고졸’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음.

2) *1=고등학교 졸업 ~ 4=대학원(석사, 박사) 이상’을 분석에 사용하였음. 시대별 교육포부 수준 평균값을 비교하여 시대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잘 모르겠음’은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②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는 <표 IV-12>와 같다. KYPs 2003에서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하였다는 응답이 78.1%(대강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 50.0% +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직업이 있다 28.1%)로 KCYPs 2018(대강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 51.3% +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직업이 있다 17.5%=68.8%)보다 9.3%p 높았다. 시대별 장래 희망 결정 여부 차이를 살펴보면, KYPs 2003은 2.06으로 직업을 정했다는 응답이 많으며, KCYPs 2018은 1.86으로 장래 희망 직업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았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V-12. 청소년 시대별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

(단위: 명(%)/평균(표준편차))

구분	전체(사례수)	아직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지 않았다 ¹⁾	대강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 ²⁾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 ³⁾	평균 (표준편차)	t
KYPs 2003	3,121(100.0)	685(21.9)	1,559(50.0)	877(28.1)	2.06(0.70)	10.274***
KCYPs 2018	2,252(100.0)	702(31.2)	1,155(51.3)	395(17.5)	1.86(0.68)	

주: 1) KCYPs 2003 '아직 정해놓은 장래의 직업이 없다'

2) KYPs 2003의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대강 생각해 놓은 직업이 있다'

3) KYPs 2003의 '구체적으로 확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

*** $p < .001$.

③ 희망 직업 달성 가능성

장래 희망 직업을 정했다고 응답한 패널을 대상으로 해당 장래 희망 직업 달성 가능성 인식을 확인한 결과는 <표 IV-13>와 같다. 긍정적인 응답에 답한 비율의 경우, KYPs 2003의 직업달성 포부는 50.9%(그런 편이다: 42.5% + 매우 그렇다 8.4%), KCYPs 2018은 62.8%(그런 편이다: 50.9% + 매우 그렇다 11.9%)로 KCYPs 2018이 KYPs 2003보다 달성 가능성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별 희망 직업 달성 가능성 평균값을 살펴보면, KYPs 2003은 3.51이고 KCYPs 2018 3.75로 KCYPs 2018의 희망 직업 달성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장래 희망 직업에 대해 정하지 않은 비율은 KCYPs 2018 청소년이 더 적지만 정해놓은 청소년의 경우, 달성 가능성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13. 청소년 시대별 희망 직업 달성 가능성

(단위: 명(%)/평균(표준편차))

	전체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t
KYPS 2003	2,371 (100.0)	10 (0.4)	211 (8.9)	911 (38.4)	1,035 (43.7)	204 (8.6)	3.51 (0.79)	-9.596***
KCYPS 2018	1,494 (100.0)	3 (0.2)	37 (2.5)	481 (32.2)	789 (52.8)	184 (12.3)	3.75 (0.71)	

주: 1) 본 문항은 장래 희망을 대강 혹은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하여 조사한 문항

2)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를 분석에 사용하였음. 시대별 희망 직업 달성 가능성 수준 평균값을 비교하여 시대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잘 모르겠음'은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 $p < .001$.

④ 희망직업 선택 요인

희망직업 선택요인은 두 코호트가 동일한 척도로 조사하지 않았으나, 유사한 조사문항을 선택하여 비교하였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평균값을 따로 환산하지 않았다. 또한, 조사 응답 범주에 차이가 있어(KCYPS 2018은 4점 척도, KYPS 2003은 5점 척도), KCYPS 2018를 기준으로 KYPS 2003에 가중치를 두고, 평균값 차이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각 항목은 사회적 차원의 국가/사회 기여 이외에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CYPS 2018이 어울려 일함 이외에는 모두 더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KCYPS 2018 청소년의 경우, KYPS 2003과 같이 “보통이다”의 응답 범주가 없어 “중요한 편이다”의 응답 비율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울려 일함의 점수는 KCYPS 2018의 개인적 차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KYPS 2003의 경우, 다른 개인적 차원의 요인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인다. 즉, 희망직업 선택에서 어울려 일함의 중요성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 감소하였다.

한편, 희망직업 선택요인의 중요성 순서를 비교해보면, KCYPS 2018은 수입(임금), 소질과 적성, 쾌적한 환경 순으로 나타났으며, KYPS 2003는 어울려 일함, 소질과 적성, 국가/사회 기여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성 정도가 낮게 나타난 요인은 KCYPS 2018의 경우 국가/사회 기여, 어울려 일함 순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고, KYPS 2003은 시간적 여유, 다양한 경험 순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희망직업을 선택하는데 각 요인의 중요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나타냈다.

표 IV-14. 청소년 시대별 희망직업 선택 요인

(단위: 명(%)/평균(표준편차))

구분			전체 (사례 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 차원	안정성	KYPS 2003	2,384 (100.0)	82 (3.4)	381 (16.0)	702 (29.4)	852 (35.7)	367 (15.4)	2.75 (0.83)
		KCYPS 2018	2,252 (100.0)	68 (3.0)	279 (12.4)	-	1,191 (52.9)	714 (31.7)	3.13 (0.74)
		t	-						-16.628***
	수입 (임금)	KYPS 2003	2,378 (100.0)	76 (3.2)	387 (16.3)	989 (41.6)	776 (32.6)	150 (6.3)	2.58 (0.72)
		KCYPS 2018	2,252 (100.0)	81 (3.6)	248 (11.0)	-	878 (39.0)	1,045 (46.4)	3.28 (0.80)
		t	-						-31.240***
	소질과 적성	KYPS 2003	2,362 (100.0)	11 (0.5)	61 (2.6)	654 (27.7)	1,139 (48.2)	497 (21.0)	3.09 (0.63)
		KCYPS 2018	2,252 (100.0)	90 (4.0)	247 (11.0)	-	1,090 (48.4)	825 (36.6)	3.18 (0.78)
		t	-						-3.949***
	쾌적한 환경	KYPS 2003	2,390 (100.0)	65 (2.7)	351 (14.7)	821 (34.4)	942 (39.4)	211 (8.8)	2.70 (0.74)
		KCYPS 2018	2,252 (100.0)	100 (4.4)	212 (9.4)	-	1,154 (51.2)	786 (34.9)	3.17 (0.77)
		t	-						-21.134***
	시간적 여유	KYPS 2003	2,387 (100.0)	220 (9.2)	764 (32.0)	755 (31.6)	559 (23.4)	89 (3.7)	2.24 (0.81)
		KCYPS 2018	2,252 (100.0)	86 (3.8)	295 (13.1)	-	1,108 (49.2)	763 (33.9)	3.13 (0.78)
		t	-						-37.994***
	어울려 일함	KYPS 2003	2,403 (100.0)	28 (1.2)	171 (7.1)	590 (24.6)	1,076 (44.8)	538 (22.4)	3.04 (0.72)
		KCYPS 2018	2,252 (100.0)	85 (3.8)	398 (17.7)	-	1,214 (53.9)	555 (24.6)	2.99 (0.76)
		t	-						2.144*

구분			전체 (사례 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평균 (표준편차)
	다양한 경험	KYPS 2003	2,359 (100.0)	136 (5.8)	712 (30.2)	740 (31.4)	561 (23.8)	210 (8.9)	2.40 (0.85)
		KCYPS 2018	2,252 (100.0)	74 (3.3)	302 (13.4)	-	1,157 (51.4)	719 (31.9)	3.12 (0.76)
		t	-						-30.468***
사회적 차원	사회적 명예 (위신)	KYPS 2003	2,390 (100.0)	129 (5.4)	561 (23.5)	947 (39.6)	642 (26.9)	111 (4.6)	2.42 (0.76)
		KCYPS 2018	2,252 (100.0)	80 (3.6)	589 (26.2)	-	1,069 (47.5)	514 (22.8)	2.90 (0.79)
		t	-						-21.111***
	국가/ 사회 기여	KYPS 2003	2,373 (100.0)	43 (1.8)	271 (11.4)	828 (34.9)	899 (37.9)	332 (14.0)	2.81 (0.75)
		KCYPS 2018	2,252 (100.0)	103 (4.6)	683 (30.3)	-	1,040 (46.2)	426 (18.9)	2.79 (0.80)
		t	-						.537

주: 1) KCYPS 2018를 기준으로 KYPS 2003의 변인 중 유사한 요인만 선택하여 비교함. '가족과의 시간 보강' '동료와의 경쟁 낮음' '자율성' 항목은 KYPS 2003에 비교 가능한 항목이 없음.

2) 질문과 응답값에 차이가 있어, 경향성만 파악하고, 차원별 총점은 산출하지 않음

3) KCYPS 2018는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4 = 매우 중요하다'로 측정. KYPS 2003는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함. 비교를 위해, KYPS 2003의 '0 = 잘 모르겠다'는 결측으로 처리하였으며, KYPS 2003의 응답값에 0.8의 가중치를 둠

* $p < .05$ *** $p < .001$.

(2) 진로탐색

① 진로 관련 대화 상대 및 빈도

진로탐색에서 진로 관련 대화 상대 및 빈도에 대한 결과는 <표 IV-15>와 같다. 두 코호트 간에는 설문 문항에 포함된 진로 관련 대화 상대가 상이하였다. 그중 KCYPS 2018은 아버지, 어머니와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를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KYPS 2003은 부모님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대별 분석에서는 KCYPS 2018의 아버지와 어머니, KYPS 2003의 부모님의 응답 결과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진로 관련 대화 상대 문항에서도 두 코호트 간의 조사 응답 범주에 차이가 있어(KCYPS 2018은 4점 척도, KYPS 2003은 5점 척도), KYPS 2003 응답값에 0.8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균값을 살펴보았으며, 평균값의 차이는 산출하지 않았다.

그 결과 KCYPs 2018의 아버지와의 대화는 평균 3.02, 어머니와의 대화는 평균 3.41로 나타났다. KYPs 2003의 경우, 부모님과 진로 관련 대화 빈도가 2.69로 나타났다. 이 또한, KCYPs 2018 “보통이다”의 응답 범주가 없어, 긍정의 응답인 “가끔 대화한다”의 응답 비율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응답의 범주를 감안하더라도 KCYPs 2018에서 어머니와의 대화 빈도, 특히 “자주 대화한다”는 절반 이상 분포하고 있어, KCYPs 2003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표 IV-15. 청소년 시대별 진로 관련 대화 상대/빈도

(단위: 명(%)/평균(표준편차))

구분		전체 (사례 수)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가끔 대화한다	자주 대화한다	평균 (표준편차)
부모님 ²⁾	KYPs 2003	3,114 (100.0)	41 (1.3)	439 (14.1)	1,217 (39.1)	1,169 (37.5)	248 (8.0)	2.69 (0.69)
	KCYPs 2018 ¹⁾	2,051 (100.0)	98 (4.5)	406 (18.6)	-	1,030 (47.2)	648 (29.7)	3.02 (0.81)
어머니		2,182 (100.0)	34 (1.5)	180 (8.1)	-	853 (38.6)	1,145 (51.8)	3.41 (0.70)

주: 1) KCYPs 2018 응답의 ‘해당 없음’은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 KCYPs 2018는 1=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4 = 자주 대화 한다 응답, KYPs 2003은 1= 전혀 하지 않는다. ~ 5= 매우 많이 한다로 응답. 비교를 위해, KCYPs2002의 응답값에 0.8의 가중치를 둠

② 진로준비활동 참여 유무 및 도움 정도

진로준비활동 참여 유무 및 도움 정도를 살펴 본 결과는 <표 IV-16>과 같다. 비교 가능한 항목들을 비교하였으며, KCYPs 2018 기준 16개 진로준비활동 중 7개 항목의 진로준비활동 참여 경험 및 도움 정도를 비교하였다.

각 진로준비도 활동 중, 두 코호트의 고2 청소년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경험은 진로 심리검사 및 적성 검사였으며, 각 준비활동의 참여경험 유무의 빈도는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검사와 진로 관련 상담,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현장 직업 체험 경험률은 KCYPs 2018(53.3%, 40.5%, 19.0%, 9.2%)이 KYPs 2003(41.9%, 22.1%, 6.7%, 3.2%)보다 높았으며, 직업 실무 체험과 진로 관련 책/잡지 경험률은 KYPs

2003(5.1%, 24.9%)이 KCYPS 2018(4.0%, 19.0%)보다 높았다. 한편,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은 KYPs 2003(24.8%)과 KCYPS 2018(24.5%)의 경험률이 유사하였다.

진로준비활동 경험의 도움 정도를 살펴보면,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는 KCYPS 2018이 KYPs 2003보다 높으며,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과 진로 관련 책/잡지는 KYPs 2003가 KCYPS 2018보다 높았다. 진로 관련 상담,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현장 직업 체험, 직업 실무 체험은 패널 코호트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 경험의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현장직업 체험과 직업실무 체험은 도움의 정도가 두 코호트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V-16. 청소년 시대별 진로준비활동

(단위: 명(%)/평균(표준편차))

구분		참여유무			도움정도					
		전체 (사례수)	없음	있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평균 (표준편차)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²⁾	KYPS 2003	3,121(100.0)	1,812(581.)	1,309(41.9)	37(2.8)	210(16.0)	478(36.5)	519(39.6)	65(5.0)	3.28(0.89)
	KCYPS 2018	2,252(100.0)	1,051(46.7)	1,201(53.3)	22(1.8)	83(6.9)	489(40.7)	533(44.4)	74(6.2)	3.46(0.79)
	t	-								-5.449***
진로 관련 상담	KYPS 2003	3,121(100.0)	2,432(77.9)	689(22.1)	15(2.2)	65(9.4)	250(36.3)	289(41.9)	70(10.2)	3.48(0.88)
	KCYPS 2018	2,252(100.0)	1,339(59.5)	913(40.5)	15(1.6)	47(5.1)	373(40.9)	397(43.5)	81(8.9)	3.53(0.79)
	t	-			-					-1.014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³⁾	KYPS 2003	3,121(100.0)	2,913(93.3)	208(6.7)	6(2.9)	20(9.6)	74(35.6)	81(38.9)	27(13.0)	3.50(0.94)
	KCYPS 2018	2,252(100.0)	1,825(81.0)	427(19.0)	6(1.4)	24(5.6)	170(39.8)	164(38.4)	63(14.8)	3.59(0.86)
	t	-								-1.333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⁴⁾	KYPS 2003	3,121(100.0)	2,348(75.2)	773(24.8)	16(2.1)	96(12.4)	259(33.5)	339(43.9)	63(8.2)	3.44(0.88)
	KCYPS 2018	2,252(100.0)	1,701(75.5)	551(24.5)	38(6.9)	98(17.8)	186(33.8)	171(31.0)	58(10.5)	3.21(1.07)
	t	-								4.153***

구분		참여유무			도움정도					
		전체 (사례수)	없음	있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평균 (표준편차)
현장 직업 체험 ⁵⁾	KYPS 2003	3,121(100.0)	3,020(96.8)	101(3.2)	3(3.0)	6(5.9)	31(30.7)	40(39.6)	21(20.8)	3.69(0.97)
	KCYPS 2018	2,252(100.0)	2,045(90.8)	207(9.2)	1(0.5)	4(1.9)	88(42.5)	85(41.1)	29(14.0)	3.66(0.76)
	t	-								.285
직업 실무 체험 ⁶⁾	KYPS 2003	3,121(100.0)	2,961(94.9)	160(5.1)	5(3.1)	11(6.9)	55(34.4)	65(40.6)	24(15.0)	3.58(0.94)
	KCYPS 2018	2,252(100.0)	2,161(96.0)	91(4.0)	1(1.1)	4(4.4)	39(42.9)	28(30.8)	19(20.9)	3.66(0.90)
	t	-								-.697
진로 관련 책/잡지 ⁷⁾	KYPS 2003	3,121(100.0)	2,344(75.1)	777(24.9)	2(0.3)	36(4.6)	281(36.2)	389(50.1)	69(8.9)	3.63(0.72)
	KCYPS 2018	2,252(100.0)	1,824(81.0)	428(19.0)	5(1.2)	28(6.5)	166(38.8)	193(45.1)	36(8.4)	3.53(0.79)
	t	-								2.095*
'진로와 직업' 수업		2,252(100.0)	1,315(58.4)	937(41.6)	31(3.3)	97(10.4)	388(41.4)	364(38.8)	57(6.1)	3.34(0.87)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2,252(100.0)	1,596(70.9)	656(29.1)	22(3.4)	80(12.2)	292(44.5)	219(33.4)	43(6.6)	3.28(0.88)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2,252(100.0)	1,766(78.4)	486(21.6)	11(2.3)	49(10.1)	189(38.9)	194(39.9)	43(8.8)	3.43(0.87)
학업 설계 워크숍		2,252(100.0)	2,114(93.9)	138(6.1)	4(2.9)	7(5.1)	67(48.6)	46(33.3)	14(10.1)	3.43(0.85)
현장 견학		2,252(100.0)	1,972(87.6)	280(12.4)	4(1.4)	8(2.9)	112(40.0)	117(41.8)	39(13.9)	3.64(0.81)
진로 캠프		2,252(100.0)	2,135(94.8)	117(5.2)	1(0.9)	11(9.4)	59(50.4)	30(25.6)	16(13.7)	3.42(0.87)

구분	참여유무			도움정도					
	전체 (사례수)	없음	있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평균 (표준편차)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	2,252(100.0)	2,009(89.2)	243(10.8)	3(1.2)	15(6.2)	87(35.8)	97(39.9)	41(16.9)	3.65(0.87)
직업박람회	2,252(100.0)	2,103(93.4)	149(6.6)	3(2.0)	7(4.7)	67(45.0)	57(38.3)	15(10.1)	3.50(0.82)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2,252(100.0)	1,547(68.7)	705(31.3)	6(0.9)	44(6.2)	264(37.4)	312(44.3)	79(11.2)	3.59(0.80)

주: 1) KYPS 2003 '진로관련 적성 검사'

2) KYPS 2003 '진로관련 소집단 활동'

3) KYPS 2003 '진로관련 강연이나 수업'

4) KYPS 2003 '사업체파견 형식의 현장실습'

5) KYPS 2003 '직업생활 직접체험 프로그램'

6) KYPS 2003 '진로 관련 책/잡지 열독(읽음)'

7) KCYPS 2018와 KYPS 2003의 변인 중 유사한 요인만 선택하여 비교함. '진로와 직업' 수업~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항목은 KYPS 2003에 비교 가능한 항목이 없음.

*p < .05 ***p < .001.

(3) 진로경험

① 아르바이트 경험 및 도움 정도

진로경험과 관련하여 아르바이트 경험 및 도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17>과 같다.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KYPs 2003이 15.0%로 KCYPs 2018(10.4%)보다 4.6%p 높았으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래 직업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KCYPs 2018이 보통 이상(3.18)으로 KYPs 2003(2.80)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과 도움 정도의 시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청소년 시대별 아르바이트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명(%)/평균(표준편차))

		경험 유무			도움 정도					
		전체 (사례수)	없음	있음	전혀 도움 이 되지 않 을 것이다	별로 도움 이 되지 않 을 것이다	보통이다	약간 도 움이 될 것이다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평균 (표준편차)
아르 바이 트	KYPs 2003	3,121 (100.0)	2,653 (85.0)	468 (15.0)	94 (20.1)	103 (22.0)	106 (22.6)	132 (28.2)	33 (7.1)	2.80 (1.25)
	KCYPs 2018	2,252 (100.0)	2,017 (89.6)	235 (10.4)	22 (9.4)	49 (20.9)	57 (24.3)	79 (33.6)	28 (11.9)	3.18 (1.17)
	χ^2/t	23.919***			-3.867***					

***p < .001.

2. 진로준비도 잠재유형 분석 및 영향요인 분석

1) 교육포부 및 직업달성 포부에 따른 진로준비도 유형화

청소년의 희망 교육 수준과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요소는 진로에 대한 준비 정도를 유의하게 판단하는 기준이며, 성인기의 직업관련 성공 요인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Covacevich et al., 2021a; Mann et al., 2020).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징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핵심요인의 영역인 교육포부 수준(희망 교육 수준)과 직업달성포부(장래 희망 직업 결정여부 + 희망 직업 달성 가능성 인식 수준)에 따라 청소년 진로준비도의 잠재유형을 탐색하고자 했으며, 미결정하거나 잘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가장 낮은 점수로 설정하였다.

교육포부 수준은 개인이 희망하는 교육 수준을 묻는 문항을 활용했으며, 진로준비도 잠재유형을 위한 분석에는 ‘잘 모르겠음’의 응답값을 0으로 재코딩해 분석에 활용하였다⁹⁾. 직업달성포부(희망 직업 획득 가능성 인식 수준)의 경우, 장래 직업 결정 여부를 묻는 문항과 장래 직업을 결정한 응답자에게 해당 직업을 획득할 가능성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각 수준을 6단계로 코딩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 분석에 활용했다¹⁰⁾.

표 IV-18. 진로준비도 유형화 기준

구분	코딩 값	코딩 기준
교육포부 수준 (희망 교육 수준)	0	잘 모르겠음
	1	고등학교 졸업
	2	전문대학 졸업
	3	4년제 대학 졸업
	4	대학원 이상

9) 희망 교육 수준이나 장래 직업 결정 유무는 진로에 대한 준비정도를 유의하게 판단하는 기준이며, 학생의 미래 학업성취 및 동기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Kusurkar et al., 2012). 이에, 미결정하거나 잘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가장 낮은 점수로 설정함.

10) 장래 직업 결정 여부와 희망 직업 획득 가능성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p < .01$ 에서 초4 패널 .845($p < .01$), 중1 패널 .812로 매우 높은 상관을 보임.

구분	코딩 값	코딩 기준
직업달성포부 (희망 직업달성 가능성 인식)	0	장래 희망직업 미결정 또는 희망직업을 얻을 가능성 잘 모르겠음
	1	장래 희망직업 결정 및 희망직업 달성의 매우 낮은 가능성
	2	장래 희망직업 결정 및 희망직업 달성의 낮은 가능성
	3	장래 희망직업 결정 및 희망직업 달성의 보통 가능성
	4	장래 희망직업 결정 및 희망직업 달성의 높은 가능성
	5	장래 희망직업 결정 및 희망직업 달성의 매우 높은 가능성

(1)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잠재유형 분석

먼저 현재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초4 패널 데이터 2,311명의 희망 교육 수준과 직업달성 포부를 투입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각 집단의 평균이 다르고 집단 내 변인 간에 공변량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실시되었으며, 독립모델에서 출발해 잠재유형의 수를 하나씩 늘려나가는 탐색적 방법을 활용했다. 독립모델부터 4유형 모델까지의 모델별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3유형 모델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AIC, BIC, ABIC 모두 유형수가 3개일 때 가장 작은 값을 보였으며, 유형수가 4개인 경우 오히려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모델에서 VLRT와 LRT의 p-value 값이 유의했고, Entropy 값은 3유형 모델에서 0.987로 가장 높았다.

표 IV-19.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잠재유형 수별 적합도 비교

구분	1개 유형	2개 유형	3개 유형	4개 유형
Log-Likelihood	-8626.370	-7045.722	-6754.680	-6754.680
Free Parameters	4	7	10	13
AIC	17260.741	14105.444	13529.359	13535.359
BIC	17283.723	14145.662	13586.814	13610.050
ABIC	17271.014	14123.422	13555.042	13568.746
VLRT(p-value)	N/A	0.0000	0.0000	0.0000
LRT(p-value)	N/A	0.0000	0.0000	0.0000
Entropy	N/A	0.986	0.987	0.813
백 분 율 (%)	유형1	100.00	47.56	20.55
	유형2		52.45	35.05
	유형3		44.40	18.74
	유형4			44.61

주: 1) VLRT=VUONG-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N TEST

2) LRT=LO-MENDELL-RUBIN ADJUSTED LRT TEST

3유형 모델의 유형별 비율은 유형1 20.6%, 유형2 35.0%, 유형3 44.4%로 모든 유형이 적절한 규모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적 모델에 따라 구분된 잠재유형별 할당 확률 평균에서 각 유형의 응답자들은 해당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분류의 정확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20.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잠재유형별 평균 할당 확률

잠재유형	사례 수	잠재유형 크기	잠재유형별 평균 할당 확률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1	475	20.6%	1.000	0.000	0.000
유형2	810	35.0%	0.000	0.997	0.003
유형3	1,026	44.4%	0.000	0.010	0.990

도출된 세 개 유형의 유형별 교육 포부 수준 및 직업달성 포부의 차이를 토대로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의 교육 포부 수준 평균은 0.16, 직업달성 포부는 평균 1.40으로, 유형1에 속한 학생들은 향후 목표하는 학업 수준에 대해 잘 모르며, 하고 싶은 직업은 정했으나 희망 직업을 얻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형1을 ‘진학 무관심형’으로 명명했다. 두 번째 유형의 경우, 교육 포부 수준은 평균 2.98, 직업달성 포부는 평균 0.01로, 교육 측면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을 희망하는 한편 직업 측면에서는 장래 직업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희망 직업을 얻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소 불명확하게 인식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유형2는 ‘진학 관심형’으로 명명되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의 교육 포부 수준은 평균 3.07, 직업달성 포부는 평균 3.89로, 이들은 4년제 대학 졸업을 희망하며, 희망 직업을 얻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형3은 ‘진로 관심형’으로 명명되었다. 유형 간의 교육 포부 수준과 직업달성 포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한 결과, 교육 포부 수준과 직업달성 포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검정 결과, 교육 포부 수준은 ‘진학 무관심형 < 진학 관심형 < 진로 관심형’의 순으로 높았으며, 직업달성 포부는 ‘진학 관심형 < 진학 무관심형 < 진로 관심형’의 순으로 높았다.

표 IV-21.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교육 포부 수준 및 직업 달성 포부 차이

구분	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a	b	c
교육 포부 수준	a	진학 무관심형	475	0.16	0.400	9065.822***			
	b	진학 관심형	810	2.98	0.362		***		
	c	진로 관심형	1,026	3.07	0.458		***	***	
직업달성 포부	a	진학 무관심형	475	1.40	1.838	3884.825***			
	b	진학 관심형	810	0.01	0.161		***		
	c	진로 관심형	1,026	3.89	0.672		***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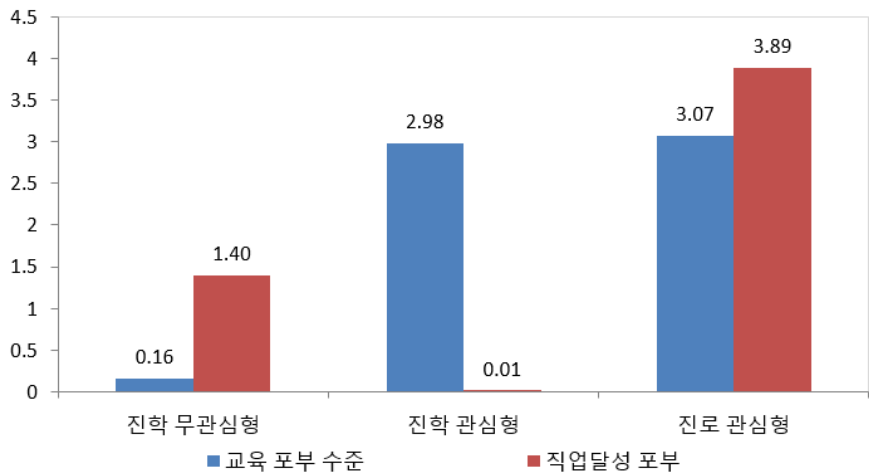


그림 IV-1.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잠재유형

(2)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잠재유형 분석

다음으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중1 패널 데이터 2,252명을 대상으로 잠재 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4 패널과 마찬가지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은 각 집단의 평균이 다르고 집단 내 변인 간에 공변량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실시되었다. 탐색적 방법을 활용해 독립모델부터 4유형 모델까지의 모델별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중1 패널 역시 3유형 모델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AIC, BIC, ABIC 모두 유형

수가 3개일 때 가장 작은 값을 보였으며, VLRT와 LRT의 p-value 값은 3유형 모델까지 유의했고, Entropy 값은 2유형 모델과 3유형 모델에서 0.8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잠재유형 수별 적합도 비교

구분	1개 유형	2개 유형	3개 유형	4개 유형
Log-Likelihood	-7991.935	-6716.433	-6482.163	-6696.362
Free Parameters	4	7	10	13
AIC	15991.870	13446.865	12984.326	13418.724
BIC	16014.748	13486.902	13041.521	13493.079
ABIC	16002.039	13464.662	13009.750	13451.776
VLRT(p-value)	N/A	0.0000	0.0000	1.0000
LRT(p-value)	N/A	0.0000	0.0000	1.0000
Entropy	N/A	0.991	0.986	0.614
백 분 율 (%)	유형1	100.00	33.79	15.23
	유형2		66.21	25.40
	유형3		58.88	50.13
	유형4			9.24

주: 1) VLRT=VUONG-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N TEST
2) LRT=LO-MENDELL-RUBIN ADJUSTED LRT TEST

3유형 모델의 유형별 비율은 유형1 15.2%, 유형2 25.9%, 유형3 58.9%로 모든 유형이 적절한 규모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적 모델에 따라 구분된 잠재유형별 할당 확률 평균에서 각 유형의 응답자들은 해당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분류의 정확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23.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잠재유형별 평균 할당 확률

잠재유형	사례 수	잠재유형 크기	잠재유형별 평균 할당 확률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1	343	15.2%	0.998	0.000	0.002
유형2	583	25.9%	0.000	0.999	0.001
유형3	1,326	58.9%	0.000	0.007	0.993

도출된 3개 유형의 유형별 교육 포부 수준 및 직업달성 포부의 차이를 토대로 각 유형을 명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의 교육 포부 수준 평균은 0.23, 직업달성 포부는 평균 1.81로, 유형1에 속한 학생들은 향후 목표하는 학업 수준을 결정하지 않았고, 하고 싶은 직업은 정했으나 희망 직업을 얻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 중 진학 무관심형과 유사한 특성으로, 유형1을 '진학 무관심형'으로 명명했다. 두 번째 유형의 경우, 교육 포부 수준은 평균 2.99, 직업달성 포부는 평균 0.01로,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 중 진학 관심형과 마찬가지로 교육 측면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을 희망하는 한편 직업 측면에서는 장래 직업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희망 직업을 얻을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유형2는 '진학 관심형'으로 명명되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의 교육 포부 수준은 평균 3.04, 직업달성 포부는 평균 3.75로,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 중 진로 관심형처럼 4년제 대학 졸업을 희망하는 동시에 희망 직업을 얻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유형3은 '진로 관심형'으로 명명되었다. 유형 간의 교육 포부 수준과 직업달성 포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한 결과, 교육 포부 수준과 직업달성 포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e 사후검정 결과, 교육 포부 수준 수준은 '진학 무관심형 < 진학 관심형, 진로 관심형'의 순으로 높았으며, 직업달성 포부는 '진학 관심형 < 진학 무관심형 < 진로 관심형'의 순으로 높았다. 이는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잠재유형 분류 및 특징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IV-24.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교육 포부 수준 및 직업달성 포부 차이

구분	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a	b	c
교육 포부 수준	a	진학 무관심형	343	0.23	0.424	5884.329***			
	b	진학 관심형	583	2.99	0.371		***		
	c	진로 관심형	1,326	3.04	0.469		***		
직업달성 포부	a	진학 무관심형	343	1.81	1.946	3360.876***			
	b	진학 관심형	583	0.01	0.176		***		
	c	진로 관심형	1,326	3.75	0.696		***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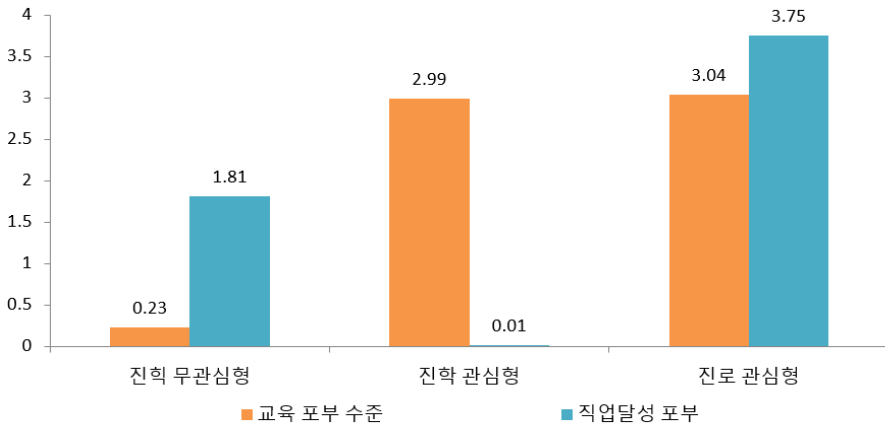


그림 IV-2.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잠재유형

2) 진로준비도 유형별 주요 특성¹¹⁾

(1)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주요 특성

① 개인 특성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개인 특성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진학 무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은 남자 각 51.2%, 51.4%, 여자 각 48.8%, 48.6%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진로 관심형은 여자가 51.7%로 남자 48.3%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학업 관련 변인들의 경우, 전 교과 성취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진로 관심형 평균 3.48, 진학 관심형 평균 3.39, 진학 무관심형 평균 3.01로 진로 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이 진학 무관심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학업성취 만족도는 진로 관심형 평균 3.49, 진학 관심형 평균 3.37, 진학 무관심형 평균 3.17로 나타났으며, 진로 관심형, 진학 관심형, 진학 무관심형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학업열의의 경우, 전체 평균은 진로 관심형 평균 2.56, 진학 관심형 평균 2.47, 진학 무관심형 평균 2.22로 진로 관심형, 진학 관심형, 진학 무관심형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학업열의의 세부 요인별로 살펴보면, 헌신, 활기, 효능감, 몰두 모두 진로 관심형, 진학 관심형, 진학 무관심형의 순으로 높았으며, 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11) 유형별 변인별 결측값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개인 심리 관련 변인들의 경우, 삶 만족도는 진로 관심형 평균 2.72, 진학 관심형 평균 2.69, 진학 무관심형 평균 2.57로 진로 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이 진학 무관심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자아존중감은 진학 관심형 평균 2.58, 진로 관심형 평균 2.56, 진학 무관심형 평균 2.54의 순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는 진학 무관심형 평균 2.36, 진학 관심형 평균 2.16, 진로 관심형 평균 2.02로 진학 무관심형, 진학 관심형, 진로 관심형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공격성의 경우 진학 무관심형 평균 2.00, 진학 관심형 평균 1.92, 진로 관심형 평균 1.82로 진학 무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이 진로 관심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은 진학 무관심형 평균 2.28, 진학 관심형 평균 2.12, 진로 관심형 평균 1.95, 우울은 진학 무관심형 평균 1.88, 진학 관심형 평균 1.77, 진로 관심형 평균 1.69로 사회적 위축과 우울 모두 진학 무관심형, 진학 관심형, 진로 관심형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릿의 경우 진로 관심형 평균 2.64, 진학 관심형 평균 2.56, 진학 무관심형 평균 2.44로 나타났으며, 진로 관심형, 진학 관심형, 진학 무관심형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25.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개인 특성 변인 차이

구분		① 진학 무관심형 (n=475)		② 진학 관심형 (n=810)		③ 진로 관심형 (n=1,026)		x ² /F
		m (n)	sd (%)	m (n)	sd (%)	m (n)	sd (%)	
성별	남자	(243)	(51.2)	(416)	(51.4)	(496)	(48.3)	1.979
	여자	(232)	(48.8)	(394)	(48.6)	(530)	(51.7)	
전 교과 성취도 주관적 평가 ¹⁾		3.01	0.875	3.39	0.779	3.48	0.794	54.522*** (① < ②, ③)
학업성취 만족도 ²⁾		3.17	1.000	3.37	0.865	3.49	0.927	19.716*** (① < ② < ③)
학업열의 ³⁾	전체	2.22	0.500	2.47	0.468	2.56	0.497	81.273*** (① < ② < ③)
	헌신	2.59	0.612	2.83	0.535	2.88	0.586	45.153*** (① < ②, ③)
	활기	1.90	0.629	2.18	0.662	2.32	0.661	65.309*** (① < ② < ③)

구분		① 진학 무관심형 (n=475)		② 진학 관심형 (n=810)		③ 진로 관심형 (n=1,026)		χ^2/F
		m (n)	sd (%)	m (n)	sd (%)	m (n)	sd (%)	
	효능감	2.15	0.654	2.45	0.603	2.54	0.636	62.136*** (① < ② < ③)
	몰두	2.23	0.633	2.40	0.583	2.50	0.584	35.918*** (① < ② < ③)
삶 만족도 ³⁾		2.57	0.580	2.69	0.512	2.72	0.519	13.695*** (① < ②, ③)
자아존중감 ³⁾		2.54	0.250	2.58	0.289	2.56	0.259	2.654
주의집중 어려움 ³⁾		2.36	0.552	2.16	0.546	2.02	0.563	61.994*** (③ < ② < ①)
공격성 ³⁾		2.00	0.582	1.92	0.561	1.82	0.536	18.365*** (③ < ①, ②)
사회적 위축 ³⁾		2.28	0.742	2.12	0.651	1.95	0.644	43.123*** (③ < ② < ①)
우울 ³⁾		1.88	0.587	1.77	0.518	1.69	0.500	22.343*** (③ < ② < ①)
그릿 ³⁾		2.44	0.384	2.56	0.389	2.64	0.417	38.416*** (① < ② < ③)

주: 1) 응답 범위 '1=매우 못함 ~ 5=매우 잘함'

2) 응답 범위 '1=매우 불만족 ~ 5=매우 만족'

3) 응답 범위 '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

*p < .05, **p < .01, ***p < .001.

② 가정 특성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가정 특성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정의 객관적 경제 수준인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 구간이 세 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진학 무관심형은 상대적으로 저소득 구간 비율이 높은 데 비해 진로 관심형은 고소득 구간 비율이 높았으며,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 수준 역시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진로 관심형 평균 3.00, 진학 관심형 평균 2.98, 진학 무관심형 평균 2.87로 진로 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이 진학 무관심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부모의 양육 태도의 경우, 전체 평균은 진로 관심형 평균 3.05, 진학 관심형 평균 3.02, 진학 무관심형 평균 2.97로 진로 관심형이 진학 무관심형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부모 양육 태도의 세부 요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긍정적 양육태도인 따스함, 자율성 지지, 구조제공 모두 진학 무관심형이 다른 두 유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부정적 양육태도인 강요와 비밀관성에서 진학 무관심형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26.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가정 특성 변인 차이

구분			① 진학 무관심형 (n=475)		② 진학 관심형 (n=810)		③ 진로 관심형 (n=1,026)		x ² /F
			m (n)	sd (%)	m (n)	sd (%)	m (n)	sd (%)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2)	(6.7)	(15)	(1.9)	(23)	(2.2)	54.387***
	400만 원 미만		(119)	(25.1)	(128)	(15.8)	(175)	(17.1)	
	600만 원 미만		(178)	(37.5)	(357)	(44.1)	(413)	(40.3)	
	600만 원 이상		(146)	(30.7)	(310)	(38.3)	(414)	(40.4)	
주관적 가정의 경제 수준 ¹⁾			2.87	0.567	2.98	0.441	3.00	0.518	10.506*** (① < ②, ③)
부모의 양육태도 ²⁾	전체		2.97	0.433	3.02	0.407	3.05	0.414	5.697** (① < ③)
	긍정적 양육태도	따스함	3.15	0.589	3.23	0.512	3.21	0.560	3.560* (① < ②)
		자율성 지지	3.11	0.613	3.19	0.509	3.19	0.549	3.919* (① < ③)
		구조제공	2.89	0.525	3.00	0.496	3.00	0.507	8.727*** (① < ②, ③)
	부정적 양육태도 ³⁾	거부	3.14	0.623	3.08	0.671	3.14	0.601	2.133
		강요	2.72	0.607	2.78	0.611	2.85	0.583	8.196*** (① < ② < ③)
		비일관성	2.81	0.638	2.84	0.616	2.89	0.581	3.458* (-)

주: 1) 응답 범위 '1=최하 ~ 5=최상'
2) 응답 범위 '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
3) 긍정적 양육태도와의 합산을 위해 응답 역코딩하여 값이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태도가 낮은 것을 의미함.
*p < .05, **p < .01, ***p < .001.

③ 학교 특성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학교 특성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 소재지의 경우 진학 무관심형과 진로 관심형은 수도권 각 50.6%, 53.7%, 비수도권 각 49.4%, 46.3%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진학 관심형은 비수도권이 54.3%로 수도권 45.7%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의 도시규모의 경우, 진학 무관심형과 진로 관심형은 대도시 비율이 가장 높은 데 비해 진학 관심형은 중소도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 내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측면의 변인들을 살펴보면, 친구관계의 전체 평균은 진로 관심형 평균 3.10, 진학 관심형 평균 3.03, 진학 무관심형 평균 3.01로 진로 관심형이 진학 관심형과 진학 무관심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긍정적 친구관계는 진로 관심형, 진학 관심형, 진학 무관심형 순으로, 부정적 친구관계는 진학 무관심형, 진학 관심형, 진로 관심형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사관계의 경우, 전체 평균은 진로 관심형 평균 2.80, 진학 관심형 평균 2.77, 진학 무관심형 평균 2.64로 진로 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이 진학 무관심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세부 요인인 접근가능성, 민감성, 신뢰성, 수용성 역시 진로 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이 진학 무관심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7.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학교 특성 변인 차이

구분		① 진학 무관심형 (n=475)		② 진학 관심형 (n=810)		③ 진로 관심형 (n=1,026)		χ^2/F
		m (n)	sd (%)	m (n)	sd (%)	m (n)	sd (%)	
학교 소재지	수도권	(239)	(50.6)	(370)	(45.7)	(551)	(53.7)	11.518**
	비수도권	(233)	(49.4)	(439)	(54.3)	(475)	(46.3)	
학교 소재지 도시규모	읍면지역	(62)	(13.1)	(126)	(15.6)	(176)	(17.2)	13.567**
	중소도시	(191)	(40.5)	(371)	(45.9)	(401)	(39.1)	
	대도시	(219)	(46.4)	(312)	(38.6)	(449)	(43.8)	
친구관계 ¹⁾	전체	3.01	0.402	3.03	0.393	3.10	0.410	10.663*** (①, ② < ③)
	긍정적	2.96	0.501	2.99	0.452	3.06	0.455	8.823*** (①, ② < ③)
	부정적 ²⁾	3.07	0.544	3.11	0.571	3.16	0.588	4.588* (① < ③)

구분		① 진학 무관심형 (n=475)		② 진학 관심형 (n=810)		③ 진로 관심형 (n=1,026)		x ² /F
		m (n)	sd (%)	m (n)	sd (%)	m (n)	sd (%)	
교사관계 1)	전체	2.64	0.530	2.77	0.468	2.80	0.499	16.229*** (① < ②, ③)
	접근가능성	2.42	0.606	2.55	0.574	2.62	0.596	18.590*** (① < ②, ③)
	민감성	2.64	0.576	2.77	0.531	2.77	0.562	9.871*** (① < ②, ③)
	신뢰성	2.70	0.613	2.85	0.546	2.89	0.575	18.115*** (① < ②, ③)
	수용성	2.79	0.625	2.88	0.534	2.88	0.569	4.863** (① < ②, ③)

주: 1) 응답 범위 '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

2) 응답 역코딩

* $p < .05$, ** $p < .01$, *** $p < .001$.

④ 진로 특성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진로 특성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진학 무관심형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도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학 관심형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중요도를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진로생각 영역 중 희망직업 선택 요인¹²⁾의 경우, 개인적 차원의 요인은 쾌적한 환경과 동료와의 경쟁 낮음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진로 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이 진학 무관심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차원의 경우, 사회적 명예(위신)와 국가/사회 기여 모두 진로 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이 진학 무관심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진로적응력의 경우, 전체 평균은 진로 관심형 평균 2.81, 진학 무관심형 평균 2.51, 진학 관심형 평균 2.44로 진로 관심형이 진학 무관심형과 진학 관심형보다 진로적응력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진로적응력의 세부 요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진로관

12) 희망직업 선택 요인 12개 요인을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를 적용해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3번 반복 회전하여 요인회전이 수렴되었고, 사회적 차원(요인부하량 사회적 명예(위신) .832, 국가/사회 기여 .874)과 개인적 차원(요인부하량 안정성 .641, 수입(임금) .674, 소질과 적성 .732, 쾌적한 환경 .817, 시간적 여유 .829, 가족과의 시간 보장 .763, 어려울 일함 .671, 동료와의 경쟁 낮음 .728, 자율성 .793, 다양한 경험 .703)의 2개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남.

심의 경우, 진로 관심형 평균 2.89, 진학 무관심형 평균 2.59, 진학 관심형 평균 2.46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호기심의 경우 진로 관심형 평균 2.78, 진학 관심형 평균 2.45, 진학 무관심형 평균 2.44의 순으로 높았으며, 진로자신감은 진로 관심형 평균 2.79, 진학 무관심형 평균 2.52, 진학 관심형 평균 2.43의 순으로 높았고, 진로호기심과 진로자신감 모두 진로 관심형이 진학 무관심형과 진학 관심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8.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진로 특성 변인 차이(진로생각 영역)

구분			① 진학 무관심형 (n=475)		② 진학 관심형 (n=810)		③ 진로 관심형 (n=1,026)		x ² /F
			m	sd	m	sd	m	sd	
희망직업 선택 요인 ¹⁾	개인적 차원	안정성	2.99	0.756	3.20	0.755	3.14	0.679	13.638*** (① < ②, ③)
		수입(임금)	3.20	0.887	3.34	0.766	3.34	0.767	6.111** (① < ②, ③)
		소질과 적성	3.08	0.869	3.21	0.758	3.25	0.758	7.737*** (① < ②, ③)
		쾌적한 환경	3.11	0.841	3.20	0.728	3.21	0.731	3.005
		시간적 여유	3.06	0.846	3.20	0.751	3.16	0.767	5.195** (① < ②)
		가족과의 시간 보장	2.95	0.854	3.13	0.723	3.12	0.738	9.917*** (① < ②, ③)
		어울려 일함	2.90	0.851	3.03	0.743	3.06	0.729	7.270** (① < ②, ③)
		동료와의 경쟁 낮음	2.94	0.862	3.04	0.710	3.02	0.759	2.725
		자율성	3.01	0.873	3.11	0.739	3.13	0.736	3.661* (① < ③)
		다양한 경험	2.96	0.837	3.10	0.743	3.11	0.731	6.815** (① < ②, ③)
	사회적 차원	사회적 명예 (위신)	2.71	0.795	2.95	0.770	2.99	0.745	23.537*** (① < ②, ③)
		국가/사회 기여	2.63	0.800	2.85	0.763	2.86	0.801	16.498*** (① < ②, ③)

구분		① 진학 무관심형 (n=475)		② 진학 관심형 (n=810)		③ 진로 관심형 (n=1,026)		χ^2/F
		m	sd	m	sd	m	sd	
진로적응력 ²⁾	전체	2.51	0.593	2.44	0.510	2.81	0.560	111.419*** (①, ② < ③)
	진로관심	2.59	0.707	2.46	0.594	2.89	0.646	106.135*** (② < ① < ③)
	진로호기심	2.44	0.627	2.45	0.566	2.78	0.612	90.263*** (①, ② < ③)
	진로자신감	2.52	0.695	2.43	0.596	2.79	0.614	78.179*** (①, ② < ③)

주: 1) 응답 범위 '1=전혀 중요하지 않다 ~ 4=매우 중요하다'

2) 응답 범위 '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진로탐색 영역 중 진로 관련 대화 상대 및 빈도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모두 진로 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이 진학 무관심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진로 준비활동별 참여율은 '진로와 직업'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진로 관련 검사, 현장 견학, 현장 직업 체험, 진로 관련 책/잡지와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에서 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 중 진로 관련 책/잡지와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의 참여율은 진로 관심형이 다른 두 유형보다 높은 데 비해 그 외 활동의 참여율은 진학 무관심형이 다른 두 유형보다 높았다. 진로준비 활동의 도움 정도는 '진로와 직업'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진로 관련 상담, 현장 견학, 현장 직업 체험, 직업 실무 체험, 진로 관련 책/잡지,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에서 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진학 관심형이 진로 관심형과 진학 무관심형보다 상대적으로 도움 정도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29.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진로 특성 변인 차이(진로탐색 영역)

구분		① 진학 무관심형 (n=475)		② 진학 관심형 (n=810)		③ 진로 관심형 (n=1,026)		χ^2/F
		m (n)	sd (%)	m (n)	sd (%)	m (n)	sd (%)	
진로 관련 대화 상대 및 빈도 ¹⁾	아버지	2.78	0.932	3.01	0.819	3.02	0.778	14.907*** (① < ②, ③)
	어머니	3.17	0.864	3.42	0.739	3.42	0.699	20.843*** (① < ②, ③)
	형제·자매	2.48	1.153	2.87	1.007	2.75	1.021	18.385*** (① < ②, ③)
진로 준비 활동 참여 여부 ²⁾	'진로와 직업' 수업	(212)	(44.6)	(264)	(32.6)	(398)	(38.8)	19.196***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	(164)	(34.5)	(201)	(24.8)	(268)	(26.1)	15.695***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255)	(53.7)	(340)	(42.0)	(507)	(49.4)	18.669***
	진로 관련 상담	(135)	(28.4)	(168)	(20.7)	(280)	(27.3)	13.527**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74)	(15.6)	(103)	(12.7)	(134)	(13.1)	2.357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96)	(20.2)	(134)	(16.5)	(187)	(18.2)	2.764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61)	(12.8)	(89)	(11.0)	(123)	(12.0)	1.043
	학업 설계 워크숍	(19)	(4.0)	(33)	(4.1)	(52)	(5.1)	1.389
	현장 견학	(86)	(18.1)	(104)	(12.8)	(166)	(16.2)	7.221*
	현장 직업 체험	(78)	(16.4)	(86)	(10.6)	(141)	(13.7)	9.282*
	직업 실무 체험	(31)	(6.5)	(34)	(4.2)	(64)	(6.2)	4.587
	진로 캠프	(30)	(6.3)	(47)	(5.8)	(56)	(5.5)	0.446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	(27)	(5.7)	(32)	(4.0)	(49)	(4.8)	2.063
	직업박람회	(24)	(5.1)	(24)	(3.0)	(50)	(4.9)	5.039
	진로 관련 책/잡지	(71)	(14.9)	(78)	(9.6)	(212)	(20.7)	42.010***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126)	(26.5)	(142)	(17.5)	(310)	(30.2)	39.558***

구분		① 진학 무관심형 (n=475)		② 진학 관심형 (n=810)		③ 진로 관심형 (n=1,026)		x ² /F
		m (n)	sd (%)	m (n)	sd (%)	m (n)	sd (%)	
진로 준비 활동 도움 정도 ³⁾	'진로와 직업' 수업	2.98	0.895	3.22	0.841	3.42	0.930	17.369*** (① < ② < ③)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	3.00	0.879	3.24	0.913	3.42	0.828	11.803*** (① < ②, ③)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3.19	0.908	3.46	0.721	3.50	0.768	13.828*** (① < ②, ③)
	진로 관련 상담	3.33	0.953	3.36	0.843	3.51	0.767	3.107* (-)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3.24	0.991	3.30	0.979	3.64	0.817	6.146** (①, ② < ③)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2.94	0.938	3.13	1.022	3.33	0.942	5.340** (① < ③)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3.15	1.014	3.30	0.910	3.57	0.736	5.516** (① < ③)
	학업 설계 워크숍	3.32	1.003	3.24	0.902	3.37	0.687	0.226
	현장 견학	3.50	0.793	3.59	0.855	3.67	0.750	1.320
	현장 직업 체험	3.59	0.746	3.59	0.817	3.74	0.762	1.352
	직업 실무 체험	3.65	0.798	3.32	0.976	3.61	0.809	1.540
	진로 캠프	3.17	1.085	3.45	0.951	3.43	0.806	0.994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	3.44	1.188	3.53	0.915	3.63	0.755	0.375
	직업박람회	3.42	0.929	3.29	0.908	3.52	0.707	0.646
	진로 관련 책/잡지	3.18	0.867	3.37	0.870	3.48	0.800	3.494* (① < ③)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3.09	1.028	3.34	0.937	3.54	0.970	9.875*** (① < ③)	

주: 1) 응답 범위 '1=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 4=자주 대화한다'

2) 진로준비활동 참여 빈도 및 퍼센트

3) 진로준비활동 참여자 한정 분석 / 응답 범위 '1=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5=매우 도움이 되었다'

* $p < .05$, ** $p < .01$, *** $p < .001$.

진로경험 영역 중 직업/진로 관련 체험활동 참여 횟수의 경우, 진학 무관심형, 진로 관심형, 진학 관심형의 순으로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유형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진로 관련 체험활동 참여 만족도는 진로 관심형이 진학 관심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는 모든 유형에서 전혀 없다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상대적으로 진학 무관심형, 진학 관심형, 진로 관심형 순으로 한 번 이상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아르바이트 경험의 미래 직업생활 도움 정도의 경우, 진학 무관심형과 진로 관심형이 진학 관심형보다 높았으나 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IV-30.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진로 특성 변인 차이(진로경험 영역)

구분		① 진학 무관심형 (n=475)		② 진학 관심형 (n=810)		③ 진로 관심형 (n=1,026)		x ² /F
		m (n)	sd (%)	m (n)	sd (%)	m (n)	sd (%)	
직업/진로 관련 체험 활동 참여 횟수	없음	(291)	(61.3)	(603)	(74.4)	(726)	(70.8)	31.108***
	1~2회	(137)	(28.8)	(165)	(20.4)	(225)	(21.9)	
	3~4회	(33)	(6.9)	(35)	(4.3)	(48)	(4.7)	
	5회 이상	(14)	(2.9)	(7)	(0.9)	(27)	(2.6)	
직업/진로 관련 체험활동 참여 만족도 ¹⁾		3.05	0.598	2.93	0.502	3.08	0.625	4.603* (② < ③)
아르바이 트 경험 유무	전혀 없다	(461)	(97.1)	(796)	(98.3)	(1,015)	(98.9)	6.894*
	한 번 이상 있다	(14)	(2.9)	(14)	(1.7)	(11)	(1.1)	
아르바이트 경험의 미래 직업생활 도움 정도 ²⁾		3.00	1.038	2.71	1.204	3.00	1.000	0.308

주: 1) 직업/진로 관련 체험활동 참여자 한정 분석 / 응답 범위 '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4=매우 만족한다'
 2) 아르바이트 경험자 한정 분석 / 응답 범위 '1=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5=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p < .05, **p < .01, ***p < .001.

(2)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주요 특성

① 개인 특성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개인 특성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남자 비율이 진학 무관심형 59.8%, 진학 관심형 52.3%, 진로 관심형 52.2%로 여자 비율보다 높았고, 유형 간 성별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업 관련 변인들의 경우, 전 교과 성취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진로 관심형 평균 3.18, 진학 관심형 평균 3.16, 진학 무관심형 평균 2.79로 진로 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이 진학 무관심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학업성취 만족도는 진학 관심형 평균 3.13, 진로 관심형 평균 3.11, 진학 무관심형 평균 3.02로 나타났으며, 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학업열의의 경우, 전체 평균은 진로 관심형 평균 2.46, 진학 관심형 평균 2.42, 진학 무관심형 평균 2.14로 진로 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이 진학 무관심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학업열의의 세부 요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헌신, 활기, 효능감은 진로 관심형, 진학 관심형, 진학 무관심형의 순으로 높았으며, 몰두는 진로 관심형이 진학 관심형과 진학 무관심형보다 높았고, 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개인 심리 관련 변인들의 경우, 삶 만족도는 진로 관심형 평균 2.60, 진학 관심형 평균 2.50, 진학 무관심형 평균 2.43으로 진로 관심형이 진학 관심형과 진학 무관심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자아존중감은 진로 관심형 평균 2.55, 진학 무관심형 평균 2.54, 진학 관심형 평균 2.52의 순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는 진학 무관심형 평균 2.26, 진학 관심형 평균 2.14, 진로 관심형 평균 2.07로 진학 무관심형, 진학 관심형, 진로 관심형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공격성의 경우 진학 무관심형 평균 1.96, 진학 관심형 평균 1.93, 진로 관심형 평균 1.85로 진학 무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이 진로 관심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은 진학 무관심형 평균 2.28, 진로 관심형 평균 2.09, 진학 관심형 평균 2.07, 우울은 진학 무관심형 평균 1.90, 진로 관심형 평균 1.80, 진학 관심형 평균 1.76으로 사회적 위축과 우울 모두 진학 무관심형, 진로 관심형, 진학 관심형 순으로 높았으며, 진학 무관심형이 진로 관심형과 진학 관심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릿의 경우 진로 관심형 평균 2.56, 진학 관심형 평균 2.54, 진학 무관심형 평균 2.45로 나타났으며, 진로 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이 진학 무관심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31.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개인 특성 변인 차이

구분		① 진학 무관심형 (n=343)		② 진학 관심형 (n=583)		③ 진로 관심형 (n=1,326)		x ² /F
		m (n)	sd (%)	m (n)	sd (%)	m (n)	sd (%)	
성별	남자	(205)	(59.8)	(305)	(52.3)	(692)	(52.2)	6.646*
	여자	(138)	(40.2)	(278)	(47.7)	(634)	(47.8)	
전 교과 성취도 주관적 평가 ¹⁾		2.79	0.824	3.16	0.685	3.18	0.740	38.394*** (① < ②, ③)
학업성취 만족도 ²⁾		3.02	0.882	3.13	0.828	3.11	0.879	1.962
학업열의 ³⁾	전체	2.14	0.510	2.42	0.444	2.46	0.462	66.468*** (① < ②, ③)
	헌신	2.51	0.668	2.75	0.527	2.84	0.556	46.243*** (① < ② < ③)
	활기	1.91	0.638	2.22	0.632	2.23	0.650	35.168*** (① < ②, ③)
	효능감	2.00	0.619	2.31	0.538	2.34	0.591	48.092*** (① < ②, ③)
	몰두	2.14	0.642	2.41	0.527	2.44	0.559	39.471*** (① < ②, ③)
삶 만족도 ³⁾		2.43	0.580	2.50	0.475	2.60	0.501	19.399*** (①, ② < ③)
자아존중감 ³⁾		2.54	0.318	2.52	0.274	2.55	0.250	1.815
주의집중 어려움 ³⁾		2.26	0.526	2.14	0.560	2.07	0.537	18.108*** (③ < ② < ①)
공격성 ³⁾		1.96	0.585	1.93	0.567	1.85	0.546	7.249** (③ < ①, ②)
사회적 위축 ³⁾		2.28	0.728	2.07	0.622	2.09	0.648	13.323*** (②, ③ < ①)
우울 ³⁾		1.90	0.606	1.76	0.533	1.80	0.534	7.587** (②, ③ < ①)
그릿 ³⁾		2.45	0.346	2.54	0.360	2.56	0.379	11.986*** (① < ②, ③)

주: 1) 응답 범위 '1=매우 못함 ~ 5=매우 잘함'

2) 응답 범위 '1=매우 불만족 ~ 5=매우 만족'

3) 응답 범위 '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② 가정 특성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가정 특성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진학 무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은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 구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진로 관심형은 '600만 원 이상' 구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 수준은 진로 관심형과 진학 관심형 각 평균 2.95, 진학 무관심형 평균 2.85로 진로 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이 진학 무관심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부모의 양육 태도의 경우, 전체 평균은 진로 관심형 평균 3.04, 진학 관심형 평균 2.99, 진학 무관심형 평균 2.97로 진로 관심형이 진학 관심형과 진학 무관심형보다 부모의 양육 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 간 차이는 긍정적 양육태도인 구조제공과 부정적 양육태도인 거부, 강요, 비밀관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32.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가정 특성 변인 차이

구분		① 진학 무관심형 (n=343)		② 진학 관심형 (n=583)		③ 진로 관심형 (n=1,326)		x ² /F	
		m (n)	sd (%)	m (n)	sd (%)	m (n)	sd (%)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8)	(8.2)	(7)	(1.2)	(27)	(2.0)	80.673***	
	400만 원 미만	(99)	(28.9)	(137)	(23.5)	(289)	(21.8)		
	600만 원 미만	(129)	(37.7)	(271)	(46.5)	(495)	(37.3)		
	600만 원 이상	(86)	(25.1)	(168)	(28.8)	(515)	(38.8)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 ¹⁾		2.85	0.514	2.95	0.454	2.95	0.453	7.173** (① < ②, ③)	
부모의 양육태도 ²⁾	전체	2.97	0.427	2.99	0.395	3.04	0.405	6.857** (①, ② < ③)	
	긍정적 양육태도	따스함	3.09	0.630	3.12	0.511	3.16	0.529	2.664
		자율성 지지	3.08	0.592	3.11	0.492	3.13	0.554	0.933
		구조제공	2.84	0.610	2.95	0.456	2.92	0.501	4.911** (① < ②, ③)

구분			① 진학 무관심형 (n=343)		② 진학 관심형 (n=583)		③ 진로 관심형 (n=1,326)		χ^2/F
			m (n)	sd (%)	m (n)	sd (%)	m (n)	sd (%)	
	부정적 양육태도 3)	거부	3.11	0.662	3.05	0.614	3.15	0.577	5.917** (② < ③)
		강요	2.81	0.626	2.80	0.542	2.93	0.546	13.923*** (①, ② < ③)
		비일관성	2.87	0.611	2.88	0.591	2.97	0.569	6.423** (①, ② < ③)

주: 1) 응답 범위 '1=최하 ~ 5=최상'

2) 응답 범위 '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

3) 긍정적 양육태도와와의 합산을 위해 응답 역코딩하여 값이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태도가 낮은 것을 의미함.

* $p < .05$, ** $p < .01$, *** $p < .001$.

③ 학교 특성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학교 특성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 소재지의 경우 진로 관심형은 수도권 52.5%, 비수도권 47.5%로 수도권이 비수도권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진학 무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은 비수도권이 각 54.9%, 51.9%로 수도권 각 45.1%, 48.1%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의 도시 규모의 경우, 진학 관심형과 진로 관심형은 대도시 비율이 가장 높은 데 비해 진학 무관심형은 중소도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 내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측면의 변인들을 살펴보면, 친구관계의 전체 평균은 진로 관심형 평균 3.08, 진학 관심형 평균 3.04, 진학 무관심형 평균 3.01로 진로 관심형이 진학 무관심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진로 관심형은 진학 무관심형보다 긍정적인 친구관계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진학 관심형보다 부정적 친구관계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교사관계의 경우, 전체 평균은 진로 관심형 평균 2.77, 진학 관심형 평균 2.64, 진학 무관심형 평균 2.51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세부 요인인 접근가능성, 민감성, 신뢰성, 수용성 역시 진로 관심형이 진학 관심형과 진학 무관심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3.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학교 특성 변인 차이

구분		① 진학 무관심형 (n=343)		② 진학 관심형 (n=583)		③ 진로 관심형 (n=1,326)		χ^2/F
		m (n)	sd (%)	m (n)	sd (%)	m (n)	sd (%)	
학교 소재지	수도권	(151)	(45.1)	(279)	(48.1)	(691)	(52.5)	7.341*
	비수도권	(184)	(54.9)	(301)	(51.9)	(625)	(47.5)	
학교 소재지 도시규모	읍면지역	(57)	(17.0)	(77)	(13.3)	(215)	(16.3)	22.733***
	중소도시	(165)	(49.3)	(228)	(39.3)	(494)	(37.5)	
	대도시	(113)	(33.7)	(275)	(47.4)	(607)	(46.1)	
친구관계 1)	전체	3.01	0.428	3.04	0.385	3.08	0.399	5.918** (① < ③)
	긍정적	2.96	0.515	3.01	0.415	3.04	0.453	3.901* (① < ③)
	부정적 ²⁾	3.09	0.540	3.08	0.599	3.16	0.547	5.218** (② < ③)
교사관계 1)	전체	2.51	0.559	2.64	0.468	2.77	0.472	42.660*** (① < ② < ③)
	접근가능성	2.34	0.617	2.49	0.544	2.62	0.572	36.602*** (① < ② < ③)
	민감성	2.50	0.595	2.64	0.535	2.76	0.554	31.520*** (① < ② < ③)
	신뢰성	2.55	0.608	2.69	0.528	2.83	0.526	41.243*** (① < ② < ③)
	수용성	2.65	0.676	2.71	0.559	2.84	0.548	20.707*** (①, ② < ③)

주: 1) 응답 범위 '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

2) 응답 역코딩

* $p < .05$, ** $p < .01$, *** $p < .001$.

④ 진로 특성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진로 특성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로생각 영역 중 희망직업 선택 요인¹³⁾의 경우, 사회적 차원의 사회적 명예(위신)와 국가/사회 기여는 진학 관심형과 진로 관심형이 진학 무관심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개인적 차원의 요인은 소질과 적성, 동료와의 경쟁 낮음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진학 관심형이 진학 무관심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적응력의 경우, 전체 평균은 진로 관심형 평균 2.82, 진학 무관심형 평균 2.57, 진학 관심형 평균 2.47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적응력의 세부 요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진로관심은 진로 관심형 평균 2.84, 진학 무관심형 평균 2.62, 진학 관심형 평균 2.51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진로호기심의 경우 진로 관심형 평균 2.79, 진학 무관심형 평균 2.54, 진학 관심형 평균 2.50의 순으로, 진로자신감은 진로 관심형 평균 2.83, 진학 무관심형 평균 2.57, 진학 관심형 평균 2.41의 순으로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적응력의 경우, 전체 평균은 진로 관심형 평균 2.82, 진학 무관심형 평균 2.57, 진학 관심형 평균 2.47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적응력의 세부 요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진로관심은 진로 관심형 평균 2.84, 진학 무관심형 평균 2.62, 진학 관심형 평균 2.51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진로호기심의 경우 진로 관심형 평균 2.79, 진학 무관심형 평균 2.54, 진학 관심형 평균 2.50의 순으로, 진로자신감은 진로 관심형 평균 2.83, 진학 무관심형 평균 2.57, 진학 관심형 평균 2.41의 순으로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3) 희망직업 선택 요인 12개 요인을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를 적용해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3번 반복 회전하여 요인회전이 수렴되었고, 사회적 차원(요인부하량 사회적 명예(위신) .828, 국가/사회 기여 .866)과 개인적 차원(요인부하량 안정성 .623, 수입(임금) .691, 소질과 적성 .692, 쾌적한 환경 .801, 시간적 여유 .803, 가족과의 시간 보장 .730, 어려움 일함 .611, 동료와의 경쟁 낮음 .696, 자율성 .772, 다양한 경험 .729)의 2개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4.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진로 특성 변인 차이(진로생각 영역)

구분			① 진학 무관심형 (n=343)		② 진학 관심형 (n=583)		③ 진로 관심형 (n=1,326)		χ^2/F
			m	sd	m	sd	m	sd	
희망직업 선택 요인 ¹⁾	개인적 차원	안정성	3.06	0.770	3.21	0.672	3.12	0.755	4.942** (①, ③ < ②)
		수입(임금)	3.28	0.815	3.39	0.709	3.23	0.828	7.816*** (③ < ②)
		소질과 적성	3.15	0.774	3.19	0.734	3.18	0.797	0.230
		쾌적한 환경	3.17	0.802	3.25	0.666	3.13	0.802	4.515* (③ < ②)
		시간적 여유	3.12	0.780	3.23	0.701	3.09	0.806	6.973** (③ < ②)
		가족과의 시간 보장	3.06	0.818	3.18	0.676	3.04	0.794	7.201** (③ < ②)
		어울려 일함	2.94	0.783	3.11	0.682	2.96	0.778	9.843*** (①, ③ < ②)
		동료와의 경쟁 낮음	3.05	0.797	3.07	0.681	2.99	0.762	2.280
		자율성	3.13	0.791	3.22	0.668	3.06	0.737	9.258*** (③ < ②)
		다양한 경험	3.14	0.802	3.23	0.692	3.06	0.764	10.831*** (③ < ②)
	사회적 차원	사회적 명예 (위신)	2.65	0.772	2.99	0.743	2.92	0.800	21.384*** (① < ②, ③)
		국가/사회 기여	2.61	0.787	2.85	0.755	2.82	0.809	11.256*** (① < ②, ③)
진로적응력 ²⁾	전체		2.57	0.603	2.47	0.492	2.82	0.567	91.366*** (② < ① < ③)
	진로관심		2.62	0.687	2.51	0.581	2.84	0.657	60.489*** (①, ② < ③)
	진로호기심		2.54	0.628	2.50	0.551	2.79	0.604	59.658*** (①, ② < ③)
	진로자신감		2.57	0.688	2.41	0.584	2.83	0.618	100.356*** (② < ① < ③)

주: 1) 응답 범위 '1=전혀 중요하지 않다 ~ 4=매우 중요하다'

2) 응답 범위 '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진로탐색 영역 중 진로 관련 대화 상대 및 빈도의 경우, 모든 상대에서 진로 관심형과 진학 관심이 진학 무관심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진로준비활동별 참여율은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진로 관련 상담,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현장 직업 체험, 직업 실무 체험, 진로 관련 책/잡지와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에서 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 중 현장 직업 체험과 직업 실무 체험의 참여율은 진학 무관심형이 다른 두 유형보다 높은 데 비해 그 외 활동의 참여율은 진로 관심형이 다른 두 유형보다 높았다. 진로준비활동의 도움 정도는 ‘진로와 직업’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진로 관련 상담,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 진로 관련 책/잡지,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에서 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진학 관심이 진로 관심형과 진학 무관심형보다 상대적으로 도움 정도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35.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진로 특성 변인 차이(진로탐색 영역)

구분		① 진학 무관심형 (n=343)		② 진학 관심형 (n=583)		③ 진로 관심형 (n=1,326)		x ² /F
		m	sd	m	sd	m	sd	
진로 관련 대화 상대 및 빈도 ¹⁾	아버지	2.86	0.878	3.01	0.789	3.07	0.803	8.473*** (① < ②, ③)
	어머니	3.25	0.796	3.41	0.710	3.45	0.671	10.582*** (① < ②, ③)
	형제·자매	2.60	1.067	2.79	0.980	2.79	1.028	4.211* (① < ②, ③)
진로 준비 활동 참여 여부 ²⁾	‘진로와 직업’ 수업	(127)	(37.0)	(227)	(38.9)	(583)	(44.0)	7.713*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	(101)	(29.4)	(158)	(27.1)	(397)	(29.9)	1.600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182)	(53.1)	(273)	(46.8)	(746)	(56.3)	14.488**
	진로 관련 상담	(117)	(34.1)	(227)	(38.9)	(569)	(42.9)	9.596**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61)	(17.8)	(77)	(13.2)	(289)	(21.8)	19.799***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87)	(25.4)	(125)	(21.4)	(339)	(25.6)	3.904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67)	(19.5)	(96)	(16.5)	(323)	(24.4)	15.907***
학업 설계 워크숍		(25)	(7.3)	(30)	(5.1)	(83)	(6.3)	1.821

구분		① 진학 무관심형 (n=343)		② 진학 관심형 (n=583)		③ 진로 관심형 (n=1,326)		χ^2/F
		m	sd	m	sd	m	sd	
	현장 견학	(49)	(14.3)	(66)	(11.3)	(165)	(12.4)	1.744
	현장 직업 체험	(44)	(12.8)	(41)	(7.0)	(122)	(9.2)	8.690*
	직업 실무 체험	(28)	(8.2)	(7)	(1.2)	(56)	(4.2)	27.275***
	진로 캠프	(23)	(6.7)	(23)	(3.9)	(71)	(5.4)	3.507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	(35)	(10.2)	(59)	(10.1)	(149)	(11.2)	0.669
	직업박람회	(22)	(6.4)	(37)	(6.3)	(90)	(6.8)	0.154
	진로 관련 책/잡지	(54)	(15.7)	(67)	(11.5)	(307)	(23.2)	38.563***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95)	(27.7)	(134)	(23.0)	(476)	(35.9)	33.849***
진로 준비 활동 도움 정도 ³⁾	‘진로와 직업’ 수업	3.17	0.935	3.26	0.807	3.41	0.869	5.368** (① < ③)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	3.24	0.907	3.11	0.795	3.35	0.900	4.527* (② < ③)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3.33	0.893	3.47	0.743	3.49	0.774	3.050* (① < ③)
	진로 관련 상담	3.44	0.814	3.37	0.778	3.61	0.784	8.859*** (② < ③)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3.48	0.868	3.39	0.691	3.67	0.885	4.115* (② < ③)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3.02	1.045	2.68	0.997	3.45	1.026	27.229*** (①, ② < ③)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3.31	0.874	3.19	0.772	3.53	0.886	6.416** (② < ③)
	학업 설계 워크숍	3.28	0.891	3.43	0.774	3.47	0.874	0.473
	현장 견학	3.53	0.938	3.61	0.653	3.68	0.825	0.758
	현장 직업 체험	3.73	0.788	3.41	0.591	3.72	0.785	2.767
	직업 실무 체험	3.39	0.832	3.57	0.787	3.80	0.923	2.038
	진로 캠프	3.26	0.752	3.43	0.843	3.46	0.923	0.474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	3.29	0.987	3.44	0.749	3.82	0.855	7.923*** (①, ② < ③)
	직업박람회	3.32	1.086	3.41	0.762	3.58	0.764	1.197

구분		① 진학 무관심형 (n=343)		② 진학 관심형 (n=583)		③ 진로 관심형 (n=1,326)		χ^2/F
		m	sd	m	sd	m	sd	
	진로 관련 책/잡지	3.15	0.833	3.22	0.813	3.66	0.733	17.099*** (①, ② < ③)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3.36	0.862	3.38	0.744	3.69	0.786	12.739*** (①, ② < ③)

주: 1) 응답 범위 '1=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 4=자주 대화한다'

2) 진로준비활동 참여 빈도 및 퍼센트

3) 진로준비활동 참여자 한정 분석 / 응답 범위 '1=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5=매우 도움이 되었다'

* $p < .05$, ** $p < .01$, *** $p < .001$.

진로경험 영역 중 직업/진로 관련 체험활동은 진학 무관심형, 진로 관심형, 진학 관심형의 순으로 참여 횟수가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참여 만족도는 진로 관심형, 진학 무관심형, 진학 관심형 순으로 높았고, 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진학 무관심형, 진로 관심형, 진학 관심형의 순으로 한 번 이상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아르바이트 경험의 미래 직업생활 도움 정도는 진학 무관심형, 진로 관심형, 진학 관심형 순으로 높았고, 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36.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진로 특성 변인 차이(진로경험 영역)

구분		① 진학 무관심형 (n=343)		② 진학 관심형 (n=583)		③ 진로 관심형 (n=1,326)		χ^2/F
		m (n)	sd (%)	m (n)	sd (%)	m (n)	sd (%)	
직업/진로 관련 체험활동 참여 횟수	없음	(217)	(63.3)	(410)	(70.3)	(874)	(65.9)	17.247**
	1~2회	(88)	(25.7)	(134)	(23.0)	(308)	(23.2)	
	3~4회	(30)	(8.7)	(31)	(5.3)	(89)	(6.7)	
	5회 이상	(8)	(2.3)	(8)	(1.4)	(55)	(4.1)	
직업/진로 관련 체험활동 참여 만족도 ¹⁾		2.98	0.579	2.93	0.524	3.05	0.569	3.067* (-)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전혀 없다	(255)	(74.3)	(540)	(92.6)	(1,222)	(92.2)	100.393***
	한 번 이상 있다	(88)	(25.7)	(43)	(7.4)	(104)	(7.8)	
아르바이트 경험의 미래 직업생활 도움 정도 ²⁾		3.30	1.233	2.77	1.109	3.25	1.113	3.352* (-)

주: 1) 직업/진로 관련 체험활동 참여자 한정 분석 / 응답 범위 '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4=매우 만족한다'

2) 아르바이트 경험자 한정 분석 / 응답 범위 '1=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5=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p < .05$, ** $p < .01$, *** $p < .001$.

3) 청소년의 진로준비도 유형 영향요인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STATA의 MI 기능을 이용해 결측값의 다중대체를 실시한 후 이루어졌다. 먼저 진로 관심형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진로 관심형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해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 특성 중에서는 전 교과 성취도 주관적 평가, 학업열의, 주의집중 어려움, 사회적 위축이 진로준비도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교과 성취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0.723배로 낮았으며, 학업열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0.432배로 낮았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1.843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으로 위축되었다고 느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1.368배로,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1.322배로 높았다. 이외에 성별, 학업성취 만족도, 삶의 만족도, 공격성, 우울, 그릿은 잠재집단 유형에 영향요인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정 특성 측면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 부정적 양육태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1.392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특성의 경우, 친구관계와 교사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 소재지와 관련된 분석에서는 학교가 비수도권이 아닌 수도권에 위치해 있을 때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0.746배로,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0.682배로 낮았고, 학교 소재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0.840배로 낮았다. 수도권이고 지역 규모가 클수록 진로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 특성 중 진로 생각 영역의 경우, 개인적 차원은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차원의 직업선택요인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0.774배로 낮았다. 진로적응력이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0.496배로,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0.292배로 낮았다. 즉, 사회적

차원의 직업선택 요인이 높을수록, 진로적응력이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

진로 탐색 영역에서는 어머니와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가 많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0.816배로 낮았고, ‘진로와 직업’ 수업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0.691배로 낮았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1.463배로 높았다.

진로 경험 영역의 경우, 직업/진로 관련 체험활동 참여 횟수와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가 진로준비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진로 관련 체험활동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1.468배로 높았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을 때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2.791배로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업/진로 관련 체험활동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진로경험이 실제 학생들의 진로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험의 양보다는 질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IV-37.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 영향요인 분석 결과

구분		① 진학 무관심형 vs. ③ 진로 관심형		② 진학 관심형 vs. ③ 진로 관심형		
		RRR	S.E.	RRR	S.E.	
개인 특성	성별(ref.여성)		1.097	0.137	1.139	0.117
	전 교과 성취도 주관적 평가		0.723**	0.079	1.126	0.106
	학업성취 만족도		1.113	0.097	0.891	0.068
	학업열의		0.432***	0.074	0.767	0.111
	삶 만족도		0.988	0.140	0.997	0.120
	주의집중 어려움		1.843***	0.281	1.109	0.145
	공격성		0.818	0.130	0.943	0.133
	사회적 위축		1.368**	0.152	1.322**	0.126
	우울		1.018	0.165	0.948	0.134
	그릿		0.917	0.182	1.045	0.170
가정 특성	월평균 가구소득		0.938	0.032	0.987	0.028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		0.944	0.134	1.005	0.120
	부모의 양육태도	긍정적 양육태도	1.293	0.241	1.392*	0.222
		부정적 양육태도	1.130	0.173	1.063	0.133

구분				① 진학 무관심형 vs. ③ 진로 관심형		② 진학 관심형 vs. ③ 진로 관심형		
				RRR	S.E.	RRR	S.E.	
학교 특성	학교 소재지(ref.비수도권)			0.746*	0.096	0.682***	0.073	
	학교 소재 지역 규모			1.067	0.094	0.840*	0.060	
	친구관계			1.160	0.221	0.839	0.135	
	교사관계			0.905	0.140	1.051	0.140	
진로 특성	진로 생각	직업선택 요인	사회적 차원	0.774*	0.079	0.881	0.078	
			개인적 차원	0.987	0.116	1.194	0.127	
		진로적응력			0.496***	0.060	0.292***	0.031
	진로 탐색	아버지와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			1.051	0.097	1.032	0.080
		어머니와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			0.816*	0.081	1.083	0.095
		'진로와 직업' 수업 참여 여부			0.818	0.129	0.691**	0.093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 참여 여부			1.463*	0.241	1.230	0.178
	진로 경험	직업/진로 관련 체험활동 참여 횟수			1.427***	0.133	0.950	0.084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ref.없음)			2.767*	1.211	1.952	0.857
	상수				14.270*	16.365	9.554*	9.269
F-test				F(54, 9.4e+07) = 8.18***				

주: RRR=Relative-Risk Ratios

* $p < .05$, ** $p < .01$, *** $p < .001$.

진로 관심형을 기준 집단으로 설정해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 특성 중에서는 성별과 전 교과 성취도 주관적 평가, 학업성취 만족도, 학업열의, 삶 만족도,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그것이 진로준비도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영향에 주의집중 어려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달리, 고등학생의 경우 주의집중 어려움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대상 분석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은 성별, 학업성취 만족도, 삶 만족도, 공격성, 우울, 그것이 유의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일 때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1.325배로 높았다. 학업적 특성 측면에서는 전 교과 성취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0.669배로 낮았으며, 학업열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0.420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학업성취 만족도는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1.40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삶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0.591배로 낮았고, 공격성이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1.378배로 높았다. 또한 사회적으로 위축되었다고 느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1.319배로 높았으며, 우울하다고 느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0.654배로 낮았다. 이와 더불어,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1.585배로,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1.884배로 높았다.

가정 특성 측면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만 유의하게 나타났던 중학생 대상 분석 결과와 달리, 월평균 가구소득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가 진로준비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0.885배로,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0.917배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중학생의 결과와 같이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의 경우,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1.685배로 높고,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0.752배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 특성의 경우, 중학생 대상 분석결과와 같이 학교가 비수도권이 아닌 수도권에 위치해 있을 때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0.534배로,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0.660배로 낮았다. 다만 중학생 대상 분석결과와 달리, 학교 소재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1.208배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친구관계는 중학생 대상 분석결과와 같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교사 관계는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0.508배로,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0.454배로 낮았다.

진로 특성 중 진로 생각 영역의 경우, 중학생 대상 분석결과에서 유의하지 않은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달리, 개인적 차원의 직업선택요인을 추구할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1.556배로,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1.595배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학생 대상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차원의

직업선택요인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0.632배로 낮았고, 진로적응력이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0.509배로,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0.274배로 낮았다.

진로 탐색 영역에서는 중학생 대상 분석결과와 같이,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학생의 분석결과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던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 참여여부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진로와 직업’ 수업 참여 여부는 유의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진로와 직업’ 수업 참여 경험이 있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0.671배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진로 경험 영역의 경우, 중학생 대상 분석결과와 달리 직업/진로 관련 체험활동 참여 횟수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만이 진로준비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을 때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3.562배로 높았다.

표 IV-38.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 영향요인 분석 결과

구분				① 진로 무관심형 vs. ③ 진로 관심형		② 진학 관심형 vs. ③ 진로 관심형		
				RRR	S.E.	RRR	S.E.	
개인 특성	성별(ref.여성)			1.325*	0.185	0.975	0.107	
	전 교과 성취도 주관적 평가			0.669***	0.077	1.054	0.105	
	학업성취 만족도			1.402**	0.138	1.103	0.090	
	학업열의			0.420***	0.078	1.047	0.165	
	삶 만족도			0.823	0.128	0.591***	0.079	
	주의집중 어려움			1.302	0.220	1.036	0.144	
	공격성			1.031	0.183	1.378*	0.205	
	사회적 위축			1.319*	0.165	1.067	0.114	
	우울			0.876	0.153	0.654**	0.095	
	그릿			1.585*	0.366	1.884**	0.352	
가정 특성	월평균 가구소득			0.885**	0.034	0.917**	0.028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			1.135	0.181	1.271	0.171	
	부모의 양육태도	긍정적 양육태도		1.427	0.274	1.685**	0.275	
		부정적 양육태도		0.794	0.142	0.752*	0.109	
학교 특성	학교 소재지(ref.비수도권)			0.534***	0.078	0.660***	0.076	
	학교 소재 지역 규모			0.927	0.088	1.208*	0.095	
	친구관계			1.368	0.292	1.244	0.224	
	교사관계			0.508***	0.084	0.454***	0.063	
진로 특성	진로 생각	직업선택 요인	사회적 차원	0.632***	0.069	0.971	0.089	
			개인적 차원	1.556**	0.213	1.595***	0.192	
		진로적응력			0.509***	0.070	0.274***	0.032
	진로 탐색	아버지와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			0.882	0.086	0.939	0.078
		어머니와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			1.003	0.114	1.020	0.098
		'진로와 직업' 수업 참여 여부			0.671*	0.110	0.907	0.116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 참여 여부			1.048	0.193	1.202	0.180
	진로 경험	직업/진로 관련 체험활동 참여 횟수			1.111	0.108	0.965	0.086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ref.없음)			3.562***	0.671	0.824	0.176
상수				9.412	12.246	2.082	2.215	
F-test				F(54, 1.6e+07) = 8.51***				

주: RRR=Relative-Risk Ratios

* $p < .05$, ** $p < .01$, *** $p < .001$.

○———— 제5장 논의

- 1.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2. 정책 제언
- 3. 결론

1. 주요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준비도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교급별 코호트 분석과 시대별 코호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코호트 분석에서 진로준비도는 크게 진로 생각, 진로 탐색, 진로 경험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의 하위집단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청소년의 진로준비도 유형 및 관련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진로준비도의 주요변인을 선정하여 잠재 집단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개인, 가정, 학교, 진로요인들과의 차이 및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진로준비도 교급별 코호트 분석

(1) 진로 생각

진로준비도의 교급별 코호트 분석은 2022년 기준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진로 생각에서 희망교육수준을 측정한 교육포부는 중고등학생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79.6%)과 고등학생(77.2%)은 대부분 4년제 대학교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는 대학 진학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희망직업 결정 여부에서는 두 코호트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직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지 않은” 청소년은 중학생이 더 많았고, “대강 하고 싶은 직업”과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는 청소년은 고등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직업의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14) 제5장은 김윤희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평균 점수는 중학생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한 비율은 낮지만, 희망 직업을 결정한 경우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등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은 미래의 특정 희망직업을 위한 교육포부가 아니라, 중고등학교에 진학 중인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목표 수준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63.4%의 학생이 4년제 이상의 대학교 졸업을 기대하는 교육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통계청, 2023c). 특히,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연령으로, 진학에 집중하는 시기이다. 즉, 직업적으로 고려 중인 진로를 위한 동기가 아닌 “대학교 자체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 준비 청소년들이 많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교급별 차이 분석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미결정 응답의 빈도를 살펴보면, 교육 포부는 전체의 중학생의 17.4%, 고등학생의 경우 11.7%이며, 희망직업이 없거나, 있어도 달성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생 47.4%, 고등학생 33.7%로 적지 않은 비율을 나타냈다. “잘 모르겠음”에 해당하는 상태(희망 교육 수준과 장래 희망 직업을 미결정한 상태, 직업을 결정하였어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는 청소년 시기 학업 성취 및 동기와의 큰 관계가 있어 결측치와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분석(연구문제 2-1)에 미결정 응답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희망직업 선택요인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항목과 전체 평균값 비교한 결과, 중고등학생 코호트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평균값을 살펴보았을 때,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 것은 “수입(임금)”이었고, 다음으로는 “소질과 적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기대하는 목적에 대해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62.4%, “능력과 소질 개발”이 28.0%으로 나타난 통계청(통계청 (2022.11.16.c)의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직업을 갖는 것은 경제활동을 위한 목적의 비중이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의 직업 만족과 행복감을 위해서는 다른 선택요인들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두 집단 모두 개인적 차원의 모든 영역이 사회적 영역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중학생과 청소년이 희망직업을 선택하는 요인에서 개인적 차원을 사회적 차원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적응력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모든 영역과 전체 점수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장래의 희망 직업 결정 여부에서 더 많은 고등학생이 선택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진로에 대한 관심, 호기심, 그리고 자신감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적으로,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은 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 생각에 대한 수준도 함께 올라간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첫째,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보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의사결정해야 하는 시기와의 시간적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이거나, 둘째, 학교 진로교육을 통해 계속해서 진로역량이 개발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진로 탐색

중고등학생 모두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순으로 대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다음으로 학원/과외선생님, 학교선생님 순으로 대화하였고, 고등학생은 가족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과 학원/과외 선생님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화 하였다. 상담교사 및 친척친지와는 두 집단 모두 대화하지 않는 수준에 해당하였다. 집단 간의 차이에서는 고등학생이 아버지, 어머니, 상담교사, 학원/과외 선생님과 대화 빈도가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활동에 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검사에 대한 참여 경험이가장 많았고, 현장 직업 체험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경험의 빈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활동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유경험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현장 견학, 현장 직업 체험, 직업 실무 체험, 진로 캠프 제외). 참여의 도움 정도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 활동은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 관련 상담,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진로 관련 책/잡지,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였으며, 모두 고등학생에게 도움이 더 많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더 높은 교급으로 이동하면서, 진로 탐색에 관한 빈도와 강도가 점차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 탐색 영역인 진로 관련 대화 빈도와 진로준비 활동에서 모두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더 많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고등학생일수록 진학 및 직업 선택에 대한 시간적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이에 대한 고찰이 깊어지는 점도 있으나, 현재 진로교육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모두 이루어져 고등학생들의 경험이 중학생보다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3) 진로 경험

진로 경험은 직업/진로 관련 체험활동과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및 도움 정도에 대해 측정하였다. 직업/진로 체험활동 참여 경험은 고등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중학생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교 때 경험하였던 내용을 반복하는 등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차별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을 포함한다. 중학생의 경우, 직업/진로에 관해 아직 미결정이 많은 수와 대비하여 볼 때, 체험활동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은 추후 진로 미결정 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체험활동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진로에 대한 생각을 유도하는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등학생에게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여경험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중학생의 참여 경험은 매우 낮았으며,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르바이트가 미래 직업 생활에 도움이 될 것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험자의 수가 매우 낮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비교수치는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아르바이트 경험 동기(예, 기초생활비용을 위한 일)나, 일의 종류 등 개인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진로준비도 시대별 코호트 분석

(1) 진로 생각

진로준비도의 시대별 분석은 2006년(KYPS 2003)과 2022년(KCYPs 2018)기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로 생각은 청소년의 교육포부 수준, 장래희망 직업 여부, 직업달성포부, 희망직업 선택요인, 진로적응력으로 구성하였으나, 시대별 코호트 분석에서는 두 패널에서 공통적으로 조사된 항목인 교육포부 수준, 장래 직업 결정 여부, 희망직업 선택요인만을 분석하였다.

먼저, 평균적인 교육포부 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수준별로 응답자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2-3년제 전문대학 졸업과 대학원 이상을 희망하는 비율은 2006년의 고등학생이 2022년의 고등학생보다 더 많았고,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2022년의 고등학생 더 많았다. 이는 과거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진학

선택지가 ‘4년제 대학’으로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코호트 분석에서는 교육포부 평균 수준을 결정한 청소년의 수준을 비교하고자, “잘 모르겠음”은 차이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응답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잘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에서 각각 0.7%와 11.7%로, 2022년도의 고등학생 중 희망 교육 수준을 미결정한 청소년이 과거에 비해 더 늘어났다.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는 2006년의 고등학생이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22년 기준으로 볼 때, “아직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고등학생이 증가한 반면,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고등학생의 비율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2006년에 비해 희망하는 교육수준은 높아졌으나,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 결정을 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22년 고등학생의 높은 교육포부가 장래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의 결과보다는 학력주의에 따른 막연한 희망 정도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희망직업에 대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응답은 전반적으로 2022년 고등학생에게서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 희망 직업을 “대강” 또는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청소년은 2006년 고등학생의 경우, “보통이다” 이상의 평균 응답을 나타낸 반면, 2022년의 고등학생의 경우, “그런 편이다”에 가까운 점수로 희망 직업 달성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편에 속하였다.

희망직업 선택요인은 두 코호트가 동일하지 않은 조사문항과 다른 응답 범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두 코호트의 차이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에 유의하여, 시대에 따른 경향성을 확인해보았다. 분석 결과 개인적 차원에서 비교한 요인인 “안정성, 수입(임금), 소질과 적성, 쾌적한 환경, 시간적 여유, 어울려 일함, 다양한 경험” 중 “어울려 일함”을 제외하고 2022년의 고등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2022년의 조사에서 “보통이다”의 응답범주가 없어, 긍정의 응답인 “중요한 편이다”의 응답 비율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적용하여도, “어울려 일함”은 2006년 고등학생이 2022년의 고등학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즉, 희망직업 선택에서 어울려 일함의 중요성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감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집단 내에서 희망직업 선택 요인의 응답을 통해 청소년들의 직업가치에 대해 비교해보면, 2022년의 고등학생은 수입(임금), 소질과 적성, 쾌적한 환경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6

년의 고등학생은 어울려 일함, 소질과 적성, 국가/사회 기여 순으로 나타났다. 낮은 점수가 나타난 희망직업 선택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2022년 고등학생은 국가/사회 기여, 어울려 일함 순이었고, 2006년 고등학생은 시간적 여유, 다양한 경험 순이었다. 즉, 희망직업을 선택하는데 각 요인의 중요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변화한 결과를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등학생에게 미래 희망 직업을 선택하는데 수입(임금)과 소질과 적성과 같이 외재적 직업 가치나 본인의 행복에 집중된 요인들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가나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나 어울려 일하는 것과 같이 직업의 내재적 가치 또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2) 진로 탐색

진로 탐색에서 진로 관련 대화 상대 및 빈도 또한, 두 코호트 간에 설문 문항에 포함된 진로 관련 대화 상대가 다르게 측정되었기 때문에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이에 평균값을 환산한 결과 해석에 유의하였으며, 각 항목의 차이값보다 응답 비율 및 경향성에 대해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2022년 고등학생은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도 조사되지는 않았으나, 어머니와의 대화빈도가 더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이다”의 응답 범주를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대화한다”의 비율은 총 84.4%로 환산된다. 2022년의 자료는 아버지와 대화는 76.9%, 어머니와의 대화는 90.4%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합하여 평균으로 본다면, 대화의 빈도가 크게 낮아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자주 대화한다”의 응답값을 보았을 때, 2006년과 비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대화 빈도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가 과거에 비해 자녀 양육에 더욱 참여하고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도가 높아진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진로준비활동의 참여 유무나 도움 정도의 경우, 비교가 가능한 7가지의 항목에 대해 비교하였다. 진로준비활동에서 2006년과 2022년 모두 진로 심리검사 및 적성 검사에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유무의 비율은 네 가지 가지 활동(진로 심리검사 및 적성 검사, 진로 관련 상담,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현장 직업 체험) 부분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진로 관련 상담,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은 과거에 비해 도움이 된 정도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만이 유의하게 높았다.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2b), 해당 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진로심리검사가 타 진로교육활동에 비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이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심리 검사 및 적성검사에 대한 지속적인 시행 및 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주었다. 한편,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의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직업 실무 체험과 진로 관련 책/잡지의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 결과를 보였다. 직업 실무 체험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무 체험 비중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책/잡지의 비율은 최근 미디어 및 온라인 도구의 활성화로 인해 참여 비중이 현격히 감소하였을 수 있다. 또한, 참여 경험의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현장직업 체험과 직업실무 체험은 도움 정도가 두 코호트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장직업 체험과 직업실무 체험의 도움 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활동 경험의 기회가 확대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도움 정도를 면밀히 살피고 도움이 되는 활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진로 경험

진로 경험은 직업/진로 관련 체험활동이 KYPs 2003에서는 조사되지 않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및 도움 정도에 대해서만 비교하였다. 아르바이트는 2006년의 고등학생이 2022년 고등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험자들에게 미래직업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2022년 고등학생에게서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는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졌던 시기로 회고된다. 2000년대 이전에는 아르바이트 대상자를 대학생 중심으로 보았고,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를 학업에 몰입하지 않는 일탈 행위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문성호, 2003; 박창남, 2006). 2022년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는 2013년에 19.8%, 2018년 17.5%의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에 반해, 2021년에는 8.3%, 2022년에는 11.2%로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대폭 하락하였다가 최근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김영지, 최홍일, 2022). 본 연구 결과에서도 과거에 비해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는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줄어들었다. 한편, 2000년대는 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입의 속도에 비해, 청소년이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이나 권리에 대해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한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이 87.1%, 약속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청소년이 84.5%, 기준 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거나 심야 노동을 강요당한 청소년이 84.0%인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최근에도 여전히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만, 2006년과 비교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이 32.9%,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경우가 12%, 그리고 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14.3%(김영지, 최홍일, 2022)로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 추세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근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르바이트가 청소년의 진로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교육포부 및 직업달성 포부에 따른 진로준비도 유형화

다음으로 KCYPs 2018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중에서 대표 요인으로 꼽히는 희망 교육 수준(교육포부),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 및 달성 가능성 인식(직업달성포부)을 통해 잠재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유형에 따른 특징 차이와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준비도 유형화 결과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은 모두 비슷한 양상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유형(진학 무관심형)은 향후 목표하는 학업 수준을 결정하지 않았고, 하고 싶은 직업은 정했으나 희망 직업을 얻을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 유형(진학 관심형)의 경우, 교육포부 수준은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모두 4년제 대학 졸업을 평균적으로 희망하고 있었으나, 장래 직업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희망 직업을 얻을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였다. 마지막 유형(진로 관심형)은 가장 긍정적인 형태로, 4년제 대학교 졸업에 대한 포부가 있으며, 결정한 미래 희망직업에 대해서도 달성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각 집단을 구성하는 비율은 중학생의 경우, 진학 무관심형 20.6%, 진학 관심형 35.0%, 진로 관심형이 44.4%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진학 무관심형 15.2%, 진학 관심형 25.9%, 진로 관심형이 58.9%로 나타났다. 이는 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진학 무관심형이나 진학 관심형의 비율이 줄고, 진로 관심형이 늘어난 형태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58.9% 이외에는 진로결심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이와 같은 유형은 대학 진학에 성공하더라도, 진로를 미결정한 유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전공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진로 및 적성, 희망직업을 탐색하면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즉, 장래 희망 직업에 대한 목표나 동기가 없다면, 대학생활안에서의 좋은 성취를 이루거나 긍정적인 동기를 갖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진학 무관심형 청소년의 경우, 이후 니트족¹⁵⁾으로 전락할 우려도 동반된다. 따라서, 초기부터 청소년들이 체계적 진로 준비를 도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청소년 후기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진로교육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 진로준비도 유형별 주요 특성 - 중학생

진로준비도 유형별 주요 특성은 개인, 가정, 학교, 그리고 진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진로 영역은 진로준비도의 진로 생각, 진로 탐색, 진로 경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진로준비도 유형별 개인, 가정, 학교 특성

첫째, 중학생의 개인 특성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교육포부와 직업달성 포부가 높았던 진로관심형은 학업성취 만족도나, 학업 열의와 같은 학교 관련 개인 특성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의 학업 관련 적응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하였다. 사회정서 발달에 속하는 그릿 역시 가장 높은 편이었으며, 주의집중 어려움,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과 같은 부정적 사회정서 발달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학 무관심형은 진로 관심형과는 반대로, 학교에서의 교과 성취도 주관적 평가나 학업 성취 만족도, 그리고 학업 열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주의집중이 어렵고, 공격적 성향, 사회적 위축 및 우울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삶의 만족도 수준이나 그릿 수준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개인의 요인들이 중학생의 희망 교육 수준이나 장래 희망 직업에 대한 포부와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따라서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사회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며, 학업 성취 및 학업 열의를 위한 지원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가정 특성의 차이에서도, 진로관심형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진학 무관심형이

15) 니트족(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무직 상태이면서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도, 혹은 그 외 학문을 공부하고 있지도 않는 이들(위키백과, 2023. 10. 20. 발췌)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가정의 객관적 경제 수준인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진학 무관심형은 상대적으로 저소득 구간 비율이 높은 데 비해 진로 관심형은 고소득 구간 비율이 높았으며,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 수준에서도 전반적으로 진학 무관심형이 가장 낮은 경제 수준을 보이는 반면, 진학 관심형과 진로 관심형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도 진로 관심형이 진학 무관심형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부 요인을 살펴볼 때, 진학 무관심형의 중학생이 부모의 따스함, 자율성 지지, 구조제공의 양육태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한편, 강요와 비밀관성과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는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가족의 경제적인 수준이나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진로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소득층이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이 진로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중학생의 학교 특성의 차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진로 관심형과 진로 무관심형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은 비율이었고, 진학 관심형은 비수도권의 비율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의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서도 진학 무관심형과 진로 관심형은 대도시 비율이 가장 높은 데 비해 진학 관심형은 중소도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 유형별 분포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진로 관심형과 진로 무관심형 모두 대도시의 형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진학 관심형은 중소도시에 높은 비율이 분포해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긍정적인 집단 형태가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학교 내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친구와 교사 모두 진로 관심형이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진학 무관심형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진학 관심형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는 진학 무관심형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교사와의 관계는 진로 관심형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교사와의 원만한 관계는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및 학업성취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특징(Furrer, Skinner, & Pitzer, 2014)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는 진학에만 깊은 관심이 있는 청소년에게 진학이나 교육 수준에 대한 중요성 이외에도 직업과 같은 진로 탐색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교육하고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진로준비도 유형별 진로 특성

① 진로 생각

첫째, 중학생의 희망직업 선택 요인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모두 진로 관심형이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요인은 가족과의 시간 보장, 어울려 일함, 자율성, 다양한 경험을 세 집단 중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진학 무관심형과 비슷하지만, 진학 무관심형보다 높은 수준이었던 요인은 개인적 차원의 안정성, 수입(임금), 소질과 적성과 사회적 차원의 사회적 명예(위신), 국가/사회 기여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진학 무관심형의 경우, 희망직업에 대해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진학 무관심형은 희망직업을 결정하였어도, 달성 가능성을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특징을 고려해볼 때, 희망직업결정에 있어 직업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희망 직업 선택시 어떠한 직업 가치를 갖고 결정해야 하는지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즉, 청소년들이 직업 가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며 본인이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진로를 탐색하고 경험한다면, 희망직업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음에서 높음으로 점차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진학 관심형의 중학생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아직 직업을 결정하지 못했으나, 희망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할지 분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진학에는 관심이 있지만 희망직업에 대해 미결정을 한 청소년의 경우, 희망 직업을 구체화하도록 돕고, 이를 학업 동기로 연계시켜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희망직업 선택요인의 평균값을 집단 내에서 요인별 우선순위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진로 준비도 세 유형 모두, “수입(임금)”을 희망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수입(임금)에 대한 중요성 인식의 정도는 각 집단의 두 번째로 높았던 요인들과의 값 차이가 적지 않은 수준이었고, 사회적 요인(사회적 명예, 국가/사회 기여)에 관해서는 세 유형 모두 개인적 차원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학생들이 직업의 선택 요인에 있어 경제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반면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직업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보다 다양한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진로적응력에서도 진로 관심형이 모든 하위영역과 전체 점수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영역에 따라 진학 무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은 혼재된 결과를 나타냈다. 전체 점수와 진로 호기심, 진로 자신감 영역은 두 유형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진로 관심”의 경우, 진학 관심형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진로 관심”의 문항을 살펴보면, “미래의 직업에 대한 관심”, “나는 내가 바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 “끌리는 일에 대한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항은 진학 관심형의 경우, 미래 희망직업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 특징을 그대로 설명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진로 관심”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진로 호기심과 진로 자신감 결과를 볼 때, 진학 무관심형 중학생은 미래 희망 직업을 생각해보았어도, 진학 관심형과 다르지 않게,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달성하기 위한 요건을 탐색하거나 직업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진로 자신감이 낮은 특징은 직업달성 포부가 높지 않은 특징과도 연결되는 결과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희망 직업에 대해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 포부가 없거나 낮은 경우와 진학에 대한 희망 수준이 높아도 장래 희망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진로적응력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에게 진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진학과 직업 선택에 대해 고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해당 직업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적절할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② 진로 탐색

첫째, 진로 탐색 영역 중 진로 관련 대화 상대 및 빈도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모두 진로 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이 진학 무관심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진로 관련 대화의 빈도에서 진학 관심형과 진로 관심형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데이터에서는 진로 관련 대화의 주제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대화 빈도가 높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정서적 지지 및 동기 차원에서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진로 관련 대화에 있어, 학업이나 진학에 관한 대화 주제만이 주를 이룬다면 진학 관심형에 속하는 청소년의 경우 진학에만 관심을 갖는 특징이 강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학업성취나

진학 이외에도 장래의 희망 직업에 관한 대화를 균형적으로 나누어 진로를 탐색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학 무관심형의 경우, 두 유형에 비해,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와의 대화가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이러한 유형의 청소년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직업이 있어도, 가족과의 대화가 부족하였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희망하는 교육 수준 및 학업 성취에 관한 대화는 물론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대화를 통해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진로준비활동별 참여율은 일부분 차이가 있었다. ‘진로와 직업’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진로 관련 검사, 현장 견학, 현장 직업 체험은 진학 무관심형이 다른 두 유형보다 높았고, 진로 관련 책/잡지와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의 참여율은 진로 관심형이 다른 두 유형보다 높았다. 그러나, 진로 준비 활동이 도움이 되는 정도는 참여율의 순서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도움이 된 정도는 대체적으로 진로 관심형이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수준이 가장 높았고, 반대로, 진학 무관심형은 도움이 된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진로와 직업’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진로 관련 상담, 현장 견학, 현장 직업 체험, 직업 실무 체험, 진로 관련 책/잡지,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로준비활동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단순히 청소년들을 다양한 진로준비활동에 노출시키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화된 진로준비활동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③ 진로 경험

첫째, 직업/진로 관련 체험활동 참여는 진학 무관심형, 진로 관심형, 진학 관심형의 순으로 참여 횟수가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직업/진로 관련 체험활동에 진로 관심형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진학 관심형이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 무관심형의 경우, 직업/진로 관련 체험 활동 횟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직업/진로 관련 체험이 진학 무관심형 청소년들의 미래 희망 직업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고, 희망 직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와 같은 체험에 참여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체험활동에 대해 청소년들이 만족하는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체험활동을 경험함에 따라 직업달성의 포부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

을 것이다. 즉, 체험활동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희망 직업 결정과 동시에 달성 가능성을 낮게 인지하였어도 체험활동에 대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와 같은 체험 활동의 참여는 진학 무관심형 청소년들의 직업달성포부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희망 교육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적절한 교육포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진학 관심형의 경우, 희망직업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활동에 대한 동기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참여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된다. 체험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만족도의 경우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희망직업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장래 희망 직업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진학 무관심형은 진학 관심형과 비교할 때, 직업달성 포부에 대한 평균값에 있어서 장래 직업에 대해 결정하였으나 낮은 가능성의 점수의 특징을 갖는데, 직업에 대한 관심이 이와 같은 참여 및 도움 정도를 더 높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는 세 가지 유형의 중학생 모두 전반적으로 경험이 전혀 없는 비율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집단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진학 무관심형, 진학 관심형, 진로 관심형의 순으로 한 번 이상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의 미래 직업생활 도움 정도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험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미래 직업 생활의 도움 정도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결과 및 각 유형의 특성에 따른 차이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5) 진로준비도 유형별 주요 특성 - 고등학생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주요 특성은 개인, 가정, 학교, 그리고 진로 영역의 진로 생각, 진로 탐색, 진로 경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의 부분에서는 중학생의 결과와 비교하여 함께 살펴보았다.

(1) 진로준비도 유형별 개인, 가정, 학교 특성

첫째,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개인 특성 변인차이는 진로 관심형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 교과 성취도 주관적 평가, 학업성취 만족도, 학업열의(헌신, 활기, 효능감, 몰두), 사회적 위축, 우울, 그릇은 진학 관심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

다. 중학생의 결과에서는 진학 관심형이 진로 관심형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생의 유형은 큰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특성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에서 진학 무관심형이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중학생의 결과와 일치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고등학생도 진로관심형의 개인적 특성은 가장 우수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진학 무관심형이 개인 특성이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므로, 고등학생 또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시사한다. 진학 무관심형의 고등학생들이 희망 교육 수준에 대한 관심이 없는 특징은 학업성취 만족이나 학업 열의와 같은 학교에서의 학업적응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반대로, 구체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수가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청소년들이 학업적인 적응을 하도록 집중적인 개입을 제공하고, 희망 교육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정서적인 측면이 학업과 큰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미래의 교육 수준이나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청소년들의 정서상태를 살피고 이를 위한 심리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둘째,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별 가정 특성의 변인 또한 중학생과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 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은 가정의 경제 수준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따뜻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는 진로 관심형이 가장 낮고, 진학 무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에게서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위주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다. 따라서, 고등학생은 교급 특성상 대학 입시 준비 시기에 가깝기 때문에, 진학에만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의 부모, 학업에 관심이 없는 부모는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급이 올라갈수록 “교육포부”와 “직업달성포부”에 대한 균형적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대입 입시” 이외에 직업적인 탐색과 목표 설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특성 결과, 진로 관심형은 수도권 학교 소재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았으며, 진학 무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은 모두 비수도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의 도시 규모로 살펴보면, 진학 관심형은 대도시의 비율이 높았고, 진학 무관심형은 중소도시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희망 교육 수준과 희망 직업에 대해서도 고찰하는

경향의 고등학생은 수도권 및 대도시 학교 소재지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미래의 희망직업 보다는 교육 수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고등학생의 경우, 비수도권 및 대도시에서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희망 교육 수준에 대해서는 고려해보지 않았으나, 미래에 되고 싶은 직업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유형은 비수도권이 나 중소도시의 학교에 재학 중인 비율이 높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고등학생은 대학 진학 및 취업에 가까워지는 연령이기 때문에 진로교육을 위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 더욱 필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넷째, 친구관계와 교사관계에 관한 학교 특성 변인 결과에서도 진로관심형이 세 유형 중 대인관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와 전체 점수는 진학 무관심형이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친구와의 부정적 친구관계는 진학 관심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중학생의 결과처럼 진학 관심형이 진학 무관심형보다는 접근가능성, 민감성, 신뢰성 측면에서 더 좋은 수준을 나타내었는데, 전반적으로 진로 관심형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와의 관계에서 희망 교육의 수준을 정하였거나 그 수준이 높을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혹은 반대로, 교사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진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교사는 청소년의 교육포부 수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진로준비도 유형별 진로 특성

① 진로 생각

첫째, 고등학생의 희망직업 선택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진학 관심형”이 “진로 관심형”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의 결과에서, 두 유형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와 차이가 있다. 특히, 특성 차이에서 전반적으로 “진로 관심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던 경향성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중학생의 경우, 개인적 차원의 희망직업 선택 요인에서 안정성, 수입(임금), 소질적성, 가족과의 시간 보장, 어울려 일함, 자율성, 다양한 경험에서 진학 관심형은 진로 관심형과 유사한 수준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는 진학 무관심형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결과에서는 진로 관심형이 안정성, 수입(임금), 쾌적한 환경, 시간적 여유, 어울려 일함, 자율성, 다양한

경험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수준이 가장 높았다. 특히, “수입(임금), 쾌적한 환경, 시간적 여유, 가족과의 시간 보장, 자율성, 다양한 경험은” 진로 관심형이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사회적 차원” 사회적 명예(위신), 국가/사회 기여에 대해서는 진로 관심형과 진학 관심형 두 집단이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진로 무관심형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진학 관심형이 진로 관심형보다 개인적 차원에서 각 요인의 중요도가 더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수집된 자료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진학 관심형은 미래 희망직업에 대한 결정 전이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치나 중요도에 대한 분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모두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진로 관심형의 경우, 선택요인의 수준에 있어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Ginzberg(1971)의 진로발달 단계로 각 유형에 따른 희망 직업 선택을 해석해보면, 진학 관심형은 모든 직업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희망직업을 선택하지 않은 유형이라는 점에서 직업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의 증점 사항들이 아직 분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현실적인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다기보다, 직업 선택 시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이나 직업 선호에 대해 아직 평가하는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진로 관심형은 교육포부와 직업달성포부가 동일한 수준으로 발달하였다는 점에서 직업 선택에 있어, 현실적으로 요인들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진로 적응력의 경우, 중학생과 일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각 집단에서 전체 점수와 하위영역이 모두 진로 관심형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진로 호기심은 진학 무관심형과 진학 관심형 간 차이는 없었으며, 진로 관심과 진로 자신감에서 중학생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진로 관심의 경우, “진학 관심형”은 중학생 결과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진학 무관심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평균 점수를 보았을 때, 여전히 진로에 대한 관심은 세 집단 중에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여러 가지 희망직업 선택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진로에 대한 관심이 그에 상응하여 점수가 높지 않은 점은 역설적인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학 관심형”의 경우, 구체적인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고민없이 단순히 진학만을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앞서 기술한 바와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 가지 희망직업 선택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진로나 희망 직업과 연계해서 고려한 것이 아니라, 아직 희망 직업이 명확하지

않아 막연하게 모든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진로 자신감 부분도 고등학생의 진학 관심형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중학생의 결과에서도 통계적 유의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평균값을 기준으로 볼 때, “진학 관심형”이 세 집단 중 진로 적응력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즉, 교육포부만 높은 고등학생은 진로 적응력이 낮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포부뿐만 아니라 희망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달성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학업이나 진학 이외에 청소년들이 직업적으로 다양한 생각 및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② 진로 탐색

첫째, 진로 탐색 영역 중 진로 관련 대화 상대 및 빈도의 경우, 진로 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이 진학 무관심형에 비해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와 더 자주 진로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진로준비활동별 참여율은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진로 관련 상담,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현장 직업 체험, 직업 실무 체험, 진로 관련 책/잡지와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에서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현장 직업 체험과 직업 실무 체험의 참여율은 진학 무관심형이 다른 두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활동의 참여율은 진로 관심형이 다른 두 유형보다 높았다.

셋째, 진로준비활동의 도움 정도는 중학생의 결과와 동일하게 “진로 관심형”이 가장 높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와 직업’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진로 관련 상담,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 진로 관련 책/잡지,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과는 달리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에서도 차이가 났는데, “진로 관심형”이 두 집단에 비해 큰 차이로 “매우 도움이 되었다”에 가까운 점수에 응답하였다.

각 유형 내에서 도움이 된 정도가 높은 차례로 살펴보았을 때, “진로 관심형”은 “직업 실무 체험”에, “진학 무관심형”은 “현장 직업 체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정도가 가장 높았다. “진학 관심형”의 경우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 유형은 진로 준비 활동의 도움 수준의 차이도 있으나, 각각 가장 도움 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활동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학 무관심형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응답한 현장 직업 체험“은 세 집단 중 참여 여부가 가장 높았던 활동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는 각 유형의 특성에 따라 도움이 되는 활동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효율적인 진로교육 개입을 위해, 유형에 따라 필요한 활동을 차별화하고 해당 활동에 대한 참여율을 증가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진로 경험

첫째, 직업/진로 관련 체험 활동 참여 빈도 및 만족도는 중학생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전반적인 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볼 때, 고등학생의 참여 빈도가 중학생의 빈도에 비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빈도가 세 유형에서 비슷한 순서로 나타난 것에 의미가 있다.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도 전반적으로 중학생에 비해 경험 유무 비율이 높아졌으며, 미래 직업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점수가 높아진 결과가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동기 중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주를 이룬다. 특히,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나 정체성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반면, 향후 조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처세술이나 응대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본다고 보고된 바 있다(황여정 외, 2015). 따라서, 이와 같은 도움의 방향을 미래의 희망 직종을 위한 진로 체험 및 경험의 의미와 연결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기초생활”이 보장되어도 아르바이트를 미래 직업의 도움을 위해 추천할 만한가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즉, “진로준비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의 도움 정도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 동기나 방법, 그리고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미래 직업에 “어떠한” 도움인지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6) 청소년의 진로준비도 유형 영향요인 탐색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가장 긍정적인 집단으로 분류되었던, 진로 관심형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여, 앞서 살펴본 개인 특성, 가정 특성, 학교 특성, 그리고 진로 특성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1)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잠재집단 영향요인

첫째, 개인 특성에 따른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영향은 없었으며, 학교 관련 개인 특성에서는 교과 성취도 주관적 평가와 학업열의, 그리고, 사회정서발달 측면에서는 주의집중과 사회적 위축이 진로준비도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진로 관심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 교과 성취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 수준과 학업열의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학업성취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등 학업에 관한 태도가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장경아, 이지연, 한기순, 2011)를 지지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학업태도가 중학생의 긍정적인 진로 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또한, 진로 관심형을 기준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사회적으로 위축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정서의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진로준비도가 낮은 유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학생의 부정적 정서가 진로정체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손연아, 신수지, 손은령, 2014)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 및 진로 탐색에 관한 진로교육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심리지원이 진로교육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가정 특성 측면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박기락, 최효식, 연은모, 2017; 박지영, 정현숙, 2016)를 고려했을 때,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진로 전반보다는 교육 및 진학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교 특성의 학교 소재지 및 지역규모를 살펴보았을 때, 진로 관심형을 기준으로, 학교가 비수도권이 아닌 수도권에 위치해 있을 때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과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낮았다. 즉, 수도권에 위치해 있을수록 진로 관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 소재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낮았다. 지역에 따른 특성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개인이 진로와 관련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나 기회가 수도권 및 대도시에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은 진로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균형적인 정책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진로 특성 중 진로 생각 영역의 경우, 사회적 차원의 직업가치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낮았고, 진로 적응력이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낮았다. 즉, 사회적 명예(위신)나 국가/사회 기여와 같은 희망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사회적 차원의 직업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진로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진로 관심, 진로 호기심, 진로 자신감과 같은 진로 적응력이 높을수록 진학 무관심형이나 진학 관심형보다는 진로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직업을 선택하는 요인은 직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도 볼 수 있다. 직업가치는 진로선택을 만족스럽게 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으로 설명되는데(Brown, 2002), 보편적으로 개인적 차원에 포함되어 있는 수입(임금)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사회적 차원과 같이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으로 직업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건강한 진로준비를 예측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로 적응력이 현재 수준의 진로발달과 미래 진로에 대한 준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Savickas, 2005)이라는 점에서, 진로 적응력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에 속할 확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러한 유형이 실제 높은 진로준비도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진로 탐색 영역에서는 진로 관련 대화의 빈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머니와의 대화만이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와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가 많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낮았다. 진로준비 활동에 대한 분석은 16가지 진로준비 활동 중에서 교과와 비교과 중 대표 활동으로 나타나는 ‘진로와 직업’ 수업 참여 여부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로와 직업’ 수업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낮았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에서의 진로 탐색을 위한 대화와 교육과정 내 ‘진로와 직업’ 수업이 학생들

의 진로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한편, 진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진로 경험 영역의 경우, 직업/진로 관련 체험활동 참여 횟수와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가 진로준비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진로 관련 체험활동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을 때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업/진로 관련 체험활동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진로 경험이 실제 학생들의 진로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험의 양보다는 질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잠재집단 영향요인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유형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도 진로 관심형을 기준 집단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중학생의 결과와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중학생의 결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의집중 어려움,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 참여여부와 직업/진로 관련 체험활동 참여 횟수를 제외하고 고등학생에게서도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고등학생의 결과는 이에 추가적으로 성별, 학업성취 만족도, 삶의 만족도, 공격성, 우울, 그릿, 월평균 가구소득, 부정적 양육태도, 교사관계, 개인적 차원의 직업선택 요인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 및 시사점을 개인, 가정, 학교, 진로(진로 생각, 진로탐색, 진로경험) 영역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 특성 중에서는 성별과 전 교과 성취도 주관적 평가, 학업성취 만족도, 학업열의, 삶 만족도,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그릿이 진로준비도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진로 준비도 영향에 주의집중 어려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달리, 고등학생의 경우 주의집중 어려움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 대상 분석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은 성별, 학업성취 만족도, 삶 만족도, 공격성, 우울, 그릿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진로 관심형을 기준으로, 성별은 남성일 때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더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반적으로 진로발달 수준이 높다는 보고와 일관된 결과이다(김성경, 2008). 개인의 특성에서 전 교과 성취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 수준과 학업열의 모두 높을수록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높은 학업성취가 향후 진로선택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는 선행연구 결과(윤혜경, 이지연, 2014)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학업성취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진학 무관심형에 속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성취 수준에 만족하고 있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별다른 고민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향후 고등학생의 진로 성장에 있어서 개인의 학업성취 만족도 보다는 주관적이어도 실제 학업성취가 학생의 진로준비 상태를 예측하는 데 보다 타당한 판단 요건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삶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낮았고, 반대로, 공격성이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 사회적으로 더 위축되어 있을수록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한편, 우울하다고 느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낮았고,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정서 관련 변인의 서로 다른 영향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진로 변인에 영향을 미치나 그 결과는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선행연구의 논의와 유사한 맥락 하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김수정, 장경아, 이지연, 2016),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가정 특성 측면에서는 중학생의 분석결과보다 유의한 요인이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분석결과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게 고등학생도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은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 대상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진로 전반보다는 교육 및 진학에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월평균 가구소득은 소득이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낮았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순미 외, 2020)를 뒷받침한다.

셋째, 학교 특성의 경우, 중학생 대상 분석결과와 같이 학교가 비수도권이 아닌 수도권에 위치해 있을 때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낮았다. 즉, 수도권일수록 진로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중학생 대상 분석결과와 달리 학교 소재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도시에 상대적으로 사교육 등 진학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대학 입시를 눈앞에 둔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 전반보다는 진학에 초점을 두고 진로를 준비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교사관계 역시 중학생 대상 분석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은 영향요인으로,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수록 진학 무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낮았다. 이는 긍정적인 교사관계가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장서진, 최윤정, 2022)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진로 특성 중 진로 생각 영역의 경우, 중학생 대상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차원의 직업가치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낮았다. 이 역시도 중학생의 분석결과와 같이, 건강한 진로준비도를 예측하도록 한다. 희망직업 선택요인은 직업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직업 가치는 내재적, 외재적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내재적 직업 가치는 흥미나 성취감과 같이 직업 자체에서 오는 만족과 가치이며, 외재적 가치는 경제적 차원이나 근무환경과 같이 보상과 같은 차원의 만족으로 볼 수 있다(Super, 1975). 두 차원 모두 직업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한 가지에 치중하지 않고 균형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본 데이터의 평균 점수로 볼 때, 중고등학생들은 모두 “수입(임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표 부록-4-1. 참고), 사회적 차원의 직업가치를 고려하는 특징은 보다 균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직업가치는 높은 진로준비도 수준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박신영, 김종임, 2017), 사회적 차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장 긍정적인 유형인 “진로 관심형”을 예측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학생 대상 분석결과와는 달리 개인적 차원의 직업가치를 추구할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개인적 차원에 해당하는 요인은 안정성, 수입(임금), 소질과 적성, 쾌적한 환경, 시간적 여유, 어울려 일함, 다양한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적 차원에는 외재적 가치에 해당하는 구성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진학 무관심형이나 진로 관심형은 진로관심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직업 자체에서의 만족이나 가치 등 직업 가치에 대한 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외재적 가치가 상당수 포함된 개인적 차원은 낮은 직업달성포부를 갖고 있는 유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직업선택은 개인의 가치판단이기에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이와 같은 결과는 건강한 진로 준비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외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 그리고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직업 가치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진로 생각의 또 다른 요인인 진로 적응력이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과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도 중학생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진로 적응력이 높다는 것은 진로 준비 수준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긍정적인 유형인 “진로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진로 탐색 영역에서는 중학생 대상 분석결과와 비교해 ‘진로와 직업’ 수업 참여 여부만이 유의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와 직업’ 수업 참여 경험 이 있을수록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과 달리 가정 내에서의 진로탐색 기회보다 학교 내에서의 진로탐색 기회의 영향을 크게 받음을 나타내, 특히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의 진로탐색을 위한 개입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진로 경험 영역의 경우, 중학생 대상 분석결과와 달리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만이 진로준비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을 때 진로 관심형보다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진로준비도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진로 경험보다는 경제적 수단으로 기능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진로 준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정책 제언

1) 학교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 안착 지원

2010년부터 국가 진로교육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이 안착되었는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 결과는 「진로와 직업」 수업이 학생들의 진로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창의적 체험활동 내 진로활동은 진로 준비도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로 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진로 준비를 돕기보다는 흥미 중심의 활동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학교 진로교육은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연계 진로교육,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진로활동들이 전체 교육과정 내 연계되어 학생들의 체계적 진로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경험 중심의 진로체험 내실화

학교 진로교육이 본격화되던 시기부터 체험 중심의 활성화를 지향하였으며, 진로의 달 운영, 양질의 진로체험처 확보, 진로체험 인프라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통한 진로교육 참여 비율은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진로체험에 대한 참여 희망이 여전히 높으며 진로체험 중에서도 실제 직업 현장에 대한 경험을 원하고 있다. 그 동안 진로체험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 앞으로는 진로체험의 내실화와 함께 경험교육에 기반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선생님과 교실, 교과서로만 구성되었던 수업 중심의 교육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일 경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직업 및 진로 관련 체험활동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진로 경험이 학생들의 진로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경제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경제적 수단으로써의 직업을 경험할 수 밖에 없는 개인의 사정을 차치하더라도 청소년 시기에 접하게 되는

일 경험은 청소년의 직업가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청소년의 일 경험 과정에서 바람직한 직업가치와 직업윤리를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3)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2023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에서는 그동안 진로교육을 교육부가 주도해왔다면, 이제는 지역이 주도하는 진로교육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교육 기능이 확대는 지역 주도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며, 진로교육의 특성상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 주도의 진로교육에서도 교육 정책 내 국가의 책무성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역할이 수행된다. 특히 교육 격차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도권에 위치 할 경우 진로 관심형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에 위치할수록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나 기회의 접근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지역 진로교육의 상황을 살펴보면, 진로전담교사 배치율, 진로교육 예산 등에서 지역 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내 학생의 진로교육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지역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진로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4) 지속 가능한 진로교육 지원

진로교육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현재의 고등학생은 진로교육을 꾸준히 받아왔으나, 청소년들의 진로 준비도 유형을 볼 때, 고등학생들의 진로 준비도 유형이 중학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특징을 보였다. 희망교육 수준은 매우 높으나, 미래의 직업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 유형이 중고등학생 시기뿐만 아니라 대학을 진학한 이후까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대학 진학 이후, 전공 및 적성에 대한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진로교육은 중·고등학교 학교 교육 내 진로교육에서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지속 가능한 진로교육으로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적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진로준비도 경향에 대해 알아보고, 진로교육의 활성화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코호트 분석과 진로준비도 잠재유형에 따른 특성 및 예측변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요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고등학생 청소년은 대부분 4년제 대학을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과거보다 진로 미결정 청소년이 늘어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력에 대한 포부가 충분하여 장래 진로를 고민하지 않는 학력 위주 사회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진학 이외에 “진로”를 위한 진로교육의 내실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중·고등학생 모두 수입(임금)과 같은 외재적 직업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거의 고등학생들과 비교하면 고등학생이 생각하는 직업가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재적 직업 가치나 본인의 행복에 집중된 요인들에 관련된 가치로 변화한 결과를 보였다. 직업가치는 본인의 가치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없으나, 진로교육에 있어 개인적/사회적 차원, 내적/외적가치 등 균형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진로준비 활동에서는 진로심리검사 및 적성 검사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고등학생의 도움 정도 수준이 높았다. 또한, 과거에 비해 도움 정도가 높아졌는데, 이는 진로심리검사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진로준비 활동은 지속적인 시행 및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편, 고등학생의 직업/진로 관련체험활동의 경우, 참여경험과 만족도를 볼 때 경험이 누적되는 고등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학교 시기 프로그램을 반복하기보다, 차별화된 진로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교육포부 및 직업달성 포부에 따른 진로준비도 유형화에서는 중·고등학생 모두 “진학 무관심형(교육포부 미결정, 낮은 가능성의 희망직업), 진학 관심형(높은 교육포부, 희망직업 미결정), 진로 관심형(높은 교육포부, 높은 직업달성포부)”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고등학생의 “진학 무관심형”과 “진로 관심형” 비율이 낮고, “진학 관심형”의 비율이 높은 결과를 통해, 교급이 올라가면서 진로 관심형이 많아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진로 미결정의 청소년의 비율이 약 40%정도에 따라 진로교육을 청소년 초기부터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시사하였다. 더불어,

청소년 후기에도 지속적으로 진로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잠재집단 유형별 개인·환경 요인 차이에서는 개인, 가정, 학교, 그리고 진로 영역 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진로 관심형이 가장 우수한 수준, 진학 무관심형이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진로 관심형의 경우, 가정의 경제 수준이 고소득 구간,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수도권, 학교에서의 좋은 대인관계를 나타내었다. 반대로, 진학 무관심형은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학 무관심형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및 학업 성취 및 학업 열의를 위한 지원 방안과 진로준비도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이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의 진로 준비를 위한 적절한 개입 및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교사가 진학 이외에 직업과 같은 진로 탐색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교육하고 유도하는 역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한편, 희망직업 선택요인에서 중학생과 달리 고등학생은 “개인적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진학 관심형”이 “진로 관심형”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진로 관심형의 경우, 진로 준비도의 전반적인 특성을 잘 설명해주는 진로 적응력 수준이 가장 높고, 교육포부와 직업달성포부가 동일한 수준으로 발달하였다는 점에서 직업가치에 있어, 현실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진로 적응력의 경우, “진로 관심” 수준이 가장 낮고 진학에 대한 결정만 하였다는 점에서 아직 직업가치 요인들이나 직업 선호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포부뿐만 아니라 희망 직업에 대한 균형적 발전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진로 탐색의 영역인 진로준비 활동에서 청소년들의 참여 빈도와 만족도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며, 단순히 다양한 진로준비활동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실화된 진로준비활동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집단 유형별 예측요인 분석에서도 긍정적 요인이 우수할수록 진로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개인 특성에서는 전 교과 성취도 주관적 평가 수준, 학업 열의, 사회정서발달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청소년의 학업적 측면 이외에 청소년의 심리 지원을 위한 지원이 진로교육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함께 시사하였다. 한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

는데, 우리나라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진로 전반보다는 교육 및 진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학부모들에게도 “대입입시” 이외에 직업적인 탐색과 목표설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학교 특성에 있어서는 수도권 소재의 학교에 재학할수록 진로 관심형일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수도권 및 대도시에 상대적으로 개인이 진로와 관련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나 기회가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균형적인 교육정책을 제공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결과였다.

이외에도 앞서 특성 차이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중·고등학생 모두 사회적 차원 직업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진로 적응력이 높고 길수록 진로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즉, 균형적인 직업가치 추구하고 진로 적응력은 체계적인 진로준비를 예측하므로 청소년들이 직업가치를 다면적으로 고려하고 진로 관심, 호기심,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또한, 중학생은 어머니와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가 많을수록 진로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고등학생은 ‘진로와 직업’ 수업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진로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즉, 고등학생의 경우 가정 내에서의 진로 탐색 기회보다 학교 내에서의 진로 탐색 기회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의 진로 탐색을 위한 개입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은 중학생에게만 나타났으며, 경험이 있는 경우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나타났는데, 이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진로 경험이 실제 학생들의 진로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줌에 따라, 경험의 양보다는 질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진로 준비도와 관련된 변인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경향성을 파악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진로 준비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 안착을 위한 지원, 경험 중심 진로체험의 내실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지속 가능한 진로교육 지원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이와 같은 주요 분석결과는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추가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 제언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진로교육의 정책적 개선방안에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8).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2010). 진로교육 종합 계획(안).
- 교육부 (1992). 고등학교 실업·가정과 교육과정해설(I).
- _____ (2016).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 _____ (2023).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 _____, 한국교육개발원 (2022). 간추린 교육통계.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2a).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세종: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_____ (2022b).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세종: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국가인권위원회 (2006).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성경 (2008). 고등학교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및 학교계열별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5(6), 145-170.
- 김수정, 장경아, 이지연 (2016). 고등학생의 진로변인과 삶의 만족에 관한 다집단 연구. 진로교육연구, 29(3), 119-139.
- 김순미, 이성하, 조선희, 김민순 (2020).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 경북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산업연구, 43(1), 89-111.
- 김영지, 최홍일 (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연구보고 22-일반01-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정수, 정지연 (2012).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 **미래청소년학회지**, 9(4), 31-50.
- 김하늬, 손은령 (2020).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관련 변인 간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33(4), 43-68.
- 문성호 (2003). 학생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간의 관계. **한국청소년학연구** 10(3), 83-103.
- 문은식 (2015). 중학생의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22(1), 21-35.
- 박창남 (2006). 중학생의 아르바이트경험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효과. **한국청소년학연구**, 13(5-2), 197-220.
- 박기락, 최효식, 연은모 (201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과학 태도 및 과학 탐구 능력과 과학 학업 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7(4), 669-677.
- 박신영, 김종임 (2017). 대학생의 직업가치 및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수준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0), 507-533.
- 박지영, 정현숙 (2016). 남녀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학업성취도의 매개효과. **생애학회지**, 6(1), 21-37.
- 봉초운, 정은화, 홍세희 (2018).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9(3), 41-69.
- 손연아, 신수지, 손은령 (2014).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연구. **진로교육연구**, 27(1), 109-125.
- 서우석 (2016). 초등 진로전담교사의 역할과 과제.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33-58.
- 석민경, 조한익 (2016). 청소년의 불안/우울 수준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 및 갈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9(1), 1-23.
- 신효정, 이문희 (2011). 진로성숙 발달에 관한 4 년 종단 연구-스트레스, 공격성, 우울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18(7), 139-161.
- 유한구, 박화춘 (2021). **진로교육 및 체험의 노동시장 성과**. 이슈페이퍼 2021-02. 세종: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유한구, 박화춘 (2022). 청소년기 자아개념, 진로야망, 진로체험이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25(1), 41-73.
- 윤혜경, 이지연 (2014). 한국고등학생의 사회인지요인과 학업만족의 관계: Lent의 학업만족 모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5(5), 1957-1977.
- 이기종, 박수란 (2016). 직업포부와 교육포부가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9(1), 25-48.
- 이상길 (2006). 담임교사와의 대화공감도를 비롯한 학교 변인과 고교생의 진로정체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613-627.
- 이상준, 정운경, 김규상 (2008). **진로정보 센터 운영(2008): 진로교육 지표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 김재희, 이서정 (2017). **해외 진로개발 정책과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발전 방안**(기본연구 2017-22). 세종: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장경아, 이지연, 한기순 (2011).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와 진로포부관계에서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학업성취의 매개효과 연구. **교육실천연구**, 10(1), 1-23.
- 장서진, 최윤정 (2022). 고등학생 진로정체감 발달 관련변인의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35(2), 175-199.
- 장석민 (2003). **진로교육 정책의 발전과정 및 전망**. 한국진로교육학회.
- 정운경, 정지은, 김민정, 박나실, 황승록, 김나라, 방혜진, 박조룡, 신주량 (2022). **제3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세종: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정철영, 최동선, 안화균, 양순선, 이종범, 최수정 (2011). **진로와 직업 교재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정철영, 이영광, 이승엽, 김동주, 김기민, 이진규, 김도현 (2022). 우리나라 국가 진로교육 정책 동향. **진로교육연구**, 35(1), 81-109.
- 조영아 (202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진로교육연구」 연구동향 분석: 진로교육 정책 주요 시기별 비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4(3), 43-66.
- 주영주, 강아란, 최세빈 (2013). 진로교사의 지원, 진로교육 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준비행동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진로교육연구**, 26(4), 25-47.
- 최보금 (2020). 고등학생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변인 탐색: 고교유형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3(2), 49-66.

황여정, 김정숙, 이수정, 변정현 (201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I**(연구보고 15-R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진구, 전현정, 이용해 (2022).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연구보고 22-일반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고통계자료 및 인터넷 자료]

위키백과 (2023. 10. 01). 니트족. <https://ko.wikipedia.org/wiki/%EB%8B%88%ED%8A%B8%EC%A1%B1> (2023. 10. 20. 발췌).

통계청 (2022.11.16.a). 사회조사,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교육 수준 및 자녀가 대학 이상 교육받기를 바라는 이유 (30세 이상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080R&conn_path=I2 (2023. 09. 28. 발췌).

통계청 (2022.11.16.b). 사회조사,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복수응답, 13~24세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142R&conn_path=I2 (2023. 09. 28. 발췌).

통계청 (2022.11.16.c). 사회조사, 학생이 기대하는 교육수준 및 대학 이상 교육받길 바라는 이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020R&conn_path=I2 (2023. 09. 28. 발췌).

[외국문헌]

Bergman, L. R., Magnusson, D., & El Khouri, B. M. (2003). *Studying individual development in an interindividual context: A person-oriented approach* (Vol. 4). New York: Psychology Press.

Brown, D. (2002). The role of work values and cultural values. In D. Brown(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4th ed., 85-148). San Francisco: Jossey-Bass.

Collins, L. M., Lanza, S. T. (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Wiley.

Covacevich, C., Mann, A., Besa, F., Diaz, J., & Santos, C. (2021a), *Thinking*

- about the future: Career readiness insights from national longitudinal surveys with examples of practice*, Paris: OECD Publishing. <https://dx.doi.org/10.1787/02a419de-en>.
- Covacevich, C., Mann, A., Santos, C., & Champaud, J. (2021b), Indicators of teenage career readiness: An analysis of longitudinal data from eight countries, *OECD Education Working Paper* 258. Pari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cec854f8-en>.
- Erikson, E.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es*. New York, NY: Norton.
- Felsman, D. E., & Blustein, D. L. (1999). The role of peer relatedness in late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2), 279-295.
- Foti, R. J., Bray, B. C., Thompson, N. J., & Allgood, S. F. (2012). Know thy self, know thy leader: Contributions of a pattern-oriented approach to examining leader perceptions. *The Leadership Quarterly*, 23(4), 702-717.
- Furrer, C. J., Skinner, E. A., & Pitzer, J. R. (2014). The influence of teacher and peer relationships on students' classroom engagement and everyday motivational resilience. *Teachers College Record*, 116(13), 101-123.
- Ginzberg E., (1971).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In Hitchcock W.L. & Kemp Maybry M. (Eds). *Readings in guidance* (pp. 74-78). MSS Educational Pub. Co.
- Glenn, N. D. (2005). *Cohort analysis (Vol. 5)*. Sage.
- Jung, T., & Wickrama, K. A.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Keller, B. K., & Whiston, S. C. (2008). The role of parental influences on young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2), 198-217.
- Kracke, B. (2002). The role of personality, parents and peers in adolescents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5(1), 19-30.

- Kusurkar, R. A., Croiset, G., Mann, K. V., Custers, E., & Ten Cate, O. (2012). Have motivation theories guided the development and reform of medical education curricula? *A review of the literature. Academic Medicine, 87*(6), 735-743.
- Lawrence, B. S., & Zyphur, M. J. (2011). Identifying organizational faultlines with latent class cluster analysi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4*(1), 32-57.
- Mann, A., Denis, V., & Percy, C. (2020). Career ready? How schools can better prepare young people for working life in the era of COVID-19. *OECD Education Working Paper, 241*. Pari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e1503534-en>.
- Muthén, B.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Growth mixture modeling and related techniques for longitudinal data. In D. Kapla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pp. 345-368). Newbury Park, CA: Sage.
- Muthén, B.,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42-70).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Sawitri, D. R., Creed, P. A., & Zimmer-Gembeck, M. J. (2013). The adolescent-parent career congruence scal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1*(2), 210-226.

- Sewell, W. H., Hauser, R. M., & Wolf, W. C. (1980). Sex, schooling, and occupational statu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6(3), 551-583.
- Sewell, W. H., Hauser, R. M., Springer, K. W., & Hauser, T. S. (2003). As we age: A review of the Wisconsin Longitudinal Study, 1957-2001.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20, 3-111.
- StataCorp (2015). *Statistical Software: Release 14*. StataCorp LP.
- Super, D. E. (1975).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_____. (1990). A life span, life 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2nd ed., pp. 197-261).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Trebbels, M., & Trebbels, M. (2015). Models of educational aspirations and choice. In M. Trebbels, (Ed.) *The transition at the end of compulsory full-time education: Educational and future career aspirations of native and migrant students*. (pp. 47-63). Springer-Verlag.

○ — 부 록

부 록

1. KCYPS 2018 진로준비도 경향성

1) 진로 생각

표 부록-1. 교급별 교육포부 수준

(단위: 명(%))

구분		중2 (n=2,311)					고2 (n=2,252)				
		잘 모르겠음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전문 대학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석사, 박사) 이상	잘 모르겠음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전문 대학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석사, 박사) 이상
전체		403(17.4)	72(3.1)	128(5.5)	1,518(65.7)	190(8.2)	263(11.7)	80(3.6)	165(7.3)	1,536(68.2)	208(9.2)
성별	남성	205(17.7)	38(3.3)	68(5.9)	749(64.8)	95(8.2)	149(12.4)	56(4.7)	84(7.0)	796(66.2)	117(9.7)
	여성	198(17.1)	34(2.9)	60(5.2)	769(66.5)	95(8.2)	114(10.9)	24(2.3)	81(7.7)	740(70.5)	91(8.7)
학교 소재지 ¹⁾	수도권	212(18.3)	27(2.3)	65(5.6)	765(65.9)	91(7.8)	123(11.0)	28(2.5)	67(6.0)	794(70.8)	109(9.7)
	비수도권	188(16.4)	45(3.9)	62(5.4)	753(65.6)	99(8.6)	135(12.2)	49(4.4)	94(8.5)	737(66.4)	95(8.6)
학교 소재지 규모 ¹⁾	대도시	183(18.7)	36(3.7)	47(4.8)	620(63.3)	94(9.6)	89(8.9)	24(2.4)	52(5.2)	736(74.0)	94(9.4)
	중소도시	163(16.9)	28(2.9)	56(5.8)	658(68.3)	58(6.0)	124(14.0)	41(4.6)	69(7.8)	571(64.4)	82(9.2)
	읍면지역	54(14.8)	8(2.2)	24(6.6)	240(65.9)	38(10.4)	45(12.9)	12(3.4)	40(11.5)	224(64.2)	28(8.0)

구분		중2 (n=2,311)					고2 (n=2,252)				
		잘 모르겠 음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전문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교 졸업	대학원(석사, 박사) 이상	잘 모르겠 음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전문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교 졸업	대학원(석사, 박사) 이상
가정의 주관적 경제 수준	최하	6(27.3)	5(22.7)	0(0.0)	10(45.5)	1(4.5)	3(17.6)	2(11.8)	6(35.3)	5(29.4)	1(5.9)
	하	63(23.4)	14(5.2)	29(10.8)	148(55.0)	15(5.6)	44(16.6)	16(6.0)	45(17.0)	145(54.7)	15(5.7)
	보통	300(16.8)	48(2.7)	92(5.2)	1,200(67.3)	143(8.0)	201(11.0)	58(3.2)	100(5.5)	1,295(71.2)	166(9.1)
	상	34(14.4)	5(2.1)	7(3.0)	159(67.4)	31(13.1)	15(10.3)	3(2.1)	13(9.0)	88(60.7)	26(17.9)
	최상	-	-	-	-	-	0(0.0)	0(0.0)	1(25.0)	3(75.0)	0(0.0)
월평균 가구소득 ²⁾	200만 원 미만	25(35.7)	7(10.0)	7(10.0)	27(38.6)	4(5.7)	20(32.3)	8(12.9)	11(17.7)	22(35.5)	1(1.6)
	400만 원 미만	98(23.2)	21(5.0)	21(5.0)	248(58.8)	34(8.1)	71(13.5)	28(5.3)	45(8.6)	330(62.9)	51(9.7)
	600만 원 미만	150(15.8)	28(3.0)	59(6.2)	644(67.9)	67(7.1)	100(11.2)	29(3.2)	67(7.5)	645(72.1)	54(6.0)
	600만 원 이상	130(14.9)	16(1.8)	41(4.7)	598(68.7)	85(9.8)	72(9.4)	14(1.8)	42(5.5)	539(70.1)	102(13.3)
가족 구성 형태 (동거 가족)	부모+자녀	316(16.2)	52(2.7)	106(5.4)	1,311(67.3)	162(8.3)	193(10.5)	57(3.1)	125(6.8)	1,300(70.4)	171(9.3)
	한부모+자녀	39(26.9)	8(5.5)	11(7.6)	75(51.7)	12(8.3)	31(16.9)	13(7.1)	17(9.3)	108(59.0)	14(7.7)
	(한)조부모+자녀	4(23.5)	1(5.9)	3(17.6)	9(52.9)	0(0.0)	4(28.6)	3(21.4)	4(28.6)	3(21.4)	0(0.0)
	(한)조부모+부모+자녀	32(22.5)	6(4.2)	3(2.1)	89(62.7)	12(8.5)	28(17.4)	4(2.5)	14(8.7)	97(60.2)	18(11.2)
	(한)조부모+한부모+자녀	11(20.4)	5(9.3)	4(7.4)	30(55.6)	4(7.4)	6(13.6)	2(4.5)	5(11.4)	26(59.1)	5(11.4)
	기타	1(20.0)	0(0.0)	1(20.0)	3(60.0)	0(0.0)	1(33.3)	0(0.0)	0(0.0)	2(66.7)	0(0.0)

주: 1) 학교 소재지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제외

2) KCYPs 2018 월평균 가구소득은 1=소득 없음 ~ 12=1,000만원 이상 범주를 재범주화 하여 리코드 함.

표 부록-2. 교급별 희망 직업 결정 여부

(단위: 명(%))

구분		중2 (n=2,311)			고2 (n=2,252)		
		아직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지 않았다	대강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	아직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지 않았다	대강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
전체		1,040(45.0)	1,006(43.5)	265(11.5)	702(31.2)	1,155(51.3)	395(17.5)
성별	남성	534(46.2)	482(41.7)	139(12.0)	387(32.2)	592(49.3)	223(11.6)
	여성	506(43.8)	524(45.3)	126(18.6)	315(30.0)	563(53.6)	172(16.4)
학교 소재지 ¹⁾	수도권	499(43.0)	527(45.4)	134(10.9)	328(29.3)	623(55.6)	170(15.2)
	비수도권	537(46.8)	479(41.8)	131(11.4)	367(33.1)	524(47.2)	219(19.7)
학교 소재지 규모 ¹⁾	대도시	424(43.3)	428(43.7)	128(13.1)	316(31.8)	504(50.7)	175(17.6)
	중소도시	462(48.0)	407(42.3)	94(9.8)	284(32.0)	454(51.2)	149(16.8)
	읍면지역	150(41.2)	171(47.0)	43(11.8)	95(27.2)	189(54.2)	65(18.6)
가정의 주관적 경제 수준	최하	14(63.6)	6(27.3)	2(9.1)	8(47.1)	8(47.1)	1(5.9)
	하	114(42.4)	119(44.2)	36(13.4)	76(28.7)	138(52.1)	51(19.2)
	보통	831(46.6)	763(42.8)	189(10.6)	576(31.6)	936(51.4)	308(16.9)
	상	81(34.3)	117(49.6)	38(16.1)	38(26.2)	72(49.7)	35(24.1)
	최상	-	-	-	3(75.0)	1(25.0)	0(0.0)

구분		중2 (n=2,311)			고2 (n=2,252)		
		아직 하고 싶은 작업을 정하지 않았다	대강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	아직 하고 싶은 작업을 정하지 않았다	대강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 ²⁾	200만 원 미만	36(51.4)	24(34.3)	10(14.3)	17(27.4)	37(59.7)	8(12.9)
	400만 원 미만	196(46.4)	180(42.7)	46(10.9)	174(33.1)	266(50.7)	85(16.2)
	600만 원 미만	447(47.2)	398(42.0)	103(10.9)	319(35.6)	425(47.5)	151(16.9)
	600만 원 이상	361(41.5)	403(46.3)	106(12.2)	191(24.8)	427(55.5)	151(19.6)
가족 구성 형태 (동거 가족)	부모+자녀	862(44.3)	854(43.9)	231(11.9)	564(30.6)	955(51.7)	327(17.7)
	한부모+자녀	70(48.3)	56(38.6)	19(13.1)	56(30.6)	99(54.1)	28(15.3)
	(한)조부모+자녀	8(47.1)	9(52.9)	0(0.0)	8(57.1)	6(42.9)	0(0.0)
	(한)조부모+부모+자녀	70(49.3)	61(43.0)	11(7.7)	56(34.8)	74(46.0)	31(19.3)
	(한)조부모+한부모+자녀	28(51.9)	22(40.7)	4(7.4)	16(36.4)	20(45.5)	8(18.2)
	기타	2(40.0)	3(60.0)	0(0.0)	1(33.3)	1(33.3)	1(33.3)

주: 1) 학교 소재지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제외

2) KCYPs 2018 월평균 가구소득은 1=소득 없음 ~ 12=1,000만원 이상 범주를 재범주화 하여 리코드 함.

표 부록-3. 교급별 직업달성포부

(단위: 명(%))

구분		중2 (n=2,311)						고2 (n=2,252)					
		잘 모르겠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55(4.3)	4(0.3)	36(2.8)	302(23.8)	689(54.2)	185(14.6)	56(3.6)	3(0.2)	37(2.4)	481(31.0)	789(50.9)	184(11.9)
성별	남성	32(5.2)	0(0.0)	13(2.1)	141(22.7)	339(54.6)	96(15.5)	27(3.3)	2(0.2)	16(2.0)	242(29.7)	417(51.2)	111(13.6)
	여성	23(3.5)	4(0.6)	23(3.5)	161(24.8)	350(53.8)	89(13.7)	29(3.9)	1(0.1)	21(2.9)	239(32.5)	372(50.6)	73(9.9)
학교 소재지 ¹⁾	수도권	27(4.1)	0(0.0)	17(2.6)	196(29.7)	337(51.0)	84(12.7)	32(4.0)	3(0.4)	14(1.8)	304(38.3)	365(46.0)	75(9.5)
	비수도권	28(4.6)	4(0.7)	19(3.1)	106(17.4)	352(57.7)	101(16.6)	24(3.2)	0(0.0)	22(3.0)	175(23.6)	416(56.0)	106(14.3)
학교 소재지 규모 ¹⁾	대도시	25(4.5)	2(0.4)	12(2.2)	150(27.0)	299(53.8)	68(12.2)	17(2.5)	2(0.3)	12(1.8)	227(33.4)	341(50.2)	80(11.8)
	중소도시	21(4.2)	1(0.2)	15(3.0)	117(23.4)	270(53.9)	77(15.4)	27(4.5)	1(0.2)	19(3.2)	191(31.7)	302(50.1)	63(10.4)
	읍면지역	9(4.2)	1(0.5)	9(4.2)	35(16.4)	120(56.1)	40(18.7)	12(4.7)	0(0.0)	5(2.0)	61(24.0)	138(54.3)	38(15.0)
가정의 주관적 경제 수준	최하	0(0.0)	0(0.0)	0(0.0)	4(50.0)	2(25.0)	2(25.0)	0(0.0)	0(0.0)	0(0.0)	4(44.4)	5(55.6)	0(0.0)
	하	9(5.8)	2(1.3)	7(4.5)	35(22.6)	75(48.4)	27(17.4)	4(2.1)	1(0.5)	8(4.2)	58(30.7)	91(48.1)	27(14.3)
	보통	43(4.5)	0(0.0)	25(2.6)	235(24.7)	517(54.3)	132(13.9)	50(4.0)	2(0.2)	26(2.1)	393(31.6)	636(51.1)	137(11.0)
	상	3(1.9)	2(1.3)	4(2.6)	28(18.1)	95(61.3)	23(14.8)	2(1.9)	0(0.0)	3(2.8)	26(24.3)	56(52.3)	20(18.7)
	최상	-	-	-	-	-	-	0(0.0)	0(0.0)	0(0.0)	0(0.0)	1(100.0)	0(0.0)

구분		중2 (n=2,311)						고2 (n=2,252)					
		잘 모르겠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월평균 가구소득 ²⁾	200만 원 미만	2(5.9)	1(2.9)	1(2.9)	10(29.4)	13(38.2)	7(20.6)	1(2.2)	0(0.0)	1(2.2)	20(44.4)	19(42.2)	4(8.9)
	400만 원 미만	7(3.1)	1(0.4)	4(1.8)	63(27.9)	127(56.2)	24(10.6)	14(4.0)	1(0.3)	7(2.0)	130(37.0)	170(48.4)	29(8.3)
	600만 원 미만	24(4.8)	0(0.0)	19(3.8)	112(22.4)	277(55.3)	69(13.8)	23(4.0)	1(0.2)	14(2.4)	161(28.0)	312(54.2)	65(11.3)
	600만 원 이상	22(4.3)	2(0.4)	12(2.4)	117(23.0)	272(53.4)	84(16.5)	18(3.1)	1(0.2)	15(2.6)	170(29.4)	288(49.8)	86(14.9)
가족 구성 형태 (동거 가족)	부모+자녀	50(4.6)	3(0.3)	30(2.8)	251(23.1)	597(55.0)	154(14.2)	49(3.8)	2(0.2)	28(2.2)	395(30.8)	654(51.0)	154(12.0)
	한부모+자녀	2(2.7)	0(0.0)	2(2.7)	18(24.0)	43(57.3)	10(13.3)	2(1.6)	0(0.0)	3(2.4)	41(32.3)	64(50.4)	17(13.4)
	(한)조부모+자녀	0(0.0)	1(11.1)	0(0.0)	3(33.3)	4(44.4)	1(11.1)	0(0.0)	0(0.0)	1(16.7)	2(33.3)	3(50.0)	0(0.0)
	(한)조부모+부모+자녀	1(1.4)	0(0.0)	2(2.8)	21(29.2)	37(51.4)	11(15.3)	3(2.9)	0(0.0)	2(1.9)	35(33.3)	56(53.3)	9(8.6)
	(한)조부모+한부모+자녀	1(3.8)	0(0.0)	2(7.7)	9(34.6)	7(26.9)	7(26.9)	2(7.1)	1(3.6)	1(3.6)	8(28.6)	12(42.9)	4(14.3)
	기타	1(33.3)	0(0.0)	0(0.0)	0(0.0)	1(33.3)	1(33.3)	0(0.0)	0(0.0)	2(100.0)	0(0.0)	0(0.0)	0(0.0)

주: 1) 학교 소재지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제외

2) KCYPs 2018 월평균 가구소득은 1=소득 없음 ~ 12=1,000만원 이상 범주를 재범주화 하여 리코드 함.

표 부록-4-1. 교급별 희망직업 선택 요인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개인적 차원 ³⁾											
		안정성		수입(임금)		소질과 적성		쾌적한 환경		시간적 여유		가족과의 시간 보장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전체		3.13(0.73)	3.13(0.74)	3.31(0.79)	3.28(0.80)	3.20(0.78)	3.18(0.78)	3.19(0.75)	3.17(0.77)	3.16(0.78)	3.13(0.78)	3.09(0.76)	3.08(0.77)
성별	남성	3.13(0.72)	3.12(0.72)	3.31(0.81)	3.30(0.78)	3.20(0.79)	3.15(0.77)	3.17(0.75)	3.14(0.76)	3.16(0.79)	3.13(0.76)	3.11(0.77)	3.07(0.75)
	여성	3.13(0.73)	3.15(0.75)	3.31(0.78)	3.26(0.82)	3.20(0.78)	3.21(0.78)	3.20(0.76)	3.20(0.78)	3.15(0.77)	3.14(0.80)	3.06(0.75)	3.08(0.80)
학교 소재지 ¹⁾	수도권	3.12(0.67)	3.12(0.73)	3.37(0.73)	3.25(0.76)	3.23(0.73)	3.17(0.76)	3.26(0.67)	3.21(0.72)	3.21(0.72)	3.19(0.75)	3.10(0.71)	3.09(0.77)
	비수도권	3.13(0.78)	3.15(0.75)	3.24(0.85)	3.31(0.84)	3.18(0.83)	3.18(0.80)	3.11(0.83)	3.12(0.81)	3.10(0.83)	3.07(0.80)	3.06(0.81)	3.07(0.77)
학교 소재지 규모 ¹⁾	대도시	3.09(0.73)	3.20(0.77)	3.24(0.79)	3.27(0.84)	3.16(0.79)	3.21(0.83)	3.16(0.75)	3.16(0.82)	3.13(0.77)	3.16(0.82)	3.05(0.76)	3.08(0.79)
	중소도시	3.18(0.70)	3.08(0.72)	3.40(0.76)	3.29(0.77)	3.29(0.73)	3.17(0.76)	3.27(0.70)	3.18(0.73)	3.23(0.75)	3.12(0.75)	3.13(0.73)	3.08(0.75)
	읍면지역	3.07(0.76)	3.08(0.67)	3.24(0.87)	3.31(0.76)	3.09(0.88)	3.09(0.66)	3.02(0.87)	3.16(0.73)	3.02(0.85)	3.07(0.70)	3.03(0.82)	3.05(0.75)
가정의 주관적 경제 수준	최하	3.05(0.95)	3.29(0.85)	3.36(0.95)	3.18(1.01)	3.00(0.82)	3.12(0.93)	3.14(0.99)	3.12(0.93)	2.86(0.83)	3.35(1.00)	2.82(0.85)	3.29(0.77)
	하	3.09(0.78)	3.12(0.70)	3.30(0.86)	3.34(0.86)	3.10(0.82)	3.14(0.83)	3.12(0.80)	3.12(0.82)	3.04(0.79)	3.04(0.79)	2.96(0.80)	2.92(0.85)
	보통	3.13(0.72)	3.13(0.74)	3.30(0.79)	3.27(0.79)	3.20(0.78)	3.18(0.77)	3.18(0.75)	3.17(0.76)	3.16(0.78)	3.14(0.77)	3.10(0.76)	3.09(0.75)
	상	3.21(0.66)	3.17(0.75)	3.39(0.76)	3.31(0.85)	3.35(0.75)	3.22(0.79)	3.31(0.67)	3.24(0.80)	3.31(0.69)	3.12(0.81)	3.13(0.72)	3.18(0.82)
	최상	-()	3.50(0.58)	-()	3.75(0.50)	-()	3.00(1.15)	-()	3.50(0.58)	-()	3.75(0.50)	-()	3.25(0.50)

구분		개인적 차원 ³⁾											
		안정성		수입(임금)		소질과 적성		쾌적한 환경		시간적 여유		가족과의 시간 보장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월평균 가구 소득 ²⁾	200만 원 미만	3.09(0.86)	3.19(0.74)	3.10(0.98)	3.26(0.94)	2.94(0.88)	3.11(0.85)	3.06(0.88)	3.26(0.92)	2.96(0.81)	3.11(0.83)	2.80(0.86)	3.15(0.81)
	400만 원 미만	3.13(0.72)	3.04(0.76)	3.32(0.77)	3.18(0.84)	3.15(0.75)	3.06(0.82)	3.20(0.75)	3.09(0.83)	3.12(0.74)	3.06(0.81)	3.07(0.76)	3.00(0.82)
	600만 원 미만	3.11(0.72)	3.12(0.73)	3.27(0.78)	3.27(0.79)	3.20(0.78)	3.16(0.76)	3.17(0.76)	3.18(0.74)	3.15(0.79)	3.13(0.77)	3.10(0.74)	3.06(0.75)
	600만 원 이상	3.15(0.72)	3.21(0.72)	3.36(0.80)	3.37(0.76)	3.26(0.79)	3.28(0.74)	3.21(0.74)	3.19(0.74)	3.20(0.78)	3.18(0.76)	3.10(0.77)	3.14(0.75)
가족 구성 형태 (동거 가 족)	부모+자녀	3.13(0.72)	3.12(0.75)	3.30(0.80)	3.26(0.81)	3.21(0.78)	3.16(0.79)	3.19(0.75)	3.16(0.77)	3.16(0.78)	3.13(0.78)	3.09(0.76)	3.08(0.77)
	한부모+자녀	3.14(0.78)	3.16(0.70)	3.36(0.81)	3.34(0.82)	3.15(0.87)	3.23(0.77)	3.07(0.80)	3.19(0.81)	3.04(0.82)	3.09(0.83)	2.92(0.79)	3.08(0.82)
	(한)조부모+자녀	3.12(0.78)	3.21(0.70)	3.24(0.97)	3.21(0.80)	3.00(0.87)	3.00(0.78)	3.12(0.99)	3.07(0.83)	2.88(0.99)	3.07(0.83)	2.82(1.19)	2.93(0.73)
	(한)조부모+부모+자녀	3.16(0.69)	3.14(0.71)	3.36(0.74)	3.39(0.70)	3.20(0.81)	3.27(0.67)	3.29(0.69)	3.16(0.72)	3.24(0.69)	3.12(0.71)	3.20(0.73)	3.07(0.75)
	(한)조부모+한부모+자녀	3.15(0.74)	3.25(0.61)	3.41(0.74)	3.36(0.78)	3.31(0.70)	3.30(0.70)	3.31(0.70)	3.27(0.69)	3.26(0.68)	3.25(0.69)	3.11(0.74)	3.11(0.72)
	기타	2.80(1.30)	3.67(0.58)	2.80(1.30)	3.33(0.58)	3.00(1.22)	3.33(0.58)	2.60(0.89)	3.67(0.58)	3.00(1.22)	3.00(1.00)	2.60(1.14)	3.00(1.00)

주: 1) 학교 소재지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제외

2) KCYPs 2018 월평균 가구소득은 1=소득 없음 ~ 12=1,000만원 이상 범주를 재범주화 하여 리코드 함.

3) 희망직업 선택 요인은 12가지 요인에 대해 4점 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다~4=매우 중요하다)로 측정함.

표 부록-4-2. 교급별 희망직업 선택 요인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개인적 차원 ³⁾								개인적 차원 총점	
		어울려 일함		동료와의 경쟁 낮음		자율성		다양한 경험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전체		3.02(0.76)	2.99(0.76)	3.01(0.77)	3.02(0.75)	3.10(0.77)	3.12(0.73)	3.08(0.76)	3.12(0.76)	3.13(0.58)	3.12(0.56)
성별	남성	3.03(0.75)	2.98(0.73)	3.02(0.77)	3.01(0.73)	3.10(0.77)	3.12(0.71)	3.09(0.76)	3.12(0.75)	3.13(0.59)	3.11(0.54)
	여성	3.00(0.77)	3.01(0.79)	2.99(0.76)	3.03(0.77)	3.10(0.77)	3.10(0.75)	3.06(0.77)	3.11(0.76)	3.12(0.58)	3.13(0.58)
학교 소재지 ¹⁾	수도권	3.04(0.72)	3.02(0.77)	3.04(0.71)	3.03(0.73)	3.16(0.69)	3.17(0.70)	3.12(0.69)	3.15(0.72)	3.17(0.50)	3.14(0.51)
	비수도권	2.99(0.80)	2.98(0.74)	2.97(0.81)	3.01(0.76)	3.03(0.83)	3.06(0.75)	3.03(0.82)	3.10(0.79)	3.09(0.66)	3.10(0.61)
학교 소재지 규모 ¹⁾	대도시	2.95(0.76)	3.04(0.79)	2.98(0.75)	3.01(0.76)	3.06(0.75)	3.11(0.77)	3.01(0.73)	3.10(0.76)	3.08(0.57)	3.14(0.61)
	중소도시	3.08(0.75)	2.98(0.74)	3.05(0.75)	3.00(0.72)	3.17(0.74)	3.13(0.71)	3.18(0.74)	3.13(0.74)	3.20(0.55)	3.12(0.52)
	읍면지역	3.04(0.78)	2.91(0.70)	2.96(0.84)	3.09(0.77)	3.01(0.88)	3.11(0.67)	2.98(0.85)	3.16(0.76)	3.05(0.67)	3.10(0.52)
가정의 주관적 경제 수준	최하	2.86(0.77)	2.82(1.07)	2.77(0.81)	3.18(0.88)	2.77(0.69)	2.94(1.09)	2.91(0.75)	3.06(1.14)	2.95(0.60)	3.14(0.80)
	하	2.84(0.83)	2.89(0.79)	2.87(0.83)	2.96(0.77)	2.97(0.82)	3.06(0.73)	2.94(0.82)	3.06(0.80)	3.02(0.64)	3.07(0.60)
	보통	3.04(0.75)	3.01(0.74)	3.02(0.76)	3.02(0.74)	3.11(0.76)	3.12(0.72)	3.10(0.75)	3.13(0.74)	3.13(0.58)	3.13(0.55)
	상	3.11(0.74)	2.98(0.80)	3.08(0.73)	3.04(0.80)	3.18(0.76)	3.16(0.78)	3.08(0.76)	3.14(0.81)	3.22(0.53)	3.16(0.60)
	최상	-(-)	2.75(0.96)	-(-)	3.25(0.50)	-(-)	3.00(0.82)	-(-)	3.00(0.82)	-(-)	3.28(0.46)

구분		개인적 차원 ³⁾								개인적 차원 총점	
		어울려 일함		동료와의 경쟁 낮음		자율성		다양한 경험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월평균 가구소득 ²⁾	200만 원 미만	2.69(0.83)	2.90(0.80)	2.89(0.86)	3.15(0.85)	2.97(0.82)	3.06(0.85)	2.96(0.79)	3.27(0.87)	2.94(0.66)	3.15(0.67)
	400만 원 미만	3.01(0.74)	2.98(0.77)	3.03(0.77)	2.95(0.78)	3.09(0.74)	3.07(0.75)	3.08(0.74)	3.11(0.77)	3.12(0.58)	3.05(0.61)
	600만 원 미만	3.03(0.77)	3.00(0.76)	3.01(0.76)	3.00(0.73)	3.08(0.78)	3.13(0.71)	3.09(0.77)	3.13(0.74)	3.12(0.59)	3.12(0.54)
	600만 원 이상	3.04(0.75)	3.01(0.75)	3.01(0.76)	3.08(0.74)	3.13(0.76)	3.14(0.73)	3.07(0.76)	3.11(0.75)	3.15(0.57)	3.17(0.54)
가족 구성 형태 (동거 가족)	부모+자녀	3.02(0.76)	2.99(0.76)	3.01(0.76)	3.01(0.75)	3.10(0.77)	3.11(0.73)	3.08(0.76)	3.11(0.76)	3.13(0.58)	3.11(0.56)
	한부모+자녀	2.94(0.83)	3.04(0.77)	2.92(0.86)	3.07(0.77)	3.03(0.78)	3.16(0.76)	3.02(0.79)	3.19(0.77)	3.06(0.64)	3.16(0.62)
	(한)조부모+자녀	2.94(0.90)	3.07(0.83)	3.24(0.90)	2.79(0.58)	3.12(0.86)	3.07(0.73)	3.18(0.95)	2.86(0.77)	3.06(0.83)	3.03(0.63)
	(한)조부모+부모+자녀	3.11(0.70)	2.99(0.73)	3.04(0.68)	3.01(0.69)	3.13(0.66)	3.11(0.69)	3.03(0.80)	3.16(0.72)	3.18(0.52)	3.14(0.48)
	(한)조부모+한부모+자녀	3.02(0.90)	3.16(0.64)	3.22(0.74)	3.16(0.68)	3.20(0.68)	3.18(0.69)	3.13(0.67)	3.27(0.76)	3.21(0.53)	3.23(0.53)
	기타	3.00(1.22)	2.67(1.53)	2.80(1.10)	2.67(0.58)	3.00(1.225)	2.67(1.53)	2.60(0.89)	3.33(0.58)	2.82(1.04)	3.13(0.61)

- 주: 1) 학교 소재지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제외
 2) KCYPs 2018 월평균 가구소득은 1=소득 없음 ~ 12=1,000만원 이상 범주를 재범주화 하여 리코드 함.
 3) 희망직업 선택 요인은 12가지 요인에 대해 4점 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다~4=매우 중요하다)로 측정함.

표 부록-4-3. 교급별 희망직업 선택 요인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사회적 자원 ³⁾				사회적 자원 총점	
		사회적 명예(위신)		국가/사회 기여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전체		2.92(0.77)	2.90(0.79)	2.81(0.79)	2.79(0.80)	2.87(0.69)	2.85(0.69)
성별	남성	2.93(0.78)	2.86(0.80)	2.83(0.79)	2.76(0.80)	2.88(0.69)	2.81(0.70)
	여성	2.91(0.77)	2.94(0.77)	2.80(0.79)	2.84(0.79)	2.86(0.69)	2.89(0.67)
학교 소재지 ¹⁾	수도권	2.89(0.76)	2.94(0.80)	2.75(0.80)	2.77(0.80)	2.82(0.67)	2.85(0.70)
	비수도권	2.95(0.78)	2.85(0.77)	2.87(0.78)	2.82(0.79)	2.91(0.71)	2.84(0.68)
학교 소재지 규모 ¹⁾	대도시	2.89(0.78)	2.92(0.79)	2.77(0.80)	2.78(0.78)	2.83(0.69)	2.85(0.69)
	중소도시	2.97(0.77)	2.89(0.79)	2.87(0.79)	2.80(0.81)	2.92(0.69)	2.84(0.69)
	읍면지역	2.88(0.75)	2.84(0.77)	2.79(0.79)	2.83(0.81)	2.83(0.68)	2.83(0.68)
가정의 주관적 경제 수준	최하	3.09(0.68)	2.71(0.92)	2.64(1.00)	2.41(1.00)	2.86(0.69)	2.56(0.90)
	하	2.84(0.79)	2.88(0.77)	2.75(0.78)	2.71(0.81)	2.79(0.71)	2.79(0.68)
	보통	2.91(0.77)	2.90(0.78)	2.80(0.78)	2.82(0.79)	2.85(0.68)	2.86(0.68)
	상	3.08(0.78)	2.87(0.89)	3.01(0.85)	2.73(0.84)	3.05(0.74)	2.80(0.77)
	최상	-(⁻)	2.75(0.96)	-(⁻)	2.50(0.58)	-(⁻)	2.63(0.75)

구분		사회적 차원 ³⁾				사회적 차원 총점	
		사회적 명예(위신)		국가/사회 기여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월평균 가구소득 ²⁾	200만 원 미만	2.79(0.81)	2.74(0.81)	2.66(0.76)	2.79(0.91)	2.72(0.69)	2.77(0.77)
	400만 원 미만	2.87(0.74)	2.85(0.79)	2.78(0.79)	2.79(0.77)	2.83(0.68)	2.82(0.68)
	600만 원 미만	2.93(0.77)	2.91(0.79)	2.84(0.76)	2.78(0.80)	2.88(0.68)	2.84(0.69)
	600만 원 이상	2.95(0.78)	2.93(0.78)	2.81(0.83)	2.82(0.80)	2.88(0.71)	2.87(0.69)
가족 구성 형태 (동거 가족)	부모+자녀	2.93(0.77)	2.90(0.78)	2.83(0.79)	2.80(0.80)	2.88(0.69)	2.85(0.69)
	한부모+자녀	2.81(0.78)	2.88(0.78)	2.61(0.78)	2.79(0.78)	2.71(0.69)	2.83(0.69)
	(한)조부모+자녀	2.76(0.97)	2.71(0.91)	2.71(1.05)	2.71(0.83)	2.74(0.95)	2.71(0.75)
	(한)조부모+부모+자녀	2.97(0.72)	2.88(0.80)	2.86(0.74)	2.74(0.79)	2.92(0.61)	2.81(0.71)
	(한)조부모+한부모+자녀	2.94(0.83)	2.77(0.94)	2.74(0.89)	2.89(0.81)	2.84(0.74)	2.83(0.79)
	기타 ¹⁾	2.60(1.14)	2.00(1.00)	2.60(1.14)	3.00(1.00)	2.60(1.14)	2.50(0.87)

주: 1) 학교 소재지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제외
2) KCYPS 2018 월평균 가구소득은 1=소득 없음 ~ 12=1,000만원 이상 범주를 재범주화 하여 리코드 함.
3) 희망직업 선택 요인은 12가지 요인에 대해 4점 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다~4=매우 중요하다)로 측정함.

표 부록-5. 교급별 진로적응력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진로적응력 ³⁾						진로적응력 총점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전체		2.68(0.67)	2.72(0.66)	2.59(0.62)	2.68(0.61)	2.61(0.65)	2.68(0.65)	2.62(0.58)	2.69(0.58)
성별	남성	2.66(0.67)	2.70(0.65)	2.60(0.64)	2.67(0.61)	2.62(0.65)	2.67(0.63)	2.62(0.59)	2.68(0.57)
	여성	2.69(0.67)	2.75(0.67)	2.59(0.61)	2.69(0.61)	2.59(0.65)	2.69(0.66)	2.61(0.56)	2.70(0.58)
학교 소재지 ¹⁾	수도권	2.66(0.66)	2.68(0.65)	2.60(0.61)	2.65(0.60)	2.58(0.66)	2.62(0.67)	2.61(0.58)	2.64(0.57)
	비수도권	2.69(0.68)	2.77(0.66)	2.59(0.63)	2.71(0.62)	2.64(0.63)	2.74(0.62)	2.63(0.57)	2.74(0.58)
학교 소재지 규모 ¹⁾	대도시	2.62(0.67)	2.73(0.68)	2.54(0.60)	2.69(0.63)	2.53(0.62)	2.73(0.63)	2.56(0.55)	2.71(0.59)
	중소도시	2.69(0.67)	2.70(0.64)	2.61(0.64)	2.65(0.59)	2.63(0.68)	2.63(0.66)	2.63(0.60)	2.65(0.56)
	읍면지역	2.81(0.64)	2.76(0.65)	2.70(0.61)	2.72(0.59)	2.77(0.60)	2.68(0.64)	2.75(0.55)	2.72(0.56)
가정의 주관적 경제 수준	최하	2.45(0.63)	2.53(0.58)	2.35(0.55)	2.36(0.55)	2.46(0.43)	2.47(0.50)	2.42(0.45)	2.44(0.46)
	하	2.65(0.67)	2.72(0.61)	2.49(0.66)	2.66(0.60)	2.58(0.71)	2.69(0.60)	2.56(0.60)	2.69(0.54)
	보통	2.69(0.67)	2.72(0.66)	2.61(0.61)	2.68(0.61)	2.61(0.64)	2.67(0.65)	2.63(0.57)	2.68(0.58)
	상	2.64(0.70)	2.80(0.79)	2.61(0.66)	2.78(0.63)	2.66(0.65)	2.82(0.66)	2.64(0.61)	2.80(0.63)
	최상	-()	2.75(0.74)	-()	2.70(0.62)	-()	2.75(0.68)	-()	2.73(0.67)

구분		진로적응력 ³⁾						진로적응력 총점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311)	고2 (n=2,252)
월평균 가구 소득 ²⁾	200만 원 미만	2.52(0.66)	2.72(0.62)	2.48(0.60)	2.61(0.65)	2.58(0.63)	2.60(0.61)	2.53(0.56)	2.63(0.57)
	400만 원 미만	2.70(0.67)	2.71(0.62)	2.58(0.64)	2.66(0.59)	2.59(0.65)	2.63(0.65)	2.61(0.57)	2.66(0.56)
	600만 원 미만	2.67(0.66)	2.71(0.65)	2.59(0.61)	2.66(0.61)	2.58(0.63)	2.66(0.64)	2.60(0.57)	2.67(0.57)
	600만 원 이상	2.69(0.68)	2.75(0.69)	2.62(0.63)	2.72(0.62)	2.64(0.66)	2.74(0.65)	2.64(0.59)	2.74(0.59)
가족 구성 형태 (동거 가족)	부모+자녀	2.68(0.67)	2.71(0.67)	2.60(0.62)	2.68(0.61)	2.62(0.64)	2.68(0.65)	2.63(0.58)	2.69(0.58)
	한부모+자녀	2.62(0.65)	2.79(0.66)	2.52(0.58)	2.72(0.65)	2.52(0.64)	2.71(0.64)	2.54(0.55)	2.73(0.59)
	(한)조부모+자녀	2.45(0.67)	2.50(0.58)	2.34(0.76)	2.49(0.41)	2.46(0.73)	2.34(0.60)	2.41(0.66)	2.43(0.43)
	(한)조부모+부모+자녀	2.70(0.66)	2.77(0.61)	2.60(0.63)	2.68(0.56)	2.59(0.68)	2.68(0.60)	2.62(0.60)	2.70(0.51)
	(한)조부모+한부모+자녀	2.66(0.74)	2.70(0.54)	2.57(0.66)	2.71(0.51)	2.55(0.61)	2.69(0.62)	2.58(0.59)	2.70(0.49)
	기타	2.53(0.51)	2.33(0.67)	2.72(0.52)	2.00(0.53)	2.52(0.30)	2.73(0.70)	2.60(0.30)	2.36(0.62)

주: 1) 학교 소재지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제외

2) KCYPs 2018 월평균 가구소득은 1=소득 없음 ~ 12=1,000만원 이상 범주를 재범주화 하여 리코드 함.

3) 진로적응력은 3개 하위영역 13개 문항(진로관심(3문항), 진로호기심(5문항), 진로자신감(5문항))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진로적응력 산출을 위해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2) 진로 탐색

표 부록-6. 교급별 진로관련 대화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진로관련 대화 상대 ³⁾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척,친지		학교 선생님		상담교사		학원/과외 선생님	
		중2 (n=2,244)	고2 (n=2,182)	중2 (n=2,281)	고2 (n=2,212)	중2 (n=1,945)	고2 (n=1,946)	중2 (n=2,056)	고2 (n=2,106)	중2 (n=2,309)	고2 (n=2,241)	중2 (n=1,911)	고2 (n=1,961)	중2 (n=2,065)	고2 (n=1,990)
전체		2.97 (0.83)	3.02 (0.81)	3.37 (0.76)	3.41 (0.70)	2.73 (1.05)	2.76 (1.02)	1.97 (0.89)	1.99 (0.89)	2.41 (0.85)	2.56 (0.86)	1.93 (0.84)	2.01 (0.91)	2.45 (0.93)	2.56 (0.97)
성별	남성	2.99 (0.82)	3.05 (0.82)	3.31 (0.77)	3.35 (0.72)	2.65 (1.06)	2.70 (1.05)	1.97 (0.89)	1.97 (0.90)	2.40 (0.86)	2.54 (0.88)	1.91 (0.84)	1.99 (0.92)	2.42 (0.92)	2.54 (0.98)
	여성	2.94 (0.84)	2.99 (0.81)	3.42 (0.74)	3.47 (0.68)	2.81 (1.04)	2.83 (0.99)	1.97 (0.89)	2.01 (0.89)	2.42 (0.85)	2.57 (0.84)	1.94 (0.85)	2.04 (0.89)	2.48 (0.93)	2.59 (0.96)
학교 소재지 ¹⁾	수도권	2.99 (0.84)	3.04 (0.81)	3.35 (0.78)	3.40 (0.70)	2.71 (1.08)	2.82 (1.01)	1.98 (0.88)	2.04 (0.87)	2.44 (0.85)	2.58 (0.85)	2.06 (0.88)	2.16 (0.93)	2.47 (0.91)	2.55 (0.96)
	비수도권	2.95 (0.82)	3.00 (0.81)	3.38 (0.74)	3.41 (0.71)	2.76 (1.03)	2.71 (1.03)	1.97 (0.90)	1.94 (0.91)	2.38 (0.85)	2.54 (0.87)	1.79 (0.78)	1.87 (0.86)	2.44 (0.94)	2.59 (0.97)
학교 소재지 규모 ¹⁾	대도시	2.91 (0.85)	3.06 (0.79)	3.32 (0.77)	3.45 (0.67)	2.64 (1.07)	2.81 (1.01)	1.99 (0.87)	2.07 (0.89)	2.38 (0.88)	2.62 (0.84)	1.98 (0.88)	2.11 (0.93)	2.44 (0.93)	2.68 (0.91)
	중소도시	3.03 (0.83)	2.97 (0.84)	3.40 (0.76)	3.33 (0.75)	2.81 (1.05)	2.65 (1.04)	1.98 (0.91)	1.93 (0.90)	2.43 (0.82)	2.47 (0.86)	1.93 (0.82)	1.94 (0.85)	2.46 (0.91)	2.42 (0.97)
	읍면지역	2.96 (0.78)	3.04 (0.82)	3.38 (0.70)	3.46 (0.66)	2.78 (1.02)	2.93 (0.97)	1.92 (0.89)	1.93 (0.86)	2.41 (0.86)	2.59 (0.91)	1.80 (0.77)	1.94 (0.96)	2.48 (0.97)	2.60 (1.05)

구분		진로관련 대화 상대 ³⁾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척.친지		학교 선생님		상담교사		학원/과외 선생님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n=2,244)	(n=2,182)	(n=2,281)	(n=2,212)	(n=1,945)	(n=1,946)	(n=2,056)	(n=2,106)	(n=2,309)	(n=2,241)	(n=1,911)	(n=1,961)	(n=2,065)	(n=1,990)
가정의 주관적 경제 수준	최하	2.81 (1.17)	2.79 (0.89)	2.95 (0.91)	2.88 (0.89)	2.59 (1.18)	2.33 (1.15)	1.95 (1.18)	1.56 (0.73)	2.18 (0.85)	2.35 (1.06)	1.83 (0.86)	2.00 (0.88)	1.79 (0.85)	2.00 (1.15)
	하	2.70 (0.91)	2.81 (0.84)	3.19 (0.83)	3.23 (0.71)	2.61 (1.04)	2.65 (1.04)	1.82 (0.87)	1.82 (0.83)	2.26 (0.87)	2.40 (0.87)	1.79 (0.83)	1.81 (0.81)	2.31 (0.94)	2.35 (1.01)
	보통	2.98 (0.82)	3.04 (0.80)	3.38 (0.74)	3.43 (0.70)	2.73 (1.06)	2.79 (1.02)	2.00 (0.89)	2.02 (0.89)	2.41 (0.85)	2.57 (0.86)	1.91 (0.83)	2.04 (0.91)	2.47 (0.93)	2.58 (0.95)
	상	3.14 (0.74)	3.10 (0.83)	3.49 (0.73)	3.51 (0.66)	2.88 (1.01)	2.68 (1.03)	1.92 (0.89)	1.94 (0.98)	2.59 (0.82)	2.72 (0.84)	2.19 (0.91)	2.02 (1.00)	2.53 (0.88)	2.76 (0.98)
	최상	-()	3.50 (0.58)	-()	3.50 (0.58)	-()	3.00 (0.82)	-()	2.50 (0.58)	-()	3.00 (0.82)	-()	2.25 (0.96)	-()	3.00 (0.82)
월평균 가구소득 ²⁾	200만 원 미만	2.66 (1.08)	2.65 (1.04)	3.00 (0.88)	3.24 (0.79)	2.40 (1.15)	2.47 (1.18)	1.90 (1.00)	1.87 (0.93)	2.43 (0.89)	2.57 (0.99)	2.05 (0.91)	1.98 (1.09)	2.19 (1.06)	2.32 (1.27)
	400만 원 미만	2.77 (0.84)	2.86 (0.81)	3.25 (0.78)	3.26 (0.73)	2.62 (1.01)	2.61 (0.99)	1.91 (0.86)	1.93 (0.88)	2.38 (0.90)	2.49 (0.92)	1.88 (0.89)	1.92 (0.92)	2.31 (0.97)	2.36 (1.03)
	600만 원 미만	2.96 (0.80)	3.01 (0.77)	3.37 (0.74)	3.40 (0.69)	2.79 (1.03)	2.76 (0.99)	2.04 (0.90)	1.96 (0.84)	2.43 (0.84)	2.56 (0.84)	1.94 (0.83)	2.04 (0.91)	2.50 (0.94)	2.58 (0.97)
	600만 원 이상	3.09 (0.82)	3.16 (0.82)	3.44 (0.74)	3.52 (0.68)	2.74 (1.08)	2.87 (1.06)	1.94 (0.89)	2.08 (0.95)	2.40 (0.84)	2.60 (0.83)	1.92 (0.82)	2.05 (0.88)	2.49 (0.87)	2.69 (0.87)

구분		진로관련 대화 상대 ³⁾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척.친지		학교 선생님		상담교사		학원/과외 선생님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n=2,244)	(n=2,182)	(n=2,281)	(n=2,212)	(n=1,945)	(n=1,946)	(n=2,056)	(n=2,106)	(n=2,309)	(n=2,241)	(n=1,911)	(n=1,961)	(n=2,065)	(n=1,990)
가족 구성 형태 (동거 가족)	부모+자녀	3.00 (0.81)	3.04 (0.80)	3.39 (0.74)	3.41 (0.70)	2.76 (1.05)	2.76 (1.02)	1.99 (0.89)	1.98 (0.88)	2.40 (0.85)	2.56 (0.87)	1.93 (0.84)	2.03 (0.92)	2.46 (0.92)	2.58 (0.96)
	한부모+자녀	2.72 (0.97)	2.80 (0.92)	3.20 (0.80)	3.40 (0.72)	2.63 (1.04)	2.76 (1.06)	1.85 (0.93)	2.06 (0.89)	2.30 (0.92)	2.58 (0.86)	1.91 (0.86)	1.92 (0.89)	2.46 (0.98)	2.58 (1.02)
	(한)조부모+ 자녀	2.55 (0.69)	2.00 (1.00)	2.55 (1.04)	2.25 (0.89)	2.57 (0.79)	2.00 (0.93)	2.53 (1.01)	2.00 (1.11)	2.71 (0.59)	2.00 (0.88)	2.33 (0.90)	1.77 (0.73)	2.46 (1.05)	2.00 (1.00)
	(한)조부모+ 부모+자녀	2.96 (0.80)	3.13 (0.75)	3.32 (0.72)	3.47 (0.69)	2.61 (1.11)	2.88 (0.97)	1.87 (0.87)	1.98 (0.94)	2.54 (0.86)	2.48 (0.77)	1.87 (0.86)	1.91 (0.84)	2.43 (0.99)	2.45 (1.02)
	(한)조부모+ 한부모+자녀	2.50 (1.06)	2.94 (0.86)	3.09 (0.97)	2.90 (0.79)	2.50 (1.04)	2.25 (0.97)	1.70 (0.77)	2.25 (0.89)	2.43 (0.81)	2.58 (0.93)	2.00 (0.86)	1.97 (0.82)	2.36 (0.94)	2.29 (0.93)
	기타	2.00(-)	2.00 (0.00)	3.00 (0.00)	2.50 (0.71)	2.00 (1.41)	2.00(-)	2.25 (0.96)	2.50 (2.12)	2.60 (0.55)	3.00 (0.00)	2.67 (0.58)	2.00 (1.41)	2.25 (0.50)	3.00(-)

주: 1) 학교 소재지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제외

2) KCYPs 2018 월평균 가구소득은 1=소득 없음 ~ 12=1,000만원 이상 범주를 재범주화 하여 리코드 함.

3) 각 대상자별 진로관련 대화 빈도를 4점 척도(1=전혀 대화하지 않는다~4=자주 대화한다)로 측정하였으며, 해당 없음(ex.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은 제외 하고 산출하였음.

표 부록-7-1. 교급별 진로준비활동 참여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구분		'진로와 직업' 수업 ³⁾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 ³⁾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³⁾				진로 관련 상담 ³⁾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중2 (n=2,311)	고2 (n=2,252)	중2 (n=874)	고2 (n=937)	중2 (n=2,311)	고2 (n=2,252)	중2 (n=633)	고2 (n=656)	중2 (n=2,311)	고2 (n=2,252)	중2 (n=1,102)	고2 (n=1,201)	중2 (n=2,311)	고2 (n=2,252)	중2 (n=583)	고2 (n=913)
전체		874 (37.8)	937 (41.6)	3.25 (0.91)	3.34 (0.87)	633 (27.4)	656 (29.1)	3.25 (0.88)	3.28 (0.88)	1,102 (47.7)	1,201 (53.3)	3.42 (0.80)	3.46 (0.79)	583 (25.2)	913 (40.5)	3.43 (0.84)	3.53 (0.79)
성별	남성	435 (37.7)	506 (42.1)	3.28 (0.93)	3.33 (0.91)	309 (26.8)	357 (29.7)	3.20 (0.88)	3.30 (0.91)	519 (44.9)	615 (51.2)	3.40 (0.79)	3.41 (0.82)	278 (24.1)	470 (39.1)	3.48 (0.81)	3.47 (0.81)
	여성	439 (38.0)	431 (41.0)	3.23 (0.90)	3.35 (0.81)	324 (28.0)	299 (28.5)	3.31 (0.88)	3.25 (0.84)	583 (50.4)	586 (55.8)	3.43 (0.80)	3.52 (0.75)	305 (26.4)	443 (42.2)	3.37 (0.86)	3.59 (0.77)
학교 소재지 ¹⁾	수도권	406 (35.0)	454 (40.5)	3.25 (0.90)	3.28 (0.84)	313 (27.0)	328 (29.3)	3.27 (0.89)	3.17 (0.89)	601 (51.8)	673 (60.0)	3.38 (0.77)	3.44 (0.77)	327 (28.2)	464 (41.4)	3.38 (0.84)	3.46 (0.79)
	비수도권	468 (40.8)	481 (43.3)	3.25 (0.92)	3.40 (0.89)	319 (27.8)	326 (29.4)	3.24 (0.88)	3.38 (0.86)	500 (43.6)	520 (46.8)	3.46 (0.83)	3.50 (0.81)	255 (22.2)	446 (40.2)	3.49 (0.83)	3.59 (0.80)
학교 소재지 규모 ¹⁾	대도시	365 (37.2)	406 (40.8)	3.23 (0.94)	3.36 (0.92)	290 (29.6)	255 (25.6)	3.20 (0.93)	3.31 (0.94)	492 (50.2)	517 (52.0)	3.37 (0.87)	3.39 (0.79)	260 (26.5)	398 (40.0)	3.48 (0.91)	3.52 (0.79)
	중소도시	351 (36.4)	384 (43.3)	3.25 (0.89)	3.30 (0.85)	233 (24.2)	305 (34.4)	3.20 (0.82)	3.22 (0.86)	437 (45.4)	518 (58.4)	3.44 (0.73)	3.52 (0.80)	223 (23.2)	379 (42.7)	3.29 (0.82)	3.54 (0.79)
	읍면지역	158 (43.4)	145 (41.5)	3.32 (0.89)	3.39 (0.77)	109 (29.9)	94 (26.9)	3.50 (0.85)	3.35 (0.80)	172 (47.3)	158 (45.3)	3.49 (0.73)	3.54 (0.69)	99 (27.2)	133 (38.1)	3.57 (0.63)	3.50 (0.81)

구분		‘진로와 직업’ 수업 ³⁾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 ³⁾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³⁾				진로 관련 상담 ³⁾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n=2,311)	(n=2,252)	(n=874)	(n=937)	(n=2,311)	(n=2,252)	(n=633)	(n=656)	(n=2,311)	(n=2,252)	(n=1,102)	(n=1,201)	(n=2,311)	(n=2,252)	(n=583)	(n=913)
가정의 주관적 경제 수준	최하	6 (27.3)	5 (29.4)	3.17 (1.17)	2.80 (0.45)	5 (22.7)	6 (35.3)	3.60 (0.55)	3.50 (1.05)	6 (27.3)	7 (41.2)	3.17 (1.17)	3.57 (0.79)	4 (18.2)	7 (41.2)	3.25 (0.50)	3.57 (0.79)
	하	123 (45.7)	126 (47.5)	3.15 (0.99)	3.37 (0.87)	75 (27.9)	78 (29.4)	3.00 (0.99)	3.33 (0.75)	121 (45.0)	130 (49.1)	3.36 (0.83)	3.44 (0.84)	71 (26.4)	95 (35.8)	3.25 (0.97)	3.53 (0.73)
	보통	647 (36.3)	732 (40.2)	3.24 (0.88)	3.34 (0.87)	477 (26.8)	513 (28.2)	3.23 (0.86)	3.23 (0.90)	844 (47.3)	966 (53.1)	3.39 (0.77)	3.45 (0.78)	428 (24.0)	728 (40.0)	3.40 (0.81)	3.52 (0.81)
	상	97 (41.1)	72 (49.7)	3.48 (0.94)	3.33 (0.90)	75 (31.8)	58 (40.0)	3.60 (0.82)	3.57 (0.84)	130 (55.1)	96 (66.2)	3.64 (0.91)	3.60 (0.83)	80 (33.9)	81 (55.9)	3.71 (0.83)	3.60 (0.74)
	최상	-()	1(25.0)	-()	3.00(-)	-()	0(0.0)	-()	-()	-()	1(25.0)	-()	4.00(-)	-()	1(25.0)	-()	3.00(-)
월평균 가구 소득 ²⁾	200만 원 미만	25 (35.7)	33 (53.2)	3.20 (0.96)	3.12 (0.78)	21 (30.0)	26 (41.9)	3.14 (0.79)	3.35 (0.85)	32 (45.7)	35 (56.5)	3.16 (0.85)	3.46 (0.66)	26 (37.1)	27 (43.5)	3.38 (0.57)	3.52 (0.58)
	400만 원 미만	165 (39.1)	188 (35.8)	3.13 (0.83)	3.38 (0.80)	127 (30.1)	133 (25.3)	3.18 (0.83)	3.28 (0.85)	191 (45.3)	258 (49.1)	3.42 (0.78)	3.55 (0.74)	88 (20.9)	185 (35.2)	3.28 (0.83)	3.55 (0.78)
	600만 원 미만	312 (32.9)	390 (43.6)	3.28 (0.92)	3.34 (0.86)	224 (23.6)	264 (29.5)	3.28 (0.85)	3.26 (0.88)	401 (42.3)	452 (50.5)	3.45 (0.79)	3.50 (0.83)	204 (21.5)	380 (42.5)	3.45 (0.88)	3.53 (0.75)
	600만 원 이상	371 (42.6)	325 (42.3)	3.29 (0.94)	3.34 (0.92)	260 (29.9)	232 (30.2)	3.27 (0.94)	3.28 (0.91)	477 (54.8)	455 (59.2)	3.40 (0.81)	3.37 (0.78)	265 (30.5)	320 (41.6)	3.46 (0.83)	3.52 (0.87)

구분		‘진로와 직업’ 수업 ³⁾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 ³⁾				진로 심리 검사 및 적성 검사 ³⁾				진로 관련 상담 ³⁾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n=2,311)	(n=2,252)	(n=874)	(n=937)	(n=2,311)	(n=2,252)	(n=633)	(n=656)	(n=2,311)	(n=2,252)	(n=1,102)	(n=1,201)	(n=2,311)	(n=2,252)	(n=583)	(n=913)
가족 구성 형태 (동거 가족)	부모+자녀	739 (38.0)	793 (43.0)	3.26 (0.91)	3.33 (0.88)	543 (27.9)	556 (30.1)	3.26 (0.86)	3.28 (0.88)	932 (47.9)	1,000 (54.2)	3.43 (0.79)	3.46 (0.81)	488 (25.1)	770 (41.7)	3.43 (0.83)	3.52 (0.80)
	한부모+자녀	50 (34.5)	63 (34.4)	3.08 (0.90)	3.46 (0.80)	28 (19.3)	42 (23.0)	3.14 (0.93)	3.14 (0.90)	63 (43.4)	85 (46.4)	3.21 (0.88)	3.49 (0.73)	34 (23.4)	67 (36.6)	3.32 (0.91)	3.60 (0.74)
	(한)조부모+ 자녀	4 (23.5)	5 (35.7)	3.00 (0.82)	3.00 (0.71)	3 (17.6)	4 (28.6)	3.00 (1.00)	3.50 (0.58)	6 (35.3)	9 (64.3)	3.00 (1.10)	3.44 (0.73)	5 (29.4)	5 (35.7)	3.00 (0.71)	3.60 (0.55)
	(한)조부모+ 부모+자녀	58 (40.8)	58 (36.0)	3.31 (0.88)	3.34 (0.81)	42 (29.6)	41 (25.5)	3.26 (1.11)	3.24 (0.80)	74 (52.1)	81 (50.3)	3.35 (0.83)	3.44 (0.63)	39 (27.5)	54 (33.5)	3.49 (0.76)	3.48 (0.72)
	(한)조부모+ 한부모+자녀	20 (37.0)	15 (34.1)	3.20 (1.01)	3.33 (0.98)	14 (25.9)	10 (22.7)	3.14 (1.10)	3.30 (1.16)	23 (42.6)	23 (52.3)	3.70 (0.70)	3.35 (0.71)	14 (25.9)	14 (31.8)	3.64 (1.01)	3.93 (0.73)
	기타	2 (40.0)	2 (66.7)	3.50 (0.71)	3.50 (0.71)	2 (40.0)	2 (66.7)	3.50 (0.71)	4.00 (1.41)	3 (60.0)	2 (66.7)	3.33 (0.58)	3.00 (0.00)	3 (60.0)	2 (66.7)	3.33 (1.15)	3.00 (0.00)

주: 1) 학교 소재지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제외

2) KCYPS 2018 월평균 가구소득은 1=소득 없음 ~ 12=1,000만원 이상 범주를 재범주화 하여 리코드 함.

3) 진로준비활동은 ‘1=(참여한 적) 없다 2=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6=매우 도움이 되었다’라고 측정하였으며, 참여 유무(0=참여한 적 없음, 1=참여함)와 도움 정도(‘1=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5=매우 도움이 되었다’) 5점 척도로 리코드하여 사용함.

표 부록-7-2. 교급별 진로준비활동 참여 및 도움 정도

(단위: 명(%)/평균(표준편차))

구분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³⁾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³⁾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³⁾				학업 설계 워크숍 ³⁾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중2 (n=2,311)	고2 (n=2,252)	중2 (n=311)	고2 (n=427)	중2 (n=2,311)	고2 (n=2,252)	중2 (n=417)	고2 (n=551)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73)	고2 (n=486)	중2 (n=2,311)	고2 (n=2,252)	중2 (n=104)	고2 (n=138)
전체		311 (13.5)	427 (19.0)	3.43 (0.93)	3.59 (0.86)	417 (18.0)	551 (24.5)	3.17 (0.98)	3.21 (1.07)	273 (11.8)	486 (21.6)	3.39 (0.88)	3.43(0.87)	104 (4.5)	138 (6.1)	3.32 (0.82)	3.43 (0.85)
성별	남성	141 (12.2)	218 (18.1)	3.43 (0.92)	3.56 (0.85)	191 (16.5)	282 (23.5)	3.19 (0.99)	3.17 (1.09)	135 (11.7)	245 (20.4)	3.47 (0.84)	3.42(0.88)	58 (5.0)	75 (6.2)	3.34 (0.83)	3.35 (0.78)
	여성	170 (14.7)	209 (19.9)	3.44 (0.94)	3.63 (0.87)	226 (19.6)	269 (25.6)	3.15 (0.97)	3.24 (1.05)	138 (11.9)	241 (23.0)	3.3 (1.091)	3.44(0.87)	46 (4.0)	63 (6.0)	3.28 (0.81)	3.52 (0.93)
학교 소재지 ¹⁾	수도권	148 (12.8)	188 (14.2)	3.43 (0.97)	3.62 (0.91)	250 (21.6)	304 (27.1)	3.08 (1.05)	2.99 (1.14)	168 (14.5)	255 (22.7)	3.50 (0.89)	3.40(0.84)	48 (4.1)	57 (5.1)	3.40 (0.98)	3.56 (0.85)
	비수도권	163 (14.2)	238 (16.8)	3.44 (0.90)	3.58 (0.82)	167 (14.6)	245 (22.1)	3.31 (0.85)	3.47 (0.91)	105 (9.2)	230 (20.7)	3.21 (0.83)	3.47(0.91)	56 (4.9)	80 (7.2)	3.25 (0.64)	3.34 (0.86)
학교 소재지 규모 ¹⁾	대도시	144 (14.7)	179 (18.0)	3.39 (1.05)	3.60 (0.95)	195 (19.9)	207 (20.8)	3.19 (1.04)	3.39 (0.94)	106 (10.8)	219 (22.0)	3.40 (0.95)	3.45(0.81)	37 (3.8)	55 (5.5)	3.16 (1.01)	3.44 (0.81)
	중소도시	115 (11.9)	187 (21.1)	3.45 (0.84)	3.64 (0.78)	154 (16.0)	244 (27.5)	3.08 (0.99)	3.07 (1.17)	109 (11.3)	192 (21.6)	3.30 (0.86)	3.37(0.96)	43 (4.5)	52 (5.9)	3.37 (0.76)	3.50 (0.98)
	읍면지역	52 (14.3)	60 (17.2)	3.52 (0.75)	3.47 (0.81)	68 (18.7)	98 (28.1)	3.32 (0.72)	3.14 (1.03)	58 (15.9)	74 (21.2)	3.53 (0.75)	3.53(0.81)	24 (6.6)	30 (8.6)	3.46 (0.51)	3.30 (0.70)

구분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³⁾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³⁾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³⁾				학업 설계 워크숍 ³⁾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중2 (n=2,311)	고2 (n=2,252)	중2 (n=311)	고2 (n=427)	중2 (n=2,311)	고2 (n=2,252)	중2 (n=417)	고2 (n=551)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73)	고2 (n=486)	중2 (n=2,311)	고2 (n=2,252)	중2 (n=104)	고2 (n=138)
가정의 주관적 경제 수준	최하	4 (18.2)	3 (17.6)	3.50 (0.58)	4.00 (1.00)	3 (13.6)	6 (35.3)	3.00 (0.00)	4.00 (0.63)	2 (9.1)	4 (23.5)	3.00 (0.00)	3.75 (0.96)	2 (9.1)	3 (17.6)	3.00 (0.00)	4.00 (1.00)
	하	34 (12.6)	60 (22.6)	3.18 (1.11)	3.47 (0.79)	42 (15.6)	55 (20.8)	2.88 (1.09)	3.36 (0.97)	22 (8.2)	53 (20.0)	3.32 (1.29)	3.38 (0.84)	9 (3.3)	17 (6.4)	2.78 (1.09)	3.29 (0.92)
	보통	240 (13.5)	319 (17.5)	3.44 (0.89)	3.59 (0.86)	324 (18.2)	436 (24.0)	3.18 (0.95)	3.12 (1.09)	214 (12.0)	377 (20.7)	3.38 (0.84)	3.44 (0.88)	84 (4.7)	102 (5.6)	3.39 (0.74)	3.43 (0.85)
	상	33 (14.0)	43 (29.7)	3.67 (1.02)	3.79 (0.91)	48 (20.3)	51 (35.2)	3.40 (1.07)	3.67 (0.89)	35 (14.8)	51 (35.2)	3.49 (0.85)	3.43 (0.88)	9 (3.8)	15 (10.3)	3.22 (1.09)	3.47 (0.83)
	최상	— (—)	1 (25.0)	— (—)	3.00(—)	— (—)	2 (50.0)	— (—)	3.00 (0.00)	— (—)	0(0.0)	— (—)	— (—)	— (—)	0 (0.0)	— (—)	— (—)
월평균 가구 소득 ²⁾	200만 원 미만	10 (14.3)	17 (27.4)	3.50 (0.71)	3.71 (0.69)	16 (22.9)	19 (30.6)	3.19 (0.83)	3.42 (0.69)	9 (12.9)	18 (29.0)	3.44 (1.01)	3.33 (0.77)	6 (8.6)	11 (17.7)	3.33 (0.52)	3.64 (1.03)
	400만 원 미만	52 (12.3)	90 (17.1)	3.23 (0.90)	3.52 (0.86)	74 (17.5)	129 (24.6)	3.00 (0.98)	3.05 (1.17)	54 (12.8)	95 (18.1)	3.07 (0.97)	3.42 (0.82)	2 (5.2)	38 (7.2)	3.05 (0.90)	3.47 (0.69)
	600만 원 미만	130 (13.7)	165 (18.4)	3.57 (0.91)	3.60 (0.82)	150 (15.8)	212 (23.7)	3.19 (0.99)	3.14 (1.07)	94 (9.9)	180 (20.1)	3.43 (0.86)	3.44 (0.88)	40 (4.2)	44 (4.9)	3.35 (0.70)	3.39 (0.78)
	600만 원 이상	119 (13.7)	154 (20.0)	3.37 (0.96)	3.62 (0.91)	177 (20.3)	190 (24.7)	3.23 (0.98)	3.36 (1.01)	116 (13.3)	192 (25.0)	3.50 (0.81)	3.44 (0.91)	36 (4.1)	44 (5.7)	3.44 (0.91)	3.39 (1.02)

구분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 ³⁾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³⁾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³⁾				학업 설계 워크숍 ³⁾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중2 (n=2,311)	고2 (n=2,252)	중2 (n=311)	고2 (n=427)	중2 (n=2,311)	고2 (n=2,252)	중2 (n=417)	고2 (n=551)	중2 (n=2,311)	고2 (n=2,252)	중2 (n=273)	고2 (n=486)	중2 (n=2,311)	고2 (n=2,252)	중2 (n=104)	고2 (n=138)
가족 구성 형태 (동거 가족)	부모+자녀	266 (13.7)	359 (19.4)	3.44 (0.94)	3.58 (0.86)	340 (17.5)	456 (24.7)	3.17 (0.98)	3.21 (1.08)	234 (12.0)	409 (22.2)	3.40 (0.86)	3.43 (0.88)	86 (4.4)	116 (6.3)	3.35 (0.76)	3.45 (0.87)
	한부모+자녀	18 (12.4)	33 (18.0)	3.17 (1.04)	3.67 (0.85)	26 (17.9)	43 (23.5)	2.88 (1.07)	3.35 (1.00)	11 (7.6)	39 (21.3)	2.73 (1.01)	3.51 (0.85)	6 (4.1)	14 (7.7)	2.67 (1.03)	3.50 (0.76)
	(한)조부모+ 자녀	3 (17.6)	1 (7.1)	3.00 (1.00)	4.00(-)	3 (17.6)	2 (14.3)	3.33 (0.58)	3.50 (0.71)	3 (17.6)	1 (7.1)	3.33 (0.58)	3.00(-)	1 (5.9)	0 (0.0)	3.00(-)	-(-)
	(한)조부모+ 부모+자녀	14 (9.9)	22 (13.7)	3.29 (0.61)	3.64 (0.85)	33 (23.2)	35 (21.7)	3.21 (0.93)	2.97 (1.10)	16 (11.3)	31 (19.3)	3.69 (0.70)	3.29 (0.74)	7 (4.9)	5 (3.1)	3.43 (0.53)	3.00 (0.71)
	(한)조부모+ 한부모+자녀	7 (13.0)	10 (22.7)	3.86 (0.69)	3.80 (0.79)	14 (25.9)	13 (29.5)	3.57 (0.94)	3.23 (1.09)	8 (14.8)	5 (11.4)	3.38 (1.30)	3.60 (1.14)	3 (5.6)	2 (4.5)	3.33 (2.08)	3.00 (1.41)
	기타	3 (60.0)	1 (33.3)	4.33 (0.58)	3.00(-)	1 (20.0)	1 (33.3)	4.00(-)	3.00(-)	1 (20.0)	0 (0.0)	4.00(-)	-(-)	1 (20.0)	0 (0.0)	4.00(-)	-(-)

주: 1) 학교 소재지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제외

2) KCYPS 2018 월평균 가구소득은 1=소득 없음 ~ 12=1,000만원 이상 범주를 재범주화 하여 리코드 함.

3) 진로준비활동은 '1=(참여한 적) 없다 2=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6=매우 도움이 되었다'라고 측정하였으며, 참여 유무(0=참여한 적 없음, 1=참여함)와 도움 정도('1=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5=매우 도움이 되었다') 5점 척도로 리코드하여 사용함.

표 부록-7-3. 교급별 진로준비활동 참여 및 도움 정도

(단위: 명(%)/평균(표준편차))

구분		현장 견학 ³⁾				현장 직업 체험 ³⁾				직업 실무 체험 ³⁾				진로 캠프 ³⁾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중2 (n=2,311)	고2 (n=2,252)	중2 (n=356)	고2 (n=280)	중2 (n=2,311)	고2 (n=2,252)	중2 (n=305)	고2 (n=207)	중2 (n=2,311)	고2 (n=2,252)	중2 (n=129)	고2 (n=91)	중2 (n=2,311)	고2 (n=2,252)	중2 (n=133)	고2 (n=117)
전체		356 (15.4)	280 (12.4)	3.60 (0.79)	3.64 (0.81)	305 (13.2)	207 (9.2)	3.66 (0.77)	3.66 (0.76)	129 (5.6)	91 (4.0)	3.54 (0.86)	3.66 (0.90)	133 (5.8)	117 (5.2)	3.38 (0.93)	3.42 (0.87)
성별	남성	185 (16.0)	157 (13.1)	3.62 (0.87)	3.70 (0.81)	142 (12.3)	116 (9.7)	3.64 (0.85)	3.62 (0.72)	64 (5.5)	50 (4.2)	3.50 (0.93)	3.72 (0.81)	71 (6.1)	53 (4.4)	3.38 (0.85)	3.45 (0.93)
	여성	171 (14.8)	123 (11.7)	3.58 (0.70)	3.56 (0.80)	163 (14.1)	91 (8.7)	3.67 (0.71)	3.71 (0.81)	65 (5.6)	41 (3.9)	3.58 (0.79)	3.59 (1.00)	62 (5.4)	64 (6.1)	3.37 (1.01)	3.39 (83)
학교 소재지 ¹⁾	수도권	183 (15.8)	137 (12.2)	3.66 (0.77)	3.71 (0.82)	166 (14.3)	108 (9.6)	3.80 (0.70)	3.71 (0.79)	62 (5.3)	37 (3.3)	3.85 (0.76)	3.73 (0.99)	36 (3.1)	38 (3.4)	3.50 (0.88)	3.42 (0.92)
	비수도권	173 (15.1)	141 (12.7)	3.54 (0.81)	3.57 (0.80)	139 (12.1)	95 (8.6)	3.50 (0.83)	3.60 (0.74)	66 (5.8)	53 (4.8)	3.24 (0.84)	3.60 (0.84)	96 (8.4)	77 (6.9)	3.33 (0.95)	3.42 (0.86)
학교 소재지 규모 ¹⁾	대도시	134 (13.7)	90 (9.0)	3.66 (0.82)	3.74 (0.88)	121 (12.3)	70 (7.0)	3.63 (0.86)	3.80 (0.89)	39 (4.0)	30 (3.0)	3.54 (1.07)	3.73 (0.98)	47 (4.8)	35 (3.5)	3.30 (1.14)	3.63 (0.84)
	중소도시	135 (14.0)	122 (13.8)	3.56 (0.81)	3.66 (0.83)	111 (11.5)	77 (8.7)	3.69 (0.70)	3.68 (0.73)	50 (5.2)	34 (3.8)	3.52 (0.74)	3.68 (1.01)	48 (5.0)	46 (5.2)	3.38 (0.84)	3.33 (1.01)
	읍면지역	87 (23.9)	66 (18.9)	3.59 (0.72)	3.45 (0.64)	73 (20.1)	56 (16.0)	3.66 (0.75)	3.46 (0.57)	39 (10.7)	26 (7.4)	3.56 (0.79)	3.54 (0.65)	37 (10.2)	34 (9.7)	3.49 (0.73)	3.32 (0.68)

구분		현장 견학 ³⁾				현장 직업 체험 ³⁾				직업 실무 체험 ³⁾				진로 캠프 ³⁾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중2 (n=2,311)	고2 (n=2,252)	중2 (n=356)	고2 (n=280)	중2 (n=2,311)	고2 (n=2,252)	중2 (n=305)	고2 (n=207)	중2 (n=2,311)	고2 (n=2,252)	중2 (n=129)	고2 (n=91)	중2 (n=2,311)	고2 (n=2,252)	중2 (n=133)	고2 (n=117)
가정의 주관적 경제 수준	최하	6 (27.3)	0 (0.0)	3.67 (1.03)	-()	2 (9.1)	0 (0.0)	3.50 (0.71)	-()	2 (9.1)	0 (0.0)	3.50 (0.71)	-()	2 (9.1)	0 (0.0)	3.50 (0.71)	-()
	하	37 (13.8)	34 (12.8)	3.43 (0.80)	3.59 (0.86)	35 (13.0)	23 (8.7)	3.34 (0.87)	3.61 (0.72)	13 (4.8)	16 (6.0)	3.00 (1.00)	3.69 (0.70)	15 (5.6)	13 (4.9)	2.87 (0.92)	3.54 (0.78)
	보통	276 (15.5)	212 (11.6)	3.56 (0.78)	3.59 (0.82)	232 (13.0)	159 (8.7)	3.66 (0.76)	3.64 (0.78)	103 (5.8)	70 (3.8)	3.55 (0.81)	3.69 (0.94)	108 (6.1)	94 (5.2)	3.41 (0.91)	3.39 (0.89)
	상	37 (15.7)	33 (22.8)	4.08 (0.72)	4.00 (0.61)	36 (15.3)	24 (16.6)	4.00 (0.68)	3.88 (0.61)	11 (4.7)	4 (2.8)	4.09 (0.83)	3.25 (0.96)	8 (3.4)	9 (6.2)	3.88 (0.99)	3.56 (0.88)
	최상	-()	0(0.0)	-()	-()	-()	0(0.0)	-()	-()	-()	0(0.0)	-()	-()	-()	0(0.0)	-()	-()
월평균 가구 소득 ²⁾	200만 원 미만	11 (15.7)	16 (25.8)	3.64 (0.81)	3.69 (0.79)	13 (18.6)	13 (21.0)	3.54 (0.52)	3.62 (0.87)	7 (10.0)	9 (14.5)	3.43 (0.53)	3.44 (0.73)	7 (10.0)	8 (12.9)	3.29 (1.11)	3.38 (0.92)
	400만 원 미만	69 (16.4)	54 (10.3)	3.46 (0.83)	3.56 (0.79)	54 (12.8)	45 (8.6)	3.22 (0.84)	3.53 (0.73)	28 (6.6)	24 (4.6)	3.21 (0.79)	3.63 (0.82)	28 (6.6)	22 (4.2)	3.07 (0.90)	3.27 (0.55)
	600만 원 미만	123 (13.0)	116 (13.0)	3.63 (0.75)	3.59 (0.78)	99 (10.4)	78 (8.7)	3.73 (0.74)	3.72 (0.70)	38 (4.0)	37 (4.1)	3.37 (0.94)	3.92 (0.92)	52 (5.5)	47 (5.3)	3.38 (0.87)	3.53 (0.95)
	600만 원 이상	153 (17.6)	93 (12.1)	3.65 (0.81)	3.75 (0.86)	139 (16.0)	70 (9.1)	3.79 (0.74)	3.70 (0.82)	56 (6.4)	20 (2.6)	3.84 (0.78)	3.35 (0.93)	46 (5.3)	39 (5.1)	3.57 (0.96)	3.38 (0.94)

구분		현장 견학 ³⁾				현장 직업 체험 ³⁾				직업 실무 체험 ³⁾				진로 캠프 ³⁾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중2 (n=2,311)	고2 (n=2,252)	중2 (n=356)	고2 (n=280)	중2 (n=2,311)	고2 (n=2,252)	중2 (n=305)	고2 (n=207)	중2 (n=2,311)	고2 (n=2,252)	중2 (n=129)	고2 (n=91)	중2 (n=2,311)	고2 (n=2,252)	중2 (n=133)	고2 (n=117)
가족 구성 형태 (동거 가족)	부모+자녀	291 (14.9)	235 (12.7)	3.59 (0.78)	3.64 (0.82)	239 (12.3)	164 (8.9)	3.68 (0.75)	3.68 (0.77)	102 (5.2)	69 (3.7)	3.60 (0.82)	3.68 (0.95)	110 (5.6)	96 (5.2)	3.35 (0.90)	3.49 (0.89)
	한부모+자녀	27 (18.6)	21 (11.5)	3.67 (1.00)	3.38 (0.67)	24 (16.6)	20 (10.9)	3.50 (0.78)	3.55 (0.60)	9 (6.2)	10 (5.5)	3.33 (1.12)	3.60 (0.70)	8 (5.5)	12 (6.6)	3.13 (1.55)	3.33 (0.65)
	(한)조부모+ 자녀	1 (5.9)	0 (0.0)	3.00(-)	-(-)	2 (11.8)	0 (0.0)	3.00 (0.00)	-(-)	1 (5.9)	1 (7.1)	3.00(-)	5.00(-)	2 (11.8)	0 (0.0)	3.50 (0.71)	-(-)
	(한)조부모+ 부모+자녀	26 (18.3)	20 (12.4)	3.54 (0.71)	3.90 (0.72)	28 (19.7)	18 (11.2)	3.64 (0.91)	3.67 (0.77)	12 (8.5)	7 (4.3)	3.17 (0.83)	3.57 (0.79)	8 (5.6)	6 (3.7)	3.50 (0.53)	2.67 (0.52)
	(한)조부모+ 한부모+자녀	10 (18.5)	3 (6.8)	3.90 (0.88)	3.67 (1.15)	10 (18.5)	4 (9.1)	3.60 (1.07)	3.75 (0.96)	5 (9.3)	3 (6.8)	3.80 (1.10)	3.33 (0.58)	4 (7.4)	2 (4.5)	4.00 (0.82)	3.00 (1.41)
	기타	1 (20.0)	0 (0.0)	4.00(-)	-(-)	2 (40.0)	0 (0.0)	4.00 (0.00)	-(-)	0 (0.0)	0 (0.0)	-(-)	-(-)	1 (20.0)	0 (0.0)	4.00(-)	-(-)

주: 1) 학교 소재지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제외

2) KCYPS 2018 월평균 가구소득은 1=소득 없음 ~ 12=1,000만원 이상 범주를 재범주화 하여 리코드 함.

3) 진로준비활동은 '1=(참여한 적) 없다 2=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6=매우 도움이 되었다'라고 측정하였으며, 참여 유무(0=참여한 적 없음, 1=참여함)와 도움 정도('1=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5=매우 도움이 되었다') 5점 척도로 리코드하여 사용함.

표 부록-7-4. 교급별 진로준비활동 참여 및 도움 정도

(단위: 명(%)/평균(표준편차))

구분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 ³⁾				직업박람회 ³⁾				진로 관련 책/잡지 ³⁾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³⁾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중2 (n=2,311)	고2 (n=2,252)	중2 (n=108)	고2 (n=243)	중2 (n=2,311)	고2 (n=2,252)	중2 (n=98)	고2 (n=149)	중2 (n=2,311)	고2 (n=2,252)	중2 (n=361)	고2 (n=428)	중2 (n=2,311)	고2 (n=2,252)	중2 (n=578)	고2 (n=705)
전체		108 (4.7)	243 (10.8)	3.56 (0.92)	3.65 (0.87)	98 (4.2)	149 (6.6)	3.44 (0.81)	3.50 (0.82)	361 (15.6)	428 (19.0)	3.40 (0.83)	3.53 (0.79)	578 (25.0)	705 (31.3)	3.39 (0.99)	3.59 (0.80)
성별	남성	59 (5.1)	121 (10.1)	3.47 (1.02)	3.63 (0.91)	56 (4.8)	77 (6.4)	3.43 (0.89)	3.52 (0.85)	172 (14.9)	215 (17.9)	3.44 (0.88)	3.46 (0.80)	283 (24.5)	343 (28.5)	3.38 (0.99)	3.51 (0.82)
	여성	49 (4.2)	122 (11.6)	3.65 (0.78)	3.67 (0.84)	42 (3.6)	72 (6.9)	3.45 (0.71)	3.47 (0.79)	189 (16.3)	213 (20.3)	3.37 (0.79)	3.60 (0.77)	295 (25.5)	362 (34.5)	3.40 (0.99)	3.66 (0.78)
학교 소재지 ¹⁾	수도권	43 (3.7)	92 (8.2)	3.77 (1.02)	3.62 (0.89)	51 (4.4)	77 (6.9)	3.57 (0.85)	3.57 (0.80)	163 (14.1)	155 (13.8)	3.50 (0.82)	3.52 (0.74)	293 (25.3)	297 (26.5)	3.34 (1.03)	3.57 (0.77)
	비수도권	65 (5.7)	150 (13.5)	3.42 (0.83)	3.67 (0.87)	47 (4.1)	71 (6.4)	3.30 (0.75)	3.41 (0.84)	197 (17.2)	270 (24.3)	3.31 (0.84)	3.53 (0.81)	283 (24.7)	404 (36.4)	3.44 (0.94)	3.60 (0.82)
학교 소재지 규모 ¹⁾	대도시	37 (3.8)	79 (7.9)	3.49 (1.17)	3.66 (0.92)	38 (3.9)	44 (4.4)	3.55 (0.98)	3.45 (0.73)	129 (13.2)	175 (17.6)	3.67 (0.80)	3.48 (0.84)	222 (22.7)	314 (31.6)	3.62 (0.87)	3.57 (0.82)
	중소도시	43 (4.5)	113 (12.7)	3.72 (0.83)	3.65 (0.87)	43 (4.5)	61 (6.9)	3.37 (0.69)	3.61 (0.90)	158 (16.4)	160 (18.0)	3.23 (0.84)	3.69 (0.70)	244 (25.3)	256 (28.9)	3.30 (1.02)	3.68 (0.77)
	읍면지역	28 (7.7)	50 (14.3)	3.39 (0.63)	3.64 (0.83)	17 (4.7)	43 (12.3)	3.35 (0.70)	3.37 (0.79)	73 (20.1)	90 (25.8)	3.27 (0.75)	3.32 (0.78)	110 (30.2)	131 (37.5)	3.14 (1.05)	3.45 (0.80)

구분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 ³⁾				직업박람회 ³⁾				진로 관련 책/잡지 ³⁾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³⁾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중2 (n=2,311)	고2 (n=2,252)	중2 (n=108)	고2 (n=243)	중2 (n=2,311)	고2 (n=2,252)	중2 (n=98)	고2 (n=149)	중2 (n=2,311)	고2 (n=2,252)	중2 (n=361)	고2 (n=428)	중2 (n=2,311)	고2 (n=2,252)	중2 (n=578)	고2 (n=705)
가정의 주관적 경제 수준	최하	1 (4.5)	3 (17.6)	3.00(-)	3.33 (0.58)	1 (4.5)	0 (0.0)	3.00(-)	-	2 (9.1)	5 (29.4)	3.00 (0.00)	3.80 (0.84)	4 (18.2)	6 (35.3)	3.25 (0.50)	4.17 (0.75)
	하	11 (4.1)	27 (10.2)	2.91 (1.04)	3.63 (0.79)	9 (3.3)	17 (6.4)	3.11 (1.05)	3.41 (0.62)	35 (13.0)	51 (19.2)	3.20 (0.90)	3.33 (0.89)	58 (21.6)	87 (32.8)	3.19 (0.98)	3.55 (0.75)
	보통	84 (4.7)	189 (10.4)	3.57 (0.87)	3.62 (0.89)	76 (4.3)	121 (6.6)	3.45 (0.76)	3.50 (0.84)	266 (14.9)	333 (18.3)	3.41 (0.82)	3.53 (0.79)	426 (23.9)	549 (30.2)	3.36 (0.97)	3.57 (0.82)
	상	12 (5.1)	24 (16.6)	4.08 (0.90)	3.96 (0.86)	12 (5.1)	11 (7.6)	3.67 (0.98)	3.64 (0.92)	58 (24.6)	38 (26.2)	3.50 (0.88)	3.79 (0.58)	90 (38.1)	62 (42.8)	3.66 (1.07)	3.73 (0.75)
	최상	-(-)	0(0.0)	-(-)	-(-)	-(-)	0(0.0)	-(-)	-(-)	-(-)	1(25.0)	-(-)	3.00(-)	-(-)	1(25.0)	-(-)	4.00(-)
월평균 가구 소득 ²⁾	200만 원 미만	3 (4.3)	11 (17.7)	2.33 (1.15)	3.36 (0.81)	2 (2.9)	14 (22.6)	3.50 (0.71)	3.29 (0.73)	10 (14.3)	21 (33.9)	3.20 (0.42)	3.19 (0.98)	19 (27.1)	24 (38.7)	3.21 (0.54)	3.42 (0.88)
	400만 원 미만	27 (6.4)	53 (10.1)	3.37 (0.84)	3.66 (0.71)	19 (4.5)	40 (7.6)	3.11 (0.81)	3.60 (0.78)	64 (15.2)	87 (16.6)	3.31 (0.87)	3.48 (0.74)	94 (22.3)	135 (25.7)	3.28 (0.91)	3.59 (0.71)
	600만 원 미만	44 (4.6)	98 (10.9)	3.52 (0.82)	3.71 (0.87)	45 (4.7)	58 (6.5)	3.44 (0.78)	3.59 (0.84)	123 (13.0)	162 (18.1)	3.37 (0.85)	3.50 (0.81)	200 (21.1)	273 (30.5)	3.48 (0.90)	3.56 (0.81)
	600만 원 이상	34 (3.9)	81 (10.5)	3.85 (0.99)	3.60 (0.98)	32 (3.7)	37 (4.8)	3.63 (0.83)	3.32 (0.85)	164 (18.9)	158 (20.5)	3.47 (0.82)	3.63 (0.75)	265 (30.5)	273 (35.5)	3.38 (1.10)	3.63 (0.83)

구분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 ³⁾				직업박람회 ³⁾				진로 관련 책/잡지 ³⁾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³⁾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참여함		도움 정도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중2	고2
		(n=2,311)	(n=2,252)	(n=108)	(n=243)	(n=2,311)	(n=2,252)	(n=98)	(n=149)	(n=2,311)	(n=2,252)	(n=361)	(n=428)	(n=2,311)	(n=2,252)	(n=578)	(n=705)
가족 구성 형태 (동거 가족)	부모+자녀	86 (4.4)	208 (11.3)	3.56 (0.85)	3.67 (0.88)	83 (4.3)	126 (6.8)	3.46 (0.75)	3.52 (0.84)	301 (15.5)	361 (19.6)	3.41 (0.83)	3.57 (0.76)	474 (24.3)	596 (32.3)	3.41 (0.99)	3.61 (0.80)
	한부모+자녀	8 (5.5)	17 (9.3)	3.13 (1.55)	3.65 (0.86)	4 (2.8)	12 (6.6)	3.00 (1.63)	3.42 (0.67)	25 (17.2)	35 (19.1)	3.20 (1.00)	3.37 (0.84)	42 (29.0)	54 (29.5)	3.21 (0.98)	3.50 (0.80)
	(한)조부모+ 자녀	1 (5.9)	0 (0.0)	3.00(-)	-(-)	1 (5.9)	1 (7.1)	3.00(-)	3.00(-)	2 (11.8)	1 (7.1)	3.00 (0.00)	2.00(-)	4 (23.5)	2 (14.3)	3.00 (0.82)	3.50 (0.71)
	(한)조부모+ 부모+자녀	11 (7.7)	13 (8.1)	3.73 (0.90)	3.38 (0.65)	8 (5.6)	6 (3.7)	3.13 (0.64)	3.33 (0.52)	25 (17.6)	24 (14.9)	3.36 (0.70)	3.29 (0.95)	41 (28.9)	40 (24.8)	3.27 (1.03)	3.38 (0.90)
	(한)조부모+ 한부모+자녀	2 (3.7)	5 (11.4)	4.50 (0.71)	3.60 (1.14)	2 (3.7)	4 (9.1)	5.00 (0.00)	3.50 (1.29)	7 (13.0)	6 (13.6)	3.86 (0.90)	3.50 (1.22)	14 (25.9)	11 (25.0)	3.71 (0.99)	3.82 (0.87)
	기타	0 (0.0)	0 (0.0)	-(-)	-(-)	0 (0.0)	0 (0.0)	-(-)	-(-)	1 (20.0)	1 (33.3)	4.00(-)	4.00(-)	3 (60.0)	2 (66.7)	3.00 (1.00)	3.50 (0.71)

주: 1) 학교 소재지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제외

2) KCYPS 2018 월평균 가구소득은 1=소득 없음 ~ 12=1,000만원 이상 범주를 재범주화 하여 리코드 함.

3) 진로준비활동은 '1=(참여한 적) 없다 2=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6=매우 도움이 되었다'라고 측정하였으며, 참여 유무(0=참여한 적 없음, 1=참여함)와 도움 정도('1=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5=매우 도움이 되었다') 5점 척도로 리코드하여 사용함.

3) 진로 경험

표 부록-8. 교급별 체험활동 중 직업/진로 관련 활동 참여 및 만족도

(단위: 명(%)/평균(표준편차))

구분		체험활동 중 직업/진로 관련 활동			
		참여함 ³⁾		만족도 ⁴⁾	
		중2 (n=2,311)	고2 (n=2,252)	중2 (n=691)	고2 (n=751)
전체		691(29.9)	751(33.3)	3.03(0.59)	3.01(0.56)
성별	남성	331(28.7)	400(33.3)	2.99(0.57)	2.98(0.57)
	여성	360(31.1)	351(33.4)	3.06(0.60)	3.05(0.55)
학교 소재지 ¹⁾	수도권	345(29.7)	347(31.0)	3.03(0.60)	2.95(0.59)
	비수도권	345(30.1)	394(35.5)	3.03(0.58)	3.07(0.53)
학교 소재지 규모 ¹⁾	대도시	267(27.2)	283(28.4)	3.05(0.60)	3.04(0.55)
	중소도시	304(31.6)	317(35.7)	2.99(0.58)	2.97(0.57)
	읍면지역	119(32.7)	141(40.4)	3.09(0.57)	3.06(0.55)
가정의 주관 적 경제 수준	최하	6(27.3)	5(29.4)	3.00(0.89)	3.00(0.00)
	하	90(33.5)	90(34.0)	2.98(0.60)	2.99(0.59)
	보통	527(29.6)	594(32.6)	3.03(0.58)	3.01(0.56)
	상	67(28.4)	61(42.1)	3.07(0.59)	3.07(0.60)
	최상	-()	0(0.0)	-()	-()
월평균 가구소득 ²⁾	200만 원 미만	33(47.1)	28(45.2)	2.97(0.53)	3.07(0.66)
	400만 원 미만	131(31.0)	172(32.8)	3.06(0.55)	2.97(0.54)
	600만 원 미만	264(27.8)	298(33.3)	2.99(0.61)	2.98(0.58)
	600만 원 이상	262(30.1)	252(32.8)	3.05(0.58)	3.08(0.54)
가족 구성 형태 (동거 가족)	부모+자녀	572(29.4)	629(34.1)	3.01(0.58)	3.02(0.57)
	한부모+자녀	48(33.1)	56(30.6)	3.08(0.65)	3.13(0.47)
	(한)조부모+자녀	5(29.4)	2(14.3)	3.20(0.45)	2.50(0.71)
	(한)조부모+부모+자녀	52(36.6)	50(31.1)	3.12(0.65)	2.90(0.46)
	(한)조부모+한부모+자녀	12(22.2)	13(29.5)	3.08(0.29)	2.85(0.80)
	기타	1(20.0)	0(0.0)	3.00(-)	-()

주: 1) 학교 소재지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제외
 2) KCYPs 2018 월평균 가구소득은 1=소득 없음 ~ 12=1,000만원 이상 범주를 재범주화 하여 리코드 함.
 3) 체험활동 중 직업/진로 관련 활동 참여는 '1=없다 2=1~2회~4=5회 이상'으로 측정하였으며, 참여 유무 (0=참여한 적 없음, 1=참여함)로 리코드하여 사용하였음.
 4) 직업/진로 관련 활동 만족도는 '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4=매우 만족한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함.

표 부록-9. 교급별 아르바이트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명(%)/평균(표준편차))

구분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³⁾		도움 정도 ⁴⁾	
		중2 (n=2,311)	고2 (n=2,252)	중2 (n=39)	고2 (n=235)
전체		39(1.7)	235(10.4)	2.90(1.07)	3.18(1.17)
성별	남성	24(2.1)	134(11.1)	2.92(1.14)	3.19(1.20)
	여성	15(1.3)	101(9.6)	2.87(0.99)	3.17(1.14)
학교 소재지 ¹⁾	수도권	34(2.9)	156(13.9)	2.94(1.07)	3.01(1.19)
	비수도권	5(0.4)	68(6.1)	2.60(1.14)	3.57(0.98)
학교 소재지 규모 ¹⁾	대도시	8(0.8)	65(6.5)	3.13(1.25)	3.54(1.05)
	중소도시	28(2.9)	126(14.2)	2.96(1.00)	2.94(1.18)
	읍면지역	3(0.8)	33(9.5)	1.67(0.58)	3.39(1.06)
가정의 주관 적 경제 수준	최하	4(18.2)	4(23.5)	2.00(0.82)	2.50(1.73)
	하	8(3.0)	42(15.8)	3.38(0.74)	3.48(1.06)
	보통	24(1.3)	181(9.9)	2.71(1.04)	3.09(1.17)
	상	3(1.3)	8(5.5)	4.33(0.58)	4.00(0.93)
	최상	-	0(0.0)	-	-
월평균 가구소득 ²⁾	200만 원 미만	2(2.9)	17(27.4)	2.00(0.00)	3.94(1.25)
	400만 원 미만	9(2.1)	78(14.9)	2.89(1.05)	2.87(1.23)
	600만 원 미만	15(1.6)	87(9.7)	2.53(1.06)	3.09(1.11)
	600만 원 이상	13(1.5)	53(6.9)	3.46(0.97)	3.53(0.97)
가족 구성 형태 (동거 가족)	부모+자녀	32(1.6)	180(9.8)	2.97(1.06)	3.08(1.18)
	한부모+자녀	2(1.4)	25(13.7)	2.50(2.12)	3.72(1.14)
	(한)조부모+자녀	2(11.8)	4(28.6)	3.00(1.41)	3.25(1.26)
	(한)조부모+부모+자녀	2(1.4)	19(11.8)	2.50(0.71)	3.37(1.01)
	(한)조부모+한부모+자녀	1(1.9)	7(15.9)	2.00(-)	3.14(1.21)
	기타	0(0.0)	0(0.0)	-	-

주: 1) 학교 소재지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제외

2) KCYPS 2018 월평균 가구소득은 1=소득 없음 ~ 12=1,000만원 이상 범주를 재범주화 하여 리코드 함.

3)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한 경험을 '1=한 번 이상 있다 2=전혀 없다'로 측정함

4)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래 직업생활에 도움 예상 정도는 아르바이트 유경험자들이 응답하였으며,
'1=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5=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점 척도로 측정함.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3-기본01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 김지경·서정아·송현주
연구보고23-기본02	청소년활동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문호영·서고운·김진호
연구보고23-기본0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 이윤주·최용환·길정아·황현정
연구보고23-기본04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 임희진·황여정
연구보고23-기본05	디지털 유해환경과 청소년 위험행동 실태 연구 / 배상률·김영한·황현정
연구보고23-기본06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 오해섭·최홍일·송원일
연구보고23-기본07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 최정원·이인영·박지숙·이호준
연구보고23-기본08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인재·임지연·김민·강영배
연구보고23-기본09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 박지수·이지연·한윤선·김혁
연구보고23-기본10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조혜영·한지형
연구보고23-기본11	청소년 디지털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 이창호·모상현·최항섭
연구보고23-일반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유성렬·이수정
연구보고23-일반01-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
연구보고23-일반02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I / 양계민·권오영·이영신·장윤선·장인숙
연구보고23-일반07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황진구·김윤희·정윤미
연구보고23-일반07-01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윤희·정윤미
연구보고23-일반08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임선아·김지혜

연구보고23-일반08-01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연구보고23-일반08-02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6-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Ⅲ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3) / 김형주·김정숙·김문길·변금선·배정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 참여-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임성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01) 참여-심층분석 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1 청년종합연구Ⅱ: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 / 백혜정·김지연·김승경·김이배·노혜진·김성아·박광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2 2023년 시설외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1) / 백혜정·김지연·김승경·노혜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3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2) / 김성아·김문길·나원희·한영섭·강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4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3) / 박광옥·김용득·이복실·이은영·이동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9-01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6) / 김경준·김영지·윤철경·이은주·이은주·임성은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3-수시0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내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 / 황진구·김윤희

연구보고23-수시02 미디어 속 학교폭력 양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도출
/ 배상률

연구보고23-수시0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유민상·서고운·신동훈·이지연

연구보고23-수시04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

연구보고23-수시05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김나영

수탁과제

〈 일반 〉

연구보고23-수탁01

디지털시대, 디지털 문해력 개념의 확장 / 황용석·이현주·황현정

연구보고23-수탁02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 강진숙·김지연·류숙

연구보고23-수탁03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사업 성과 연구 / 이윤주·최정원·최홍일·이수진

연구보고23-수탁04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연구보고23-수탁05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3-수탁05-01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정책자료집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3-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플랫폼 개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연구보고23-수탁07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교실 - 교사용 수업활동
안내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연구보고23-수탁08

학교-지역사회-민간연계를 통한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이창호·주예찬·이슬기

연구보고23-수탁09

인성교육 프로그램 비인증제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김봉제·신현우·곽현석

연구보고23-수탁10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김영자·김지연·서고운·이정만·최홍일

연구보고23-수탁10-0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이미숙·양소현·고혜정·최진학·한송이·문미혜·윤애영·김주아·조성윤·박유정

연구보고23-수탁11

2023년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영역 / 최용환, 이동성, 장혜윤, 임채홍

연구보고23-수탁12-01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초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2-02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중고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3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최용환·김동일·박윤수·김보경·장혜윤·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4	2023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 서기희, 김성혜
연구보고23-수탁15	2022년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 최용환·박윤수·김보경·장혜윤·김수진, 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6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서기희·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7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박소영
연구보고23-수탁18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황진구·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3-수탁19	202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0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1	청소년활동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현황 연구 / 서정아·김정율·김지수
연구보고23-수탁22	글로벌 K-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체계 연구 / 양계민·권오영
연구보고23-수탁23	레인보우스쿨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 양계민·이영신
연구보고23-수탁24	지방소멸시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장근영·김기현·이상준·황성수·이규용·윤석천·최성은·조양진
연구보고23-수탁25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3-수탁26	청소년동반자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연구 / 김윤희·황진구·이상현·김태성·정윤미
연구보고23-수탁27	2023년 청년정책 성과자료 제작 / 김기현·김형주·김지민
연구보고23-수탁28	청년문제 대응 자원 조성방안 연구 / 김기현·이윤주·조양진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학폭0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저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고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3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4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5	2022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발간 모음집 / 모상현·김예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모상현·김창경·김예원

연구보고23-학폭07	2022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이경상·남지영·송채원·장원빈
연구보고23-학폭08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보고서 / 모상현·남지영·장원빈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대안01	대안학교(각종학교) 운영실태조사 / 최홍일·김세광·오해섭
연구보고23-대안0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연구 / 최인재·송원일

자 료 집

〈 세 미 나 〉

세미나23-01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 (23.7.19.)
세미나23-0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 설명회 및 방법론 특강 (23.8.24.)
세미나23-03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역사와 전망」 (23.9.12.)

〈 워크숍 〉

워크숍23-01	2022년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23.2.8.)
워크숍23-02	2022 하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23.1.16.)
워크숍23-03	2023 꿈지락 운영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워크숍 (23.5.2.)
워크숍23-04	2023년 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및 중립성 원칙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23.5.3.)
워크숍23-05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기본과정 (23.7.27.~7.28.)
워크숍23-06	2023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회 (23.7.19.)
워크숍23-07	2023년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집필진 워크숍 참고자료 (23.8.5.)
워크숍23-08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심화과정 (23.11.2.~23.11.3.)

〈 포 럼 〉

포럼23-0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23.4.25.)
포럼23-02	챗GPT 알고리즘 이해와 청소년 시민성증진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23.7.4.)
포럼23-03	2023년 다문화 청소년 포럼: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23.8.24.)
포럼23-04	보호소년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보호처분제도 개선 방향 모색 (23.8.25.)
포럼23-05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23.9.20.)
포럼23-0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23.9.21.)
포럼23-07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포럼 (23.10.25.)
포럼23-08	청년종합연구 포럼: 협동연구 연구성과 보고 (23.11.14.)
포럼23-09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대응 (23.11.21.)
포럼23-10	청소년정책포럼 '도시를 만드는 아이들' (23.12.7.)

〈 콜 로 키 움 〉

콜로키움23-01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처리의 이해 (23.4.19.)
콜로키움23-02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1차 콜로키움 "SDGs 시대의 청소년정책" (23.6.19.)
콜로키움23-03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2차 콜로키움 "학습 회복(Learning Recovery)에서 교육 혁신(Education Transformation)으로:코로나 이후 해외 교육 사업의 변화" (23.7.20.)
콜로키움23-04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3차 콜로키움 "청소년 사이버범죄 양상 파악을 위한 연구 방법: ATLAS.ti 23을 이용한 주제 분석(원제: Using Thematic Review with ATLAS.ti 23 to Identify Patterns of Cybercrime among Youths from Literature)" (23.8.18.)
콜로키움23-05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4차 콜로키움 "청소년과 국제개발협력 : 월드비전의 전략과 사례를 중심으로" (23.8.28.)
콜로키움23-06	교육 혁신 도구로서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방향과 현황 (23.9.18.)
콜로키움23-07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5차 콜로키움 "세계시민의량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 도전과 기회를 중심으로" (23.11.13.)
콜로키움23-08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6차 콜로키움 "공존과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의식" (23.12.01.)

〈 기 타 자 료 집 〉

자료23-01	2022 공교육 안팎 대안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 및 연수 보고서
자료23-02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자료23-03	인성교육 재정립 및 학교인성교육 추진방향
자료23-04	학교 시민교육과 시민성 개념의 재구조화
자료23-05	민주적 학교 운영 길잡이
자료23-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자료23-07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위촉식 및 연수
자료23-08	2023년 학생참여교육 실천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자료집
자료23-09	2023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자료23-10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가이드북
자료23-11	제1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3-12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 적응평가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제10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2호(통권 제109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3호(통권 제11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11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4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146호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147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I
148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II
149호 다양한 가족 메타버스 상담·활동·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 연구
150호 메타버스의 활용경험이 청소년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 NYPI Bluenote 통계 〉

74호	후기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결과
75호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76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5차 조사(2022년) 주요 조사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5차년도(2022년) 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교급 및 시대별 코호트 분석과 잠재집단 유형에 따른 특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교급별 코호트 분석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차이를 살펴보고, 시대별 코호트 분석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03의 자료를 활용하여, 과거와 현재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진로준비도의 잠재집단유형에 따른 특징 분석은 먼저,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각 진로준비도 잠재집단 유형 수를 확정하고, 이질적인 하위집단에 따라 개인·환경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각 집단을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진로준비도의 특징을 교급별, 시대별, 그리고 잠재유형에 따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급별 코호트 분석결과, 중고등학생은 교육포부, 희망직업 선택요인, 직업체험 경험 등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희망직업 선택, 진로적응력, 진로준비 활동의 참여빈도 및 도움정도 등에서 교급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시대별 코호트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최근의 고등학생은 높은 교육수준을 희망하지만, 희망직업은 결정하지 못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직업가치 등 진로생각, 심리/적성 검사, 직업체험 등의 진로탐색, 아르바이트 등 진로 경험에서도 과거의 고등학생과 비교할 때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로준비도 잠재집단분석 결과, 중고등학생 모두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였으며, ‘진학 무관심형(교육포부 미결정, 낮은 직업 달성포부)’, ‘진학 관심형(높은 교육포부, 희망직업 미결정)’, ‘진로관심형(높은

교육포부, 높은 직업달성포부)으로 분류되었다. 분류된 유형에 따라, 진로준비도의 유형에 따른 집단 간 개인·환경 요인의 차이와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을 탐색한 결과, 개인, 가정, 학교, 그리고 진로 특성에서 ‘진로 관심형’이 전반적으로 가장 우수한 수준, ‘진학 무관심형’이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진로준비도 유형별 예측 요인 탐색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 특성 중 중고등학생의 부적응적 사회정서 측면이 높을수록 ‘진학 무관심형’, 가정 특성 중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진학 관심형’, 학교 특성 중 수도권에 위치하거나 교사와 긍정적 관계일수록 ‘진로 관심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특성에서는 높은 진로적응력, 어머니와의 높은 진로 관련 대화 빈도, ‘진로와 직업’ 수업 참여 경험에 있는 경우 ‘진로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한편, 직업/진로 관련 체험활동 참여 횟수가 많은 경우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진로준비도 수준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 청소년의 개인·환경적 특성 및 진로준비도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체계적인 진로준비를 위한 방안으로 1) 학교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 안착을 위한 지원, 2) 경험 중심 진로체험의 내실화, 3)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4)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지원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utilizes the fifth year (2022)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8 to conduct cohort analysis of the career readiness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by school level and period, and latent profile analysis (LPA)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by latent profile type. Specifically, the cohort analysis by school level examined differences in career readiness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cohort analysis by period analyzed differences in career readiness between past and present high school students using data from the KCYPs 2003.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by latent profile type of career readiness in the LPA, we first determined the number of latent profile types of career readiness for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respectively, and analyzed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person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mong the heterogeneous sub-level profiles. We also explored the factors that predicted each profile throug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we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career readiness by school level, period, and latent type.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school-level-based cohort analysi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how similar trends in educational aspiration, reasons for

choosing expected occupations, and school-mediated work exploration. On the other hand, we have found differences between the school levels in terms of expected occupation, career adaptability,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and level of help. Next, the results of the cohort analysis by period show that, compared to the past, recent high school students are more likely to pursue higher education but are undecided about their expected occupation. Furthermore, compared to the high school students in the past, those in the present also show differences in thoughts on career (e.g. the value of occupation), psychological and aptitude tests, career exploration (e.g., school-mediated work exploration), and career experiences (e.g., part-time jobs). Next, the results of the LPA of career readiness show that it is most appropriate to categorize all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to the following three profiles: "not interested in higher education" (undecided educational aspirations, low occupational aspirations), "interested in higher education" (high educational aspirations, undecided occupational aspirations), and "interested in career" (high educational aspirations, high occupational aspirations). Based on the categorized profiles, we analyzed the differences in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between the career readiness profiles and examined the predictive factors affecting each profile.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interested in career" profile had the highest level of career readiness overall and the "not interested in higher education" profile had the lowest level of career readiness overall in terms of personal, family, school, and career characteristics. The main findings of examining the predictive factors by career readiness profile are as follow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show higher levels of maladaptive socio-emotional aspects, among personal characteristics, are more likely to be in the

“not interested in higher education” profile. Meanwhile, those whose parents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education, among the family characteristics, are more likely to be in the “interested in higher education” profile. Those having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eachers or being loc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mong the school characteristics, are more likely to be in the “interested in career” profile. In terms of career characteristics, students with high career adaptability, high frequency of career-related conversations with their respective mothers, and participation experience in “career and occupation” classes a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interested in career” profile. On the other hand, those who have participated in a high number of occupation/career-related exploration activities a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not interested in higher education” profil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ifferentiated interventions are needed based on the person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career readiness profiles of middle and high students to increase their level of career readiness effectively. Therefore, for the systematic development of career readines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is study proposes policies such as (1)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career education in the school curriculum, (2) internalization of experience-oriented career exploration, (3) preparation of plans for active implementation of regional career education to resolve regional disparities, and (4) support for sustainable career education.

연구보고 23-일반07-01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인 쇄 2023년 12월 23일

발 행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416-6 94330

979-11-5654-414-2 (세트)

연구보고 23-일반07-01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16-6
ISBN 979-11-5654-414-2(세트)